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3월 11일(음력 2월 15일) 수요일(주간)

깨끗하게…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관련 설문·토론 잇달아

2009년 하반기로 예정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6개월여 남은 가운데, 제33대 총무원장을 바르게 선출해 불교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선제인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권력독점을 막고 종도의 참종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1994년 종단개혁 때 도입됐다. 종단의 삼권분립과 교구자치제 등이 실현되면서 권력 독점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잉경쟁, 고비용 선거문화 등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법은 1999년 10월 이후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비구니 승단의 종단 내외적 상황이 변화한 10여 년 동안 정체됐던 선거법을 두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2008년 12월 조계종 스님 282명과 재가자 186명 등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출·재가자 인식조사'(이하 인식조사) 결과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2006년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기초소위원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 이후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종단 내 의견수렴으로는 유일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중요자격요건 가운데 사회적 소통능력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척도로는 4.29점을 차지했다. 총무원장이 사회흐름에 맞게 젊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39.2%(3.19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조계종 사부대중들 다수(91.4%, 4.5점)는 선거제변경보다 부정 방지대책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방식을 폐지하자는 의견(66%, 평균 3.31점)과 선거 제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66%, 평균 3.30점)이 팽팽히 맞섰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직선제냐 추대제냐, △선거인단 축소냐 확대냐 하는 선거방식보다 금권선거와 매관매직 등 선거부정을 막아야 한다(평균 4.5점)는 규제강화에 관심을 뒀다.

선거비용 일체를 선거관리기관이 부담하는 완전선거공영제 시행 시 도입돼야 할 제도에 관해서는 △후보자 선거공보(이력 및 공약소개)(84%)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 선거운동 금지(82%) △후보자 공약의 교계언론 공시(81%, 4.06점) △후보자 공개토론회 실시(81%, 4.03점) △제공된 사무소 외 선거사무소 개설 금지(78%, 3.90점)의 순이었다.

완전선거공영제를 통한 선거통제장치로는 중앙에 청정선거신고센터 설치와 교구별 선거감시단 구성, 재야의 선거감시단 운영 등을 꼽았다.

불자들은 선거방식에 변화가 있다면 직선제 또는 원로(종정)의 권위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했다. 40여%의 응답자들은 직선제를 한다면 일정승랍 이상의 직선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2006년 조사 당시 추대제와 직선제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6.7%와 35.8%였으나, 이번 조사에는 추대제가 6%대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 '직선제로 하면 돈선거가 사라질 것'이라 주장에 3.32점(66%)을 줬고, '추대제로 하면 권력독점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3.56점(71%)을 줘 돈선거와 권력독점을 막는 대안으로 직선제를 선택했다. 이상호 사무국장(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불자들이 승가의 전통으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대중공사'를 이상이자 바람직한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대제와 관련해서는 동국대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을 예로 심한 정파간 대립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직선제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직선제 실시에도 어려움이 있다. 계율 등에 의해 사부대중 각각의 구별이 확연하기 때문. 승가사회 정서상 불가능에 가까운 직선제를 대중들이 '선거규제 강화'라는 대안으로 드러낸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이다.

하지만 올해 치러질 총무원장 선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절반에 달하는 49.4%가 이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비구니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65.8%로 높아진 것도 직선제 도입 여부를 떠나 조계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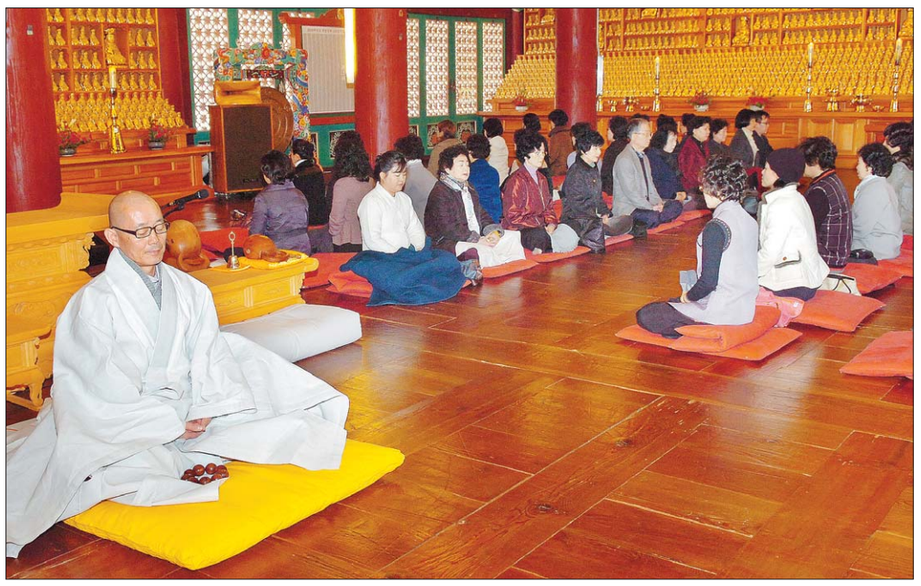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국불교의 수장이다. 대내적으로는 조계종 종무행정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는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16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 앞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재야단체들도 잇달아 토론회를 마련한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3월 11일 오후 4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선거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선 토론회를 연다. 12일 오후 2시에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총무원장 선거에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때, 불자들의 불심(佛心)가득한 중지와 이에 상응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의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나'를 찾아서…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출가재일(3.4)을 맞아 부처님 출가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3월 4일 법왕루에서 주지 스님을 모시고 '출가열반재일 정진주간(3.4~10) 참선정진'을 시작했다. 150 여명이 동참한 입재식에서 명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출가는 '나'를 찾아 떠난 길이었다"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다. 사진은 입재식후 참가자들이 참선에 든 모습. 박재완 기자

승가대 총장에 태원 스님

2월 28일 이사회 표결서 선출



중앙승가대학교 제5대 총장에 태원 스님이 선출됐다.

승가학원 이사회(이사장 지관)는 2월 28일 제82차 이사회를 열고 종범 스님 후임 총장을 선출했다.

회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원종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과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태원 스님(승가대 불교학과)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태원 스님이 9표, 원종 스님이 1표, 기원 2표로 태원 스님이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태원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1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197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88년과 1997년 일본 불교대학에서 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와 서울 정릉 보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제13회 만해대상 평화상

시린 에바디 변호사



이슬람권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최초의 여성판사를 지낸 시린 에바디(62·사진) 인권변호사가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조계종 총무원장 지관)가 수여하는 제13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대상심사위원장인 양승태 대법관은 3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어린이 등 약자의 인권개선과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등 세계평화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온 시린 에바디 변호사를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해대상 실천부문에는 이소선 민주화운동유가족 협의회 고문, 문학부문 대상에 미국 계관시인 로버트 하스씨와 김종길 시인, 학술부문 대상에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 포교부문 대상에 빤냐와로 스님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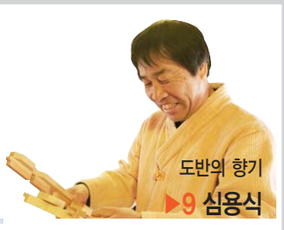
시상식은 8월12일 오후 4시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거행된다. 상금은 각 3000만원이다.

수상자 공적사항 8면에

김성우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대원 스님



도반의 향기 ▶9 심용식

▶5 생활속 '능엄신주 독송'
▶10 부산은 벌써 봉축 물결
▶19 책으로 오신 큰스님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법구경

완성된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는 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www.buddhabook.co.kr
02_953_7181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NAVER 통합검색 산상차 검색 을 검색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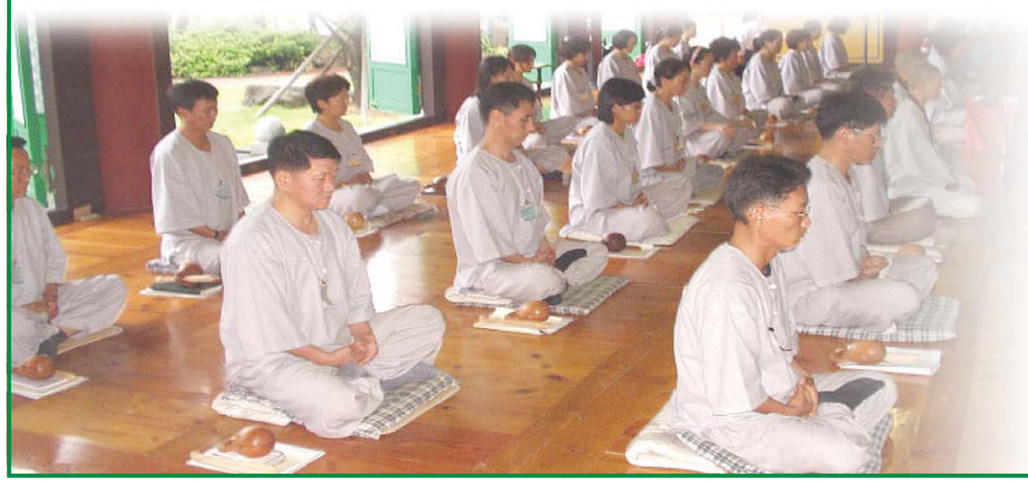


법문 및 점검
대효 스님 (활인선원장)

고난극복의 최상승 선체험 간화선의 길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

통찰은 무량겁의 때를 한순간에 말끔히 씻는다



깨닫고 시작하는 참선
참 나를 찾는 길, 최상승선, 간화선의 길,
삶의 궁극적 목표의 중요성, 바른 삶의 길,
올바른 화두참구 방법 간택,
신앙을 갖고자하는 분, 올바른 신앙의 길,
불교신앙의 보람, 화두 실참의 뜻,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을 요하는 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생. 주부. 경영인
참선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
참선을 망설이고 있는 분. 초심자
화두실참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3,14세(중2)면 가능

장 소 : **활인선원** *(www.hwalin.net)*
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

날 짜 : 입재 3월 13일(금) 10:30
회향 3월 15일(일) 16:00 (3일간 숙식가능)

접 수 :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031)671-7707, 671-6610, 010-5042-5442

동참금 : 10만원 (가족 1인 추가시 5만원)

◆ 찾아오시는 길 (카페에 자세히)

- 대중교통 : 1. 서울에서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죽산행 2~30분마다 출발. 죽산에서 시내버스10번 4번째정거장 '한평' 하차
2. 서울 등지에서 다양한 버스이용, 용인버스터미널에 하차 후 시내버스 10번 '한평'에서 하차
- 고속도로 : 1. 서울에서 또는 지방에서, 중부고속 / 일죽죽산IC에서 10분 거리.
2. 경부경유 영동고속 / 양지IC에서 20분.
3. 지방에서 경부선 상경시/평택안성IC 30분

※ 서울은 입재일 아침 8시에 조계사앞에서 버스운행 - 승차희망시 사전연락

활인선원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031)671-7707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세 스님'의 같고도 다른길

경인운하 재개 등 환경 현안을 앞두고 불교생명운동을 이끌어 온 도법 · 수경 · 세영 스님의 같고도 다른 행보가 눈길을 끈다.

도법 스님이 이끄는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은 3월 2일 경인운하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인천 방수로 공사현장 등을 순례했다. 이에 앞서 도법 스님의 40년 도반으로 불자들을 환경운동으로 이끌던 수경 스님은 2월 26일 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직 고사를 밝혀 충격을 줬다.

수경 스님은 "내 환경운동 방식이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불교환경 활성화에 적합지 않았다"며 고사의사를 표했다.

그동안 조계종을 대신해 환경문제 관련 불교계 목소리를 내온 불교환경연대가 10주년을 앞두고 오체투지 순례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그 자신이 창립 때부터 상임대표를 맡아 이끌어온 환경연대 대표직 고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그 중 하나는 2월 13일 '조계종 국립공원 내 사찰주지 회의'에서 청와대의 MB정책 홍보물 배포를 방조한 조계종의 불교환경 관점에 회의를 느꼈다는 시각이다.

특히 불교환경연대 등 교계단체가 사과를 요구한 당사자가 도법 · 수경 스님에 이은 불교NGO의 지도자로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공동대표를 맡아 고난을 함께했던 세영 스님이었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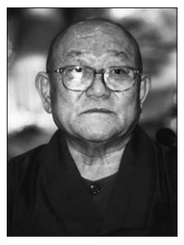
세영 스님은 2월 26일 불교환경연대 등 5개 불교단체가 제기한 '홍보물배포' 논란에 대한 조계종 공식논평에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홍보물에 대해 신중해야 했다. 논란을 야기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는 사과의 글을 실었다. 공식사과로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각종 사회적 현안에서 앞장서 온 투명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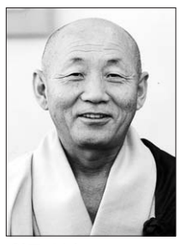
1999년 지리산 댐건설 반대 등 두 스님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함께 또는 다르게 사회 속에서 '생명평화'의 불교정신을 외쳤다. 현재 도법 스님은 실상사에서 도농공동체의 사회 속 저변확대를 꿈꾸며 조용한 순례를 하고, 수경 스님은 오체투지로 일반인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 이어 세영 스님은 총무원이라는 제도권에서 함께 또는 다르게, 행정적 지원 등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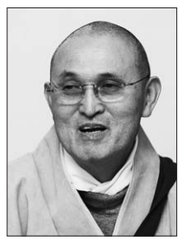
서로가 잠시 각기 다른 모습, 현장에 있지만 모두 가슴에는 '생명평화'의 강이 흐르고 있다. MB정부의 반환경정책 시행을 앞둔 지금, 다시한번 하나가 된 불교생명 · 평화운동을 기대한다.

조계종 포교원 역대원장에 '노하우'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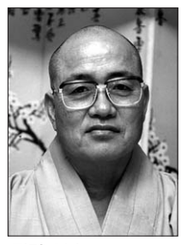
'2009년 포교역량결집의 해' 맞아 3월 14~15일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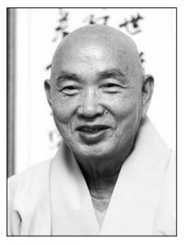

무진장 스님.


암도 스님.


정락 스님.


성타 스님.


정련 스님.


도영 스님.

2009년 포교역량결집의 해를 맞아 조계종 역대 포교원장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3월 14~15일 포교원 종책 수립 및 군부대 특별 법문 등을 위한 역대포교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초청법회에는 무진장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담양 마하무량사 회주), 정락 스님(화성 만의사 회주), 성타 스님(경주 불국사 주지),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 등 1995년 포교원 별원화 이전 포교원장 소임 스님까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법회 첫날인 14일 오전 10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초청간담회를 통해 역대 포교원장 스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포교 종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오전 10시에는 역대 원장 스님들이 계룡대 호국사, 공군사관학교 호국성무사, 국방부 원광사,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논산 육군 훈련소 연무사 등 주요 군법당을 방문해 특별법회를 통해 군장병들을 격려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탈북자 정착지원 하나원 법당 개원 법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탈북자 정착지원터인 하나원에 법당을 개원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 28일 하나원 법당에서 '새터민 천도재 및 하나원 법당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석남사 주지), 혜총 스님, 각현 스님(안성사암연합회장, 연꽃마을 대표이사), 정환 스님(청룡사 주지), 강홍원 포교사단장, 고경빈 하나원 원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치사에서 "공포, 질병, 불안으로 고통 받는 새터민들에게 하나원 법당에 점안한 관세음보살님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변화하니 일념으로 기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원법회에 앞서 안성 청룡사에서는 새터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상언 기자

종하 스님, 자비나눔에 첫 성금 1000만원 기탁


3월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게 자비나눔 성금을 전달하는 종하 스님.

고통 받는 이웃을 돕기 위한 조계종 자비나눔 운동이 종하 스님의 첫 성금 전달로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서울 관음사 주지 종하 스님은 3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종하 스님은 "경제난으로 실직자가 늘고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불교가 구고구난(救苦救難)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성금을 계기로 자비나눔운동에 많은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비나눔 운동 모금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 관계자는 "이날 첫 성금 전달 외에도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자비나눔 이사)이 재가차원에서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우리사회를 밝게 하는 불교 대사회운동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3월 27일 전국 3000여 사찰에서 1배당 100원을 기부하는 '자비나눔기금 모금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02)737-9595. www.thenanum.org 노덕현 기자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창립

초대의장 진오
부 의 장 만초·석장
사무총장 금강 스님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이하 대중결사)는 3월 6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100여 사부대중이 모여 창립총회 및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53 발기인 가운데 35인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의장에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을, 부의장에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주지), 석장 스님을 추대했다. 수행환경위원장에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 문화복지위원장에 성원 스님(거제 금강사 주지), 인권통일위원장에 선오 스님(대전 만불선원 주지), 감사에 심산, 종호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사무총장에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추대됐다.

창립법회에서 초대 의장 진오 스님은 "시대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 국가와 종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대중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만초 스님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대중결사 회원들은 △검소와 청빈한 소비 생활화 △환경 인권 통일 복지 등 사회참여 △사후 개인 자산의 종단 기증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운동 참여 △대중결사 이름으로 종단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최초 비구니 학림 동학사 화엄학림 개원



최초의 비구니 학림이 공주 동학사에 개원했다.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해주 · 사진)는 3월 4일 경내 강설전에서 화엄학림 개원 및 입학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은 선배가 후학을 제도하고, 자기보다 약하거나 외로운 사람은 물론, 미물까지도 제도하는 길이 있다"며 "비구니 강원 최초로 개원한 동학사 화엄학림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주 스님은 환영사에서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비롯해 경학을 주된 수행방편으로 삼는 수행처로 참학과 참구를 통해 익힌 부처님 법을 전법으로 회향하는 곳"이라며 "학인스님들도 신심과 정진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화엄행자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7명의 학인 스님이 입학했다. 조동섭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국회 마음'에 연꽃 피운다

조계종 포교원, 매달 정기법회·사찰순례법회 지원



국회정각회, 국회직원불교신도회, 법우회는 3월 4일 국회의사당 정각선원에서 조계종 포교원 혜총 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을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쟁점 법안을 놓고 벌어진 임시국회는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세계에는 한바탕 비웃음거리 '쇼'를 생중계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00일 휴전'을 선포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국회에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날이자 부처님 출가재일인 3월 4일 국회의사당 정각선원에 목탁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회 정각회(회장 최병국)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 모임인 법우회, 국회직원불교신도회원 70여 명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초청,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혜총 스님은 "삼라만상이 윤회해 항상한 것이 없으니 하심의 자세로 상대를 공경하는 자세로 정중히 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공경 받을 것"이라며 "재물 · 사랑 · 건강 · 명예 · 수면욕 오욕락(五慾樂)을 불교적으로 응용한다면 국가와 민족의 발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어 스님은 "행복은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푸는 보시의 삶, 불법에 귀의해 지혜를 닦는 삶, 상대를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데 있다"며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각회에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고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이병길 회장은 인사말에서 "스님의 법문과 축원이 모두의 마음을 편하게 했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각회와 법우회 등은 정기적으로 스님 초청 법회 등 불자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정각회와 국회직원불교신도회 등은 앞으로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주관하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정기법회 외 각 지역사찰 스님들을 초청 특별법회를 열고 짝수 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사찰순례를 개최해 국회 불자간 친목 도모와 불심 함양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혜총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계성 스님, 신도국장 정무 스님,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불교 성보 대거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

청룡사 석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등

불교 성보(聖寶)가 대거 서울시 지정문화재 및 자료로 지정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3월 4일 청룡사 석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22점(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85호)과 도선사 석 삼존불상(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81호), 기원사 독성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82호), 지장암 지장보살도 · 산신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83 · 284호) 등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또한 기원사 산신도(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45호), 지장암 대웅전 신중도(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46)를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지정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지관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서 급식 봉사

2100여 어르신들과 '따뜻한 한끼 나누기'


3월 3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사회봉사 활동이 주목 받는 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3월 3일 급식 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관 스님은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첫 행사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급식봉사를 했다.

급식봉사를 하기에 앞서 지관 스님은 일문 스님에게 2100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성금(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인제군 네팔 불교성지 조성 본격화

백담사·민자단체와 투자협약(MOA) 체결


백담사 만해마을 민자투자협약을 맺은 박삼래 인제군수(왼쪽 두번째)와 코아랄라 네팔주한대사(오른쪽) 등 관계자.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용대관광지에 불교 순례지인 네팔문화촌이 조성된다. 인제군(군수 박삼래)은 2월 28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백담사 주지 삼조 스님과 투자자인 (주)IFC네트웍스와 네팔민속촌사(FNCCI)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백담사가 위치한 용대리 3만3000㎡ 부지에는 총 150억 원 규모의 룸비니 사원, 미니어처 히말라야산맥 등 불교 테마파을이 조성된다.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10년 10월 경 완공될 계획이다. 인제군은 사업완료 후 불교 테마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나라별 문화촌을 조성해 세계 불교 교류에도 기여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백담교~백담주차장 간 777m는 '네팔의 길'로 명칭된 상태다.

"불교문화촌은 2000년 독일 하노버에 조성된 것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아시아 첫 번째다.

노덕현 기자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 왕룡사원 목조…좌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예고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와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월 5일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는 1435년 경 제작된 벽화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다.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466년 조성을 시작해 1474년 완성된 조선 초기 불상의 중요한 기준 작품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 오춘영 학예연구관은 "봉정사 벽화는 1476년 제작된 무위사극락전아미타후불벽화(보물 제1313호)와 더불어 조선 초기 불화의 쌍벽을 이루는 벽화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왕룡사원 좌상 역시 제작연대를 비롯한 조성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신라 흥륜사 위치 파악 암시 명문기와 발견

경주공고 배수 시설 공사 과정서 발견

정확한 위치문제로 논란이 됐던 신라 최초 사찰 흥륜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명문 기와가 발견됐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3월 5일 경주시 사정동 경주공업고등학교 배수 시설 설치공사 과정에서 興輪寺(흥륜사)로 추정되는 명문을 새긴 수키와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명문은 10.7cm×5.7cm 크기 수키와편의 볼록한 등에 세로로 '○王(추정)興○'라고 새겨져 있으며, '興'자는 최근 발굴 조사된 부여 왕흥사지에서 출토된 '興'자와 거의 동일하다.

국립경주박물관 윤상덕 학예사는 "興자 위 아래 글자는 극히 일부분만 남아 있어 정확한 판독은 어려우나, 윗글자의 경우 아래 부분이 'ㅗ' 형태로 남아 있어 '王'자로 추정된다"며 "王자가 맞다면 진흥왕이 '대왕흥륜사(大王興輪寺)'라는 이름을 내렸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흥륜사를 가리키는 명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윤 학예사는 또 "이번 배수 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발굴조사에서 신라~통일신라시대의 건물터와 수키와편이 발견돼 흥륜사의 위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라 최초 사찰 흥륜사 명문기와로 추정되는 유물.

진흥왕 5년(544년)에 창건된 흥륜사는 그 위치가 현재 '흥륜사' (경주공고 남쪽 800m, 사적 15호)가 있는 자리라는 의견과 현재 경주공업고등학교 자리라는 의견이 상충돼 논란이 돼 왔다.

김진성 기자

"선원 건립해 美 현지포교 나서겠다"

대관음사 우학스님 미국 다녀온 뒤 의지 표명

"도심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 대관음사 회주)이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간 美포교 현장을 둘러본 소감과 해외선원 건립 등의 비전을 밝혔다.

우학 스님은 답보상태인 한국불교 혁신을 위한 '포교'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 그동안 세계화 방법을 모색해왔다. 2년 전부터 한국불교대학 내 불교영어강좌를 개설해 국제포교사를 13명 양성해 왔고, 스님 자신도 비구 혼자서 전도의 길을 떠나라던 부처님 말씀을 따라 미국 · 영국인 3명의 행자를 직접 포교했다.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대학에서 다져진 노하우를 통해 미국에서 교육과 생활이 하나가 된 불교문화를 알릴 생각이다. 스님은 6개월 뒤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3세부터 노인수용시설까지 갖춘 50명 수용수준의 선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우학 스님은 "타국에서 힘든 교민 불자를 비롯한 현지인들이 참선도 하며, 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韓國民俗哲學研究所 所長 方弼錫

운명을 바꾸는 개명

주역 개인지도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寶明寺 周易講義 講師
前 世界佛教徒 友誼會 弘報次長
現 韓國易理學會 中央學術委員
現 韓國民俗哲學研究所長


봉안 50주년을 맞이한 호미든 관세음보살상.

민중 · 생활 불교 반세기 동안 '호미질'

4월 5일 경남 김해 정토원서 '관세음보살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악화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요즘이다. 국회는 민생돌보기는 뒷전이고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일삼고 국민들은 경제난과 지도자의 부재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때 경남 김해시 봉화산 정상에 '호미 든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한 불교학도들이 50년 만에 다시 모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관세음보살상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손안식 · 권오현)는 3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관세음보살상 봉안 취지를 되새기고 의의를 재조명하면서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세미나 외에도 기념사업으로 4월 5일에는 경남 김해 정토원에서 봉안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하고 <불타의 삼대선언>발간, 기념 시 낭송회 등을 개최한다.

세미나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가 진행하고 권기종 원장(원각불교사상연구원)이 교리적 측면에서 '노동과 생산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봉춘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호미 든 관음상 봉안의 불교사적 의의'를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가 '실천불교의 사회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오현 前 불교방송 전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장봉호 불교문학 편집위원장, 김형중 동국대부속여중 교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생존권의 상징도구인 호미를 든 관세음보살상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 불교학도 31인이 '불교가 민중을 선도하고 일깨워 민족 생존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뜻을 모아 1959년 4월 5일 경남 김해 봉화산 정상에 봉안했다.

선진규 정토원 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50년 전, 독재정권 아래 남북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에서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생명을 이어가는데 불교계는 어려움을 보살펴야할 상황임에도 비구, 대처들의 피나는 분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다시 불교와 사회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 원장은 "봉안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불자들이 불교계의 변혁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55)342-2991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길벗' 특별열린법회

정토회 예술인들의 마음공부 모임


'길벗' 법회현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방송예술인들이 직접 현장 스태프로 활동한다. 안내를 하고있는 탤런트 배종옥씨(사진 왼쪽).



정토회 방송 · 연극 · 연예 · 작가 · 문화 예술인들의 마음공부 모임인 '길벗' 특별열린법회가 3월 2일 서울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노희경 작가, 영화배우 김여진, 탤런트 배종옥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행사 진행 스태프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길벗 모임을 이끌어가는 노희경 작가는 "경제로 행복해지기는 힘들 것 같다"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스님의 법문이 답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법륜 스님(사진)은 즉문즉설을 통해 "이익을 지나치게 따지면 그만큼 손실이 따르니 이익을 논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다만 최선을 다하라"며 결혼과 자아실현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또 "원을 세울 때에는 실현 가능한 원을 세우되 꿈과 욕심의 차이를 분명히 하라"며 "부처님의 말씀은 자유와 행복을 전달하는 것으로 항상 남을 돕겠다는 생각과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생각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또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항상 외롭기 마련"이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깊은 산 속에 홀로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륜 스님은 이웃 종교에 대한 인정의 자세,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 화를 다스리는 자세 등에 대해서 말했다.

한편 길벗 열린법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마음공부와 사회봉사 활동으로 아름다운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언 기자

2009 마을에서 길을 찾다

도농공동체 인드라망, 실상사 귀농교육 시작

IMF 이후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위한 귀농교육을 추구하는 산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가 다시금 도농 공생의 길을 밝힌다.

인드라망은 2월 28일 2009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활발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의 주인이 되자'는 모토 아래 진행되는 이번 사업으로는 △인드라망수련원 귀정사 정례화 △생명살림(마을) 기금 마련 △남원 산내마을 외 제2 실현지 정착 △'지리산 작은마을' 조성 △실상사 교육도량 불사 △대중교육 '쉼'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생명에 맞게 살겠습니다' 등 인드라망 100대 청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11년째를 맞는 실상사 귀농학교는 3월 20일 까지 22기 교육생들을 모집한다. 실상사 귀농학교는 도시민을 위한 불교귀농학교, 장기 체류형 현장귀농학교와 더불어 귀농 3대 주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간 35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현재 60% 가까운 귀농으로 농촌공동체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3월 28일부터 9주 동안 참가자들은 귀농학교에서 모심기, 농기계 다루기 등 기초농법부터 유기농 원예농업, 한우영농 등 농사방법을 배우고, 각 지역농업 특화현장을 답사하게 된다. (063)636-4325 노덕현 기자

'제30회 만해백일장' 역대 최대 인원 참가

수상시 대학입학 혜택…매년 참가자 늘어


3 · 1절 기념 '제30회 만해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보리, 전소영 학생과 심사위원 등이 동국대학교 만해시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가 3월 1일 3 · 1절 90주년을 기념해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30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백일장은 '밥' '길' '용돈' '예감' '잊지 못할 사람' 등을 시제로 시 · 시조부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역대 최대인원인 1655명의 청소년 · 일반인들이 글 솜씨를 발휘한 가운데 시 · 시조 부분에서 '법주사로 가는 길'을 쓴 유보리(충남여고 3)학생과 산문 부분에서 '밥 한 숟갈의 세상'을 쓴 전소연(산마을고 2)학생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희성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문학은 낡은 세계와 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며 "관념적, 관습적, 상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개성적, 독창적,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정웅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3 · 1운동은 외부적으로는 전 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이었지만 민족 내부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을 열망했던 민족의 간절한 외침이었다"며 "만해백일장을 통해 3 · 1운동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만해백일장은 우수상 이상 수상을 하면 대학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서 특별가산점 요인이 되는 등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해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상언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모집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가 4월 10일까지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모집한다.

파라미타는 2월 14일 열린 총회에서 올 한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앙 파라미타에서 신청을 일괄접수 한다.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계획 1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활동 신청서 1부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중앙파라미타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02)723-6165

이상언 기자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자 모집=평창 월정사는 3월 11일까지 제20기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모집한다.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한달 간 행자체험을 하고 단기출가학교 수료 후 출가를 원할 경우 정식 행자로 등록 가능하다. 월정사 홈페이지로 접수 받으며 50명 선발한다. (033)332-6661

●나주 불회사 '천수다라니 만념기도'=나주 불회사는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불회사 천수전에서 천수다라니 만념기도를 실시한다. 동참금은 자유보시. (061)337-3440 www.bulhoesa.org

●대전 연방죽선원 '위빠사나 수행'=대전 연방죽선원은 3월 15일부터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사띠파타나 위빠사나 수행을 진행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조티카 스님의 저서 <수행지침 마음의 지도>로 담마토크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수행지도를 실시한다. (010)3214-1255

●제따나와선원 '경전독송모임'=제따나와선원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경전독송모임을 실시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불교 심리치료와 대화명상 프로그램을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특별법회, 영어법회를 개최한다. (02)595-5115

불교 미술인들의 새로운 등용문

불화 · 서각 · 서예 · 민화 작가들에 '주목' 제 4회 한반도 미술대전

- 공모부문 : 불화(전묵화) · 한국화 · 수채화 · 서양화 · 서예 · 문인화 · 서각 · 민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이 깃든 창작 작품으로 국내 · 외에서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
- 접수기간 : 2009년 3월 21일(토) (우편접수 3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작품규격 : 불화는 20×25cm 이상 사진(2매)접수 심사 가능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민화, 불화, 서각은 60호이내
  서예 · 문인화 70×135cm이내 미표구 / 전각 영인본 70×100cm이내 미표구
- 출 품 료 : 1인 3점이내, 1점 40,000원(2점 60,000원, 3점 80,000원)
  (출품료 입금처 : 농협 210-01-266783 / 예금주 : 한반도문화예술협회)
- 원서교부 : 2009년 2월 1일부터 사무국[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다운로드 사용]
- 접 수 처 : 한반도미술대전사무국
  (220-938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세경 3차아파트 상가 207호 전화 1644-6065)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9월 4월 17일(금) ~ 4. 22(수) 치악예술관
- 심사발표 : 발표 2009월 3월 24일 [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일간지, 개별통지]
- 시 상 : – 대상 강원도지사상 1명 상금 300만원(매입상) – 최우수상 1점 상금 100만원(매입상)
  – 우수상 10명 상금 각 30만원 – 특선 · 입선 약간명
- 특 전 : 우수상 이상 작품, 본 협회 초대작가, 운영위원 작품은 해외전시 예정
  – 2007년 일본 오오사카전시, 2008년 필리핀 마닐라 미술협회와 교류전 전시 하였음
- 문 의 :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사무국
  Tel 1644-6065 H.P 010-5795-9006 Fax 033)763-6065
  H.P 011-735-9178 불화분과장 김진구

주최 ▮ 사단법인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주관 ▮ 한반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 강원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GTB강원방송, YBN영서방송, 취송산방 &기획

대한불교원효종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수 공고

서울고등법원 2009. 3. 4 2009 비합 4
종회의원선출허가 결정에 따라 종회법 제 3조
다음과 같이 종회의원 선거를 위한
각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 수를 공고합니다.

교 구	배정 의석수
서울	1
부산	3
충남대전	1
울산	4
대구	1
인천경기	1
강원	2
충북	1
전북	1
전남	2
광주	2
경북(경북남포함)	3
경남(서부경남포함)	2
제주	1
계	25

2009년 3월 10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용일

종회의원 선거 공고

서울고등법원 2009. 3. 4. 2009 비합 4
종회의원선출허가 결정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추어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종회법 제6조 의거 각 교구 선거위원회의 구성
•일시 : 2009. 3. 12(목) ~ 2009. 3. 16(월)

종회법 제7조 의거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일시 : 2009. 3. 17(화)
오전 9:00 ~ 2009. 3. 23(월) 오후 6:00
•장소 : 각 교구 선거위원회

종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의거 종회의원 전형
•일시 : 2009. 3. 24(화) ~ 2009. 3. 25(수)

종회법 제9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전형 결과보고 및 관계서류 발송
•일시 : 2009. 3. 26(목)

종회법 제 10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부 판정
•일시 : 2009. 4. 2(목)

종회법 제 11조, 제 12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확정 공고
•일시 : 2009. 4. 3(금)

2009년 3월 10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향운

정돈된 생활 간절한 수행으로 당당한 불자의 삶 누리자

11 생활 속의 아비라기도수행

꿈바위불교교육원의 참회 발원 정진 회향의 생활


꿈바위불교교육원 공세화 원장(오른쪽)이 불자들과 함께 능엄신주 독송을 하고 있다.

천하에 봄소식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경제 한파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뉴스 듣기가 두렵습니다. 올라야 할 것은 내리고 내려야 할 것은 오른다는 뉴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소식, 민생의 신음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움질만 하는 정치인들의 꼴사나운 모습들로 채워진 뉴스는 세상을 점점 우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응달로 기어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햇빛이 있는 곳을 찾아 당당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햇빛을 가린 것들은 반드시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수록 그 시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불자의 삶은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그 당당한 삶은 흐트러짐 없는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활과 수행을 하나로 여기고 사는 자체가 간절하고 진지한 수행이 돼야 진정한 불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에서는 생활 속에서 참회 발원 정진 회향을 둘 아니게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불정능엄신주'의 독송을 중심으로 수행하길 권하지만,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각자의 인연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에서 생활속의 수행, 수행속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실천과제로 삼고 있는 항목들과 '대불정능엄신주'의 독송법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다운 불자는 경전과 좌복을 갖춘다

참다운 불자라면 가정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경전입니다. 특정한 경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족 수대로 경전은 꼭 갖춰야 합니다. 집에 경전 한 권 없이 불자이길 바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천수경>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등 수많은 경전 가운데 원하는 한두 가지의 독송용 경전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때고 경전을 독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매일 경전을 독송해야 합니다. 조용조용 눈으로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독송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듯 즐겁고 힘차게 독송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지혜가 솟아오릅니다.

다음으로 좌복(방석)을 갖출 것을 당부합니다. 모양이 어떻든 재질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좌복을 갖춰둠으로써 불자로서의 삶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집에 경전이 있고 좌복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돈하고 앉아 경전을 독송할 수 있습니다. 불자로서의 단정한 생활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불교전문신문 한 가지는 반드시 구독할 것을 권합니다. 불교계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불교전문지를 정기 구독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문을 통해 새로운 소식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계 신문은 정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참고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줍니다. 또 좋은 기획기사들을 통해 불교에 대한 교양과 문화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습니다. 불교전문신문은 가장 생생한 신행지도사가 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자신이 구독하고 있는 불교전문신문을 권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법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만행, 스스로 찾아가는 행복한 인생

마지막으로 만행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행이라 하면 특정한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수행하는 불자는 좋은 인연을 찾아 지성으로 정진하고 그 가피를 이웃에게 회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행은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추어서 좋은 인연을 찾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힘겹지만, 신심을 내면 하루 코스도 좋고 이틀 코스도 좋고 사흘 혹은 그 이상의 만행도 좋습니다. 형편에 맞추어서 원근을 선택해 좋은 법회현장도 찾아가고 훌륭한 도량에 가서 정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이 깊어지고 수행의 힘이 증장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진력을 바탕으로 이웃과 뭐든지 나누는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보다 당당하고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자의 경우 장기적인 만행을 하는 편입니다. 1990년에 첫 만행에 나서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매일 2000배 내지 3000배를 하며 몸의 조복을 받았습니다. 절을 할 때는 각종 경전을 읽었고 소책자로 만든 경전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원력과 회향의 만행을 하면서 필자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갖고 높은 권력을 차지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즐거워지고 바람 소리에도 웃음이 툭툭 터져 나오는 그 희열야말로 참다운 행복입니다. 수행하고 베푸는 삶이 아니고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행(2005년) 길에서는 법보시를 위주로 했습니다. <우리말 천수경> <지장경> 등의 경전을 인쇄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차량에 꽂아 주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올봄에도 만행을 떠나려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에서 정진하는 불자님들과 함께 지장경 카세트 테잎을 법보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만행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선인(善因)을 쌓습니다.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인연을 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인연이 언젠가 성불의 모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엄신주, 큰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하라

'대불정능엄신주'의 독송 수행은 번뇌망상을 없애고 정진력을 키워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독송의 공덕은 이렇습니다.

"너희 배우는 사람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도를 얻고자 하면서도 능엄신주를 외우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에 마(魔)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만일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사는 중생들이 나무껍질이나 잎이나 종이나 천에 이 주문을 써서 간직할 것이니 설사 외울 수 없거든 몸에 갖거나 방안에 두기만 하여도 독이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느니라. 능엄신주를 열심히 독송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귀신이 해를 주지 못하며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다. 능엄신주를 읽거나 외우거나 몸에 간직하면 이 사람은 보리심을 처음 낼 때부터 부처님 몸을 얻을 때까지 세세생생 나쁜 곳에도 나지 아니하며 천하고 가난한 곳에도 태어나지 않느니라."

능엄신주는 처음부터 제대로 독송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입문자의 경우 반드시 전문적으로 능엄신주 독송 수행을 하는 곳을 찾아가 독송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큰소리로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속에서 주문을 웅얼웅얼해서는 안됩니다. 느리더라도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독송해야 합니다. 횟수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발음으로 독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띄어 읽기가 잘 돼야 나중에 속도가 붙고 피로감이 덜 합니다. 능엄신주 독송 수행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몇 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황순희 보살님]은 오랫동안 무속에 의지하다가 꿈바위불교교육원에서 능엄신주 독송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진하며 기도와 수행과 생활이 다 한 덩어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남편 역시 건강이 날로 나빠졌었는데 경전 독송과 선행공덕을 쌓으며 능엄신주 수행을 하는 동안 사업의 번창과 가정의 화목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가운데 늘 노숙자들을 위해 음식 공양을 베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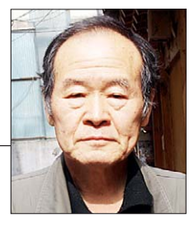
[임명선 보살님]은 현대불교신문의 정기구독을 도반들에게 많이 권유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보살'로 통합니다. 전국 사찰을 찾아 능엄신주 수행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말 천수경> '지장경 테잎' 등을 보시합니다.

[류춘하 보살님]은 마음이 늘 불안하여 꿈자리가 어지럽곤 했지만 능엄신주 수행을 하면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갈등관계도 다 해소되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심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참회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먼저 하심을 하니 온 가족이 다 한마음으로 뭉쳐졌다는 것입니다.

[곽태곤 거사님]의 경우는 타종교를 오래 믿었는데 개종하여 경전 독송과 포교활동으로 즐거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생 거사님]은 정신과 의사인데 큰소리로 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의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거사님은 성철 스님의 신년법어 불탄 법어 등을 경전 읽듯 큰 소리로 독송하는데 이 독송법은 정신과 환자들의 증세를 호전시키는데도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참다운 불자의 삶은 늘 참회하고 발원하고 정진하며 회향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생활 속에서 한 덩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불서를 읽고 불교전문신문을 정기적으로 보는 등 정돈되고 간절한 생활을 하다보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삶은 회향의 삶이므로 수행과 생활을 둘 아니게 살아가는 불자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 정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도 술술 풀려 나갈 것입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의 수행생활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010)6789-5008



공세화
꿈바위불교교육원장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 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해 외 WORLD

분신기도 티베트스님 中 경찰 사살

티베트 대중 봉기 50주년 맞아 중국과 긴장 심화

티베트 봉기 50주년, 천안문 사태 20주년을 앞두고 20대 티베트 스님이 2월 27일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중국의 종교탄압에 저항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다 중국 경찰의 발포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P · AFP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티베트 아바티베트족창족자치주(阿巴藏族羌族自治州) 아바현(縣)의 한 시장 부근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타페이(Tapey)란 이름의 스님은 손으로 그린 티베트기와 달라이 라마 초상화를 들고 키르티사원(格爾登寺)에서 큰 길까지 걸어 나온 뒤 군중이 보는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했다. 이 과정에서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 배치됐던 무장경찰이 스님을 에워싸고 3발의 총성을 울렸다.

이 사건은 티베트의 대중(對中) 봉기 50주년(3월 10일)과 자치 독립을 위한 유혈 봉기 1주년(14일)을 눈앞에 두고 발생해 인근의 쓰촨, 칭하이(青海)성 등 티베트인 집단거주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베이징은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소요사태 발생을 우려해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철통 보안을 하고 있으며, 티베트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특별공작조들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철저하다.

이렇듯 통제 속에서 정적이 감도는 티베트의 모습과는 달리 중국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1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NPC)를 열어 바쁜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조만간 은퇴 의사를 밝힌 달라이 라마도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중국 정부와 티베트 사이의 중재자였던 그가 은퇴하면 티베트의 문제는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최근 '고도자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수차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티베트인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에게도 "중국의 탄압에 무모한 저항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치안대책인 '6521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사회불안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대책인 '6521 프로젝트'는 건국 60주년, 티베트 봉기 50주년, 천안문 사태 20주년, 파룬궁(法輪功) 도심시위 10주년에서 따왔다. 이 프로젝트에는 31개 성 · 시 · 구와 현 · 시 단위에도 당과 공안부문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단행동과 사회불안요소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네팔 룸비니 세계 최대 韓 사찰 건립

도문 스님 원력 이어 법신 스님 불사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 동산 근처에 세워지고 있는 세계최대규모 한국 사찰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지 3만8329㎡(1만1615평), 건평 3032㎡(919평) 규모의 한국절 대성석가사는 주지 법신 스님이 1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끌어온 대작불사다.

유서깊은 성지 룸비니에 중국 일본은 물론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 불교가 융성한 나라의 사찰은 이미 지어져 국위를 선양하고 참배객을 받고 있지만 1600년 불교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절만이 없었다.

룸비니에 한국 절을 세우겠다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의 간절한 원력을 이어받은 법신 스님이 룸비니에 간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1995년 2월 룸비니에 네팔 정부 측과 1999년 임대 조건으로 부지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완공예정이었다.

하지만 IMF구제금융사태를 만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가 지연됐으나 평택 명법사 화정 스님이 음악회를 열어 15만 달러를, 제주 고관사 도림 스님이 내부 장엄을 지원하는 등 한국 불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 여법하게 공사를 진행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네팔 룸비니 동산 근처에 세워지고 있는 한국식 사찰 '대성 석가사'.

건물 높이가 42m(15층 규모)로 이미 신축된 2층과 3층 요사채는 하루에 100~200명의 해외 순례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해 배낭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다. 또 스님은 결핵과 문둥병 환자가 반이 넘는 열악하고 가난한 환경에 있는 현지인들을 불사에 고용, 지역민들에게 생활근거도 마련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장기기증 홍보 강화"

서울메트로 안국역과 캠페인 협약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 왼쪽)는 서울메트로 안국역(역장 박종천 · 오른쪽)과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는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2005년 故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의 장기기증 소식은 '생명나눔운동'을 열풍으로 이끌었다. 4년이 지나 대중적 관심이 시들해진 가운데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소식에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설립 15주년을 맞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비전으로 내실을 다지고 장기기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면 스님은 "김 추기경 선종으로 국민들의 장기기증 관심이 높아졌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 사람의 장기기증이 아홉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한해 생명나눔은 '소통, 참다운 나눔'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중 △환자 △정서 △기관 △온라인의 다섯영역에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중과의 소통은 장기 기증 홍보 및 교육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위한 캠페인 진행을 병행하게 된다. 환자와의 소통은 환자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헌혈은행 활동 등이 포함되며, 정서와의 소통에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 사업을 주로 펼칠 예정이다. 기관과의 소통에서는 각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홍보한다.

이날 간담회 후 생명나눔은 서울메트로 안국역(역장 박종천)과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는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으로 생명나눔은 안국역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장기기증을 홍보할 예정이며, 홍보공간도 안국역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 3호선 16개 전 철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7일에는 명동에서 KBS와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기증 홍보를 위한 연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면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과 목사, 신부, 수녀님들도 함께 참가해 종교계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한편 3월 16일 오후 2시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2009년 임시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본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무료진료 경제적 지원"

성북장애인복지관 경찰병원과 결연



성북장애인복지관과 경찰병원은 자매결연을 맺고 2011년까지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2월 27일 성북구 장애인의 질병예방과 건강 향상을 위해 경찰병원과 자매결연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동엽 경찰병원장은 "성북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작은 도움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며 "무료진료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무료진료에서는 내과 · 정형외과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10명의 봉사단이 장애인 50여 명에게 진료와 상담을 제공했다.

앞으로 성북장애인복지관과 경찰병원은 2011년 2월 26일까지 연6회 무료 진료 및 의약품 지원을 진행한다.

현관 스님은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유대관계 증진은 물론 성북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해 본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915-9200

이나은 기자

무료안과 진료 자비나눔 활성화

(사)새생명광명회 아름다운동행 이사회

(사)새생명광명회(회장 김기원)는 2월 27일 진주 금곡면에서 '새빛 사랑 나눔과 무료안과진료'를 실시했다.

진주 이성수 안과 병원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으며, 면민 96명에게는 무료 안경도 선물했다.

또한 색소폰 연주, 상담, 이 · 미용 서비스 등 문화 ·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새생명광명회는 1994년 10월 10일 회원 1000여 명의 후원으로 출범했다. 이 단체는 구세대비(救世大悲) · 만고광명(萬古光明) 정신으로 눈 질환, 각종 심장기 질환자에게 개안, 심장기 이식수술의 지원, 사후 안구 · 시신 · 장기 기증의 예약 홍보 운동을 펴며, 보건위생 관리와 교육, 무의촌 순회진료 · 검진을 통해 눈 질환 예방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055)758-6611

이나은 기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2009년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3월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재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비나눔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08년도 감사보고와 함께 200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개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또 △사회복지모금사업, 모금재원의 운용 · 관리 및 배분사업 △사무총장 신설 △임원연임 1회로 제한 △사무국에 사무국장 임명 등의 사항을 개정해 정관에 추가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자비나눔과 기타 구호, 국제개발협력 등 사업분야에 각각의 전용 기금계좌를 설치해 기부자들의 기부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나은 기자

경전연구회 2년결사 경전강좌안내

출가스님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에서 아래와 같이 2년 결사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 큰스님
경 전 • 진심직설 • 몽산 법어 • 이입 사행론
• 증도가 • 간화 결의론 • 원각경
• 달마대사 혈맥론 • 달마대사 관심론
과 정 2년 과정
개 강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3~6시)
모집인원 50명 선착순(40여명 가등록 되있음)
장 소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수 강 료 50만원(1년)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는 공부모임에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계좌번호 102608-01-001671(우체국) 예금주 : 경전연구회
문 의 회장 : 011-420-7838(지장스님) 총무 010-7963-7070(법정스님)
재무 : 016-9669-3917(정담스님)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상기병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에 활용 / 자신 및 가족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생활 속 비상 따주기로 활용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 이웃에 건강 복 짓기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신비의 비장 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 수치의 비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작명 비법

5.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12명)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 2009. 3. 21(토) ~ 3. 22(일) 〈 금요일 오후 도착〉 (34만원)
- 토요일 09시 시작 ~ 일요일 13시 까지
다. 장 소 : 한결자연학교
(옥황토방 숙박 / 자연식단 제공 / 따주기 도구 · 비법교재 제공)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대승사론현의기’ 백제냐 신라냐

금강대 불교문화硏 국제세미나



2월 28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연식 · 플라센 · 간노 히로시 · 김천학 · 오쿠노 미츠요시 · 석길암 교수.

현존 최고(最古)의 불교 문헌으로 알려진 <대승사론현의기>. 2006년 최연식 교수(목포대)와 요르그 플라센 교수(독일 함부르크대)가 백제 찬술을 주장하면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년 가량 앞선 저술로 주목받으며 삼국불교의 귀중한 자료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대승사론현의기>의 교감본 출간을 앞두고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저명한 일본학자가 종래의 백제 찬술설을 반박하며 신라 찬술설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2월 28일 금강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최연식 교수, 플라센 교수를 비롯해 간노 히로시 교수(일본 소카대), 오쿠노 미츠요시 교수(일본 고마자와대), 석길암 연구교수(금강대 HK연구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한 제 문제’를 발표한 이토오 다카토시 교수(일본 고마자와대)는 <대승사론현의기>를 1960년대부터 연구해 온 세계적인 권위자다.

이토오 교수는 권말의 식어(識語) ‘현경3년(顯慶3年)세차무오년(歲次戊午年, 658)십이월육일(十二月六日)흥륜사(興輪寺)학문승법안(學問僧法安)위대황급내전고경봉장야(爲大皇及內殿故敬奉章也)’를 근거로 “<대승사론현의기>는 신라에서 찬술됐다”고 주장했다.

이토오 다카토시 교수는 “최 교수 등이 학문승 법안을 일본에서 온 유학승으로 보고, 대황제를 일본 천황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당시 일본에서 천황을 대황제로 칭한 예도 없다”며 “흥륜사를 신라 사찰로 상정하고 신라 학문승인 법안이 입당해서 황제인 당 고종에게 책을 헌상했다고 해석하면 <대승사론현의기>는 신라의 저술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연식 교수는 백제 찬술설이 옳다는 반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이토오 교수 주장에도 일리는 있고, 흥륜사가 신라사찰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식어가 나오는 것은 이 책 밖에 없다는데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라에서 중국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면 황제에게 바친 책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 없었을리 없다. 또 일본에서 책 가져갈 때 이런 식어를 끝까지 남길 이유가 있었겠냐?”며 “대황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밖에 없겠지만 대황제 등이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연식 교수는 “원효, 의상이 백제 보덕 화상에게 열반학을 배웠듯이 백제의 저술이 신라로 전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신라 흥륜사에서 전해졌다고 해도 신라에서 저술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태승 교수(위덕대)는 “<대승사론현의기>에 승정 직함이 나온다. 승정 명칭을 사용하던 곳을 추정하면 찬술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연식 교수는 “중국 남조의 승정제가 백제와 일본으로 이어졌다. 다만 백제에 승정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 일본의 승정제 사용을 통해 백제의 승정제 도입을 유추할 뿐”이라며 “승정제로 찬술지를 정한다면 중국찬술도 될 수 있어서 승정 직함으로 백제 찬술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요르그 플라센 교수가 ‘법랑의 사상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대승사론현의기>의 의미에 대한 몇가지 고찰’을 통해 길장이 사용하는 난해한 논법 상당수가 길장과 <대승사론현의기>를 찬술한 혜균의 스승인 법랑에서 시작됐음을 보였다.

오쿠노 미츠요시 교수는 ‘<대승현론>에 관한 제문제’에서 길장의 <대승현론>이 혜균의 저작과 중복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쿠노 교수는 “도겐 선사의 <정법안장>을 발췌해 <수증>이라는 책을 냈다. 현재 조동종 내부에서는 <정법안장> 내용을 발췌해 발간된 <수증>이 편찬자 의도가 더해졌다는 이유로 <정법안장>과 사상적으로 같은가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라며 “다수의 작품이 엮어진 <대승현론>이 길장의 저술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6세기말 삼론학파의 지 · 섭론학파에 대한 인식’을 통해 “<대승현론>과 달리 <대승사론현의기>가 지론과 섭론을 동일시해 비판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소개했다.

석 연구교수는 “유식이라고는 해도 당시 지론과 섭론은 확연히 구분됐다”며 “<대승사론현의기>가 지론과 섭론을 동일시해 비판한 것은 혜원의 심식설을 인용한 혜균의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토오 교수 등 세계 석학들로부터 <대승사론현의기>가 신라와 백제 등 한국에서 찬술됐다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조동섭 기자

#<대승사론현의>는 고대 삼론학 문헌이다. 법랑(507~581)의 문하에서 길장(549~623)과 함께 수학했던 혜균승정(慧均僧正)에 의해 6세기경 찬술된 문헌으로 기록돼 있다. 백제 말기에 펴낸 현존 최고(最古)의 우리 문헌으로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고 필사본이 일본 교토대학 도서관 등에 보관돼 있다.

‘고려대장경’으로 돈황문서 규명

3월 20~21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강당서

세계적인 돈황학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려대장경>을 통한 돈황 문서 규명에 나선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 이하 연구소)는 3월 20~21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고려대장경을 통한 돈황사본의 재인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 ‘TK-IRS의 디지털 이미지 연구 지원 환경에 기반한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교연구시스템 구축 및 대조연구’를 바탕으로 사본에서 인쇄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한 · 중 · 일과 미국, 영국 등 돈황학 대가들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팡구앙창 교수(상하이사범대학), 후앙정 교수(난징사범대학)가, 일본에서는 다카다 도키오 교수(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오치아이 도시노리 교수(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고바야시 엔쇼 명예교수(하나조노대) 등이 참석한다. 영어권에서는 웬디 아다멕 교수(미국 콜럼비아대), 화이유첸 교수(미국 아리조나주대), 임레 갈람보스 박사(영국 대영도서관 국제돈황프로젝트팀) 등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이규갑 교수(연세대)를 비롯해 조은수 교수(서울대), 남권희 교수(경북대), 최종남 교수(중앙승가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오윤희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의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교연구시스템’ 시연도 있을 예정이다.

오윤희 소장은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고려대장경>이나 돈황사본과 같은 인문학 분야의 대규모 자원에 새로운 연구 환경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국제적인 디지털 연구지원 환경에 대한 모델의 실험과 함께 <고려대장경>과 돈황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923-7994

조동섭 기자

‘묵서지편’ 중수문서 판독 결과 수록

석가탑 수리과정 담은 보고서 발간

불국사 석가탑(국보 제21호) 해체 · 수리 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수리과정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불국사 석가탑 유물2-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이하 박물관)은 3월 2일 석가탑 유물보고서 <불국사 석가탑 유물 2-중수문서>를 발간했다. 박물관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함께 발간할 전 4권(1권-경전, 2권-중수문서, 3권-사리기와 공양품, 4권-분석과 보존처리)의 보고서 중 하나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1966년 석가탑 해체 · 수리과정에서 발견된 묵서지편(墨書紙片)의 중수문서를 2년 여에 걸쳐 판독한 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노명호 교수(서울대)의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연결 복원과 판독’, 이승재 교수(서울대)의 ‘묵서지편의 어학적 의의’, 박물관 천주현 연구원의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분리 과정과 연결 관계’ 등의 논문과 중수문서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크기 영인도 함께 게재했다. 중수문서는 석가탑이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후 고려초에 중수됐다는 사실과 고려시대 불국사 운영과 승려조직 등 고려 초 불교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물관 윤성용 학예관(유물관리부)은 “4권의 보고서 중 학계의 관심이 많은 중수문서를 먼저 발간한 만큼 나머지 보고서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며 “보고서는 문화 · 사회 · 불교 · 미술사 등의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고려대장경 엑스포 파급효과 크다

“고려대장경 천년 엑스포는 328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228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에 의뢰해 ‘2011년 대장경 천년 엑스포(가칭)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흑자경영이 가능하고 국내외적 문화이미지 구축 및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나타났다.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액에 의한 파급효과 344억원과 방문객 지출액에 의한 파급효과 2938억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입장료 수입(관람객 150여 만명 예상)도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사회 · 문화적으로는 고려대장경의 고유문화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고, 정책적으로도 국가문화경쟁력 확보 및 세계문화유산 가치 확산 등이 기대됐다.

하지만 엑스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개최규모의 독창성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있는 활용을 꾀하고, 행사 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대장경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도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진성 기자

어필 명필 등 고필 보물 지정 길 열려

문화재청 4월 18일까지 공모

고필(古筆) 작품 보물 지정의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18일까지 옛 글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해 해당 문화재 소장자 등을 일괄공모한다. 고필문화재는 그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연구 성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괄공모 대상은 어필(御筆, 조선왕조 왕(비)의 글씨)과 명필(名筆, 박팽년, 안평대군, 강희안, 서거정, 김구, 성수침, 이황, 김인후, 양사언, 황기로, 백광훈, 김현성, 한호 등의 글씨)이다. 간찰(簡札)류와 같이 순수 감상용이 아닌 일상적 용도로 쓰인 글씨(탁본, 현판, 각자 등)와 훼손 상태가 심해 자료적 가치를 상실한 글씨는 응모할 수 없다.

문화재청 박수희 학예연구사는 “서예류가 다른 문화재에 비해 현존 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모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서예류는 차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 및 (보물)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개인 · 단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된 옛 글씨는 서류 심사, 현지조사 대상 선정, 관계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검토 ·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042)481-4915 김진성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지공사 대용맹정진달마 천궁회천도법으로 남녀불임병을 퇴치 귀신포망을 넘어 육신병, 정신병,잡신병,불임병을 태양 진광진법으로 사람에 도리를 다하는 도통군자 육경신 대법회

수명과 생명의 근본은 천궁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는 죽음의 뿌리를 끊는데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귀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막힌 운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련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천지공사 주인공 되시고 건강과 생명을 찾아 만사형통하는 대용맹정진 수행법회에 도통하시고 죽지않는 법 전수 받으세요.

천지공사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전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기축년 윤달든해이므로 천용진인 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고 경신도법을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를 도통군자 후학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인자에게나 전하는 것이고 이득이나 취하는 자나 문중이나 도반을 배신하며 특히 스승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삼가할지어다.

● 천지공사 경신도통이란??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이고 치료 받아도 임신 안되고 신병으로 치료해도 남녀불임증으로 고통받는 전립선을 제도, 임신하여 가정도 구제하는 기도이며, 만병을 다스리고 귀신잡신도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공사진태양경신 기도 뿐인 것이다.

달마천궁 회천 경신도통이란 – 하늘땅에 가장 높은 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주문이며 종교가 이땅에 탄생 되기전 창조주께서 지구촌 인간들에게 가르쳤던 혈단법으로 도교,불교,천주교,기독교 등 차원 높은 도법으로 다스렸던 것이고 지구촌 병은 모두 귀신장난과 동물,생물,식물, 미물 등의 빙의로 죽고 병마와 잡신 영혼을 물리칠 수 있는 주문인 것이고 경신기도인 것이다. 이 기도는 남여노소,학력,종교를 초월 경신일에 초능력을 얻어 만가지를 제도하는 대도법 경신주문인 것이고, 이 기도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지구촌 온난화로 각종 질병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달마천궁회천경신기도 도법인 것이다.

동양철학특별강의 본 달마종단에서는 사주,성명,운명학에 뜻이 있는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후학들에게 뜻이 있으신 분과 본종단 입종을 원하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특별기도 ⇨ 금년 윤달든해 기축년은 조상의해이고 正月은 태양이고 2월은 달이며, 3월은 용이며, 일월성신의 달 남녀임신이 안되는 불임증과 딸만 있는 가정을 위하여 양 3월 15일 일요일부터 특별 49제 칠칠제 및 백일기도를 입제하오니 불임자 및 득남발원기도에 동참하시어 자손에 소원성취하시옵고 사람된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체고액과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재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016-239-3110

◆천하대도 천안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포망을 넘어 생명을 관리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도통군자 스승 되시어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세우는 도통군자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 들이 출현하는 수행도량 기도처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속 태양의 집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법으로 혜안을 열어 도통거부장자로 잘 사는 비법과 병 없이 수명장수 건강하게 사는 달마천궁회천도통은 천장비법에 감춰진 비밀장인 비법인 것이다. 천지공사 진인출현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 상담자 : 명진스님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9년 3월 15일(음, 2월 19일 일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9년 3월 16일(음, 2월 20일 월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십팔 세계불교 달마종 충 본산 태일합장

일주문



아미타불 1000일 기도서 법문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3월 22일 안동 봉정사에서 열리는 '아미타불 1000일기도' 중 500일 기념 초청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봉은사 초청법회서 법문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은 3월 22일 봉은사가 주최하는 '도심 포교 선도사찰 주지일요법회'에서 대중 포교에 대해 법문한다.



10 · 27 법난 피해자 접수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은 3월 16일~9월 17일 피해 당사자로부터 명예회복과 의료지원 신청을 받는다. (02)748-5543



원각사 '금강경' 강좌 개설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은 3월 12일~7월 16일 매주 목요일 두 차례 <금강경> 강좌를 개설한다. (031)913-7745



삼성출판박물관아카데미 강좌

삼성출판박물관아카데미 김종규 교장은 3월 11일~4월 1일 매주 수 오후 7~9시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종교 인문학 강좌를 연다. (02)394-6544



재가연대서 '솥단지 정치' 강연

최재천 前 의원(법무법인 한강)은 3월 3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리더스포럼에서 '솥단지 정치-소통의 정치'를 강연했다.



인문계열 강의 우수 교원 선정

동국대 불교학과 우제선 교수는 2월 25일 동국대 전체 교수회의에서 인문사회 계열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Best Teaching Professor) 상을 수상했다.



이애주와 함께 흥겹게 춤추기

서울대 체육학과 이애주 교수는 3월 17일부터 매주 화 오후 3시30분 정신과학문화원에서 '이애주와 함께 흥겹게 춤추기' 강좌를 연다. (02)538-7871

인사

동대 의료원 인사 단행

동국대학교 의료원(원장 이명묵)은 3월 3일 인사를 단행했다.

△기관장 인사/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심재철/ 의료부원장 겸 일산행정처장 김영길/ 경주행정처장 최진식/ 의료원 전략경영실장 채석래/ 경주병원장 이경섭 △일산병원/ 일산불교병원 진료부장 민응기/ 일산불교병원 교육연구부장 조헌 △경주병원/ 경주병원 진료부장 서정일/경주병원 교육연구부장 이동욱/ 경주병원 건강증진센터장 김성우

1면에서 계속

제13회 만해대상 부문별 수상자 공적

평화부문 시린 에바디 이란 변호사

이란 최초 여성판사 출신 인권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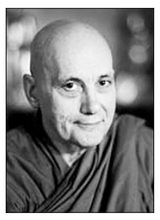


시린 에바디(62) 변호사는 이란의 첫 여성 판사로 1970년대 부패한 팔레비 왕정에 맞서 이슬람 혁명에 참여했다. 그러나 여성의 법관 임용을 금지한 호메이니식 극단주의에 밀려 판사 임용 5년만에 강제퇴직 당하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인권운동을 펴왔다.

2003년 이슬람권 최초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됐지만, 정작 그의 조국 이란에서는 여전히 반체제 요주의 인물이자 정권의 눈엣가시다. 지난해 12월 중순 그가 이끄는 테헤란 시내 '지뢰제거참여센터'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이를 폐쇄당하기도 했다. 외국 언론 접촉도 금지됐지만, 그는 이슬람 율법을 앞세운 신정(神政) 체제의 이란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억압받는 인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포교부문 빤냐와로(智秀) 스님

세계 최대 불교사이트 운영



빤냐와로(68) 스님은 호주 출신으로 태국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해오다 1992년 호주에서 '붓다넷'(www.budhanet.net)을 만들어 권위 있고 정평있는 불교 콘텐츠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붓다넷은 1991년 등록해 준비과정을 거쳐서 1992년 오픈해서 2009년 2월 현재, 1일 평균 단순방문객은 100만 명 이상이며, 필요에 의한 복사 프린트를 하는 전문 단골방문객은 1일 평균 15만 명을 기록한 세계 최대 최고 불교전문 인터넷 웹사이트다.

스님은 2005년부터 보리수삼림수도원(Bodhi Tree Forest Monastery)을 설립, 창건주지 · 수련원장을 맡아 상주하며 '붓다넷' '불교전자도서관' 웹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불법교육협회사 회장, 호주불교연맹 부회장, 세계불교도우의회 본부 부회장도 맡고 있다.

학술부문 김용직 학술원 회원

정통 시학 확립, 근대 詩史 지평 넓혀



김용직(76)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근대시의 역사적 정리와 미학적 체계화라는 일관된 흐름 속에 문학 작품을 역사성과 문학성의 관계 속에 규명함으로써 근대시사(詩史)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5년부터 서울대 인문대 교수로 봉직한 후 1997년 정년 퇴직한 그는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근대시의 역사적 정리와 그 미학적 체계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내세우면서 한국 근대시 연구에 하나의 정통적인 시학을 확립했다. 특히 시문학파나 1930년대 모더니즘운동 전반에 대해 정확한 자리를 매겨주었다.

문학부문 김종길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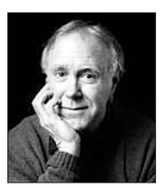
고전 바탕 한국 현대시 방향 제시



김종길(82) 고려대 명예교수는 시인이자 영문학자로 동양 고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서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깊은 문학사적 통찰력으로 현대시의 나갈 길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길 시인은 1958~1992년 고려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문과대학장을 역임했다. 영미시와 시론을 국내에 폭넓게 번역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시를 영역하여 외국에 소개해 '세계 속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1988년에는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학부문 로버트 하스 美 계관시인

한국시 · 시인 알리며 세계화 기여



로버트 하스(67)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고은 시인의 시 세계를 소개하는 평론을 발표하는 등 한국의 시와 시인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점을 인정받았다.

미국의 계관시인으로 연이어 추대된 그는 인간 언어의 생명력을 시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생태주의적 관점에 천착해 가는 다양한 시들을 발표해 왔다.

실천부문 이소선 유가협 고문

故 전태일 모친, '노동자의 어머니'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소선(79)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고문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태일 씨의 모친으로, 1980년대 여러 민주화 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민주화에 헌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구현을 위해 노력하다, 분신자결한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김성우 기자**

정경문학상 선정

수필가 맹난자씨



수필가 맹난자씨가 제2회 정경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격월간 <에세이스트>를 창간 한 수필가 정경 선생의 수필문학에 대한 공헌을 기려 제정된 이 상의 운영위원회는 "정교한 필치로 삶의 본질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깊이 있는 사유의 세계에 천착하여 격조 높은 수필문학을 구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3월 14일 서울광화문에 위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9층 강당에서 열린다. **임연태 기자**

6 · 15 남측대표 김상근 목사 조계종 총무원 예방



6 · 15 남측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는 3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6 · 15선언은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화해공동선언으로 지관 스님은 공동대표로 참가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서울전문강당 입학식 봉행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학장 청화)는 3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입학식을 봉행했다. 청화 스님은 "불교에서 자비의 실천이 중요하지만 경전연구를 통한 지식 섭렵이 바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보은 포교원 개원법회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3월 4일 보은읍에 보은 포교원을 개원했다. 지역문화포교를 위한 보은포교원 개원식에는 노현 스님을 비롯해 심광홍 보은군의회 의장, 박성수 보은군 부군수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혜철충청지사장**

은해사 청송군청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3월 2일 청송군청을 방문해 한동수 청송군수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은해사가 장학금을 기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1월 영천시에도 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김성우 기자**

파라미타 제3회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사)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2월 18~21일 제3회 파라미타 우수 지도자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단장 부명 스님 외 10명은 대만 중대선사,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자항사에서 해외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상언 기자**

금강불교대 졸업식 및 입학식 봉행



천태종 대구 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은 2월 28일 대성사(주지 도산)에서 제4회 졸업(수료)식 및 제6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교화에 귀감이 되는 실천 수행자가 돼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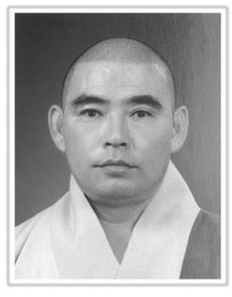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사람

청원산방은 바람도 햇살도 머물다 가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청원산방의 대문을 들어서면 '계수나무가 있는 달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닌 계수헌(桂樹軒) 현판과 함께 다양한 창호문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창호문을 열고 들어서면 실내 가득 춘양목이 지닌 은은한 솔향이 코끝에 와 닿는다. 이렇게 해서 청원산방에 들어서면 바깥 경계는 잊어버리게 된다.

청원산방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으로 전통창호에 대한 것을 담은 작은 박물관이다. 청원산방 주인 심용식 선생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으로 소목 중에서도 창호문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이러하지만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보다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창호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을 뿐이라"고 한다.

청원산방은 심용식 소목장이 사십여 년동안 전통창호를 제작하고 연구하며 쌓아 온 결과물을 한자리에 집약시켜 놓은 공간이기에 외국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창호문제작을 시연하고 있기에 우리 것을 배우려는 이들에게 귀중한 공간이다. 평생을 한옥으로 살아 온 그는 이렇게 세상으로 회향한 것이다.

충남 예산이 고향인 그는 어릴 때부터 수덕사를 드나들었는데, 그때 전통문살과 단청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것이 열일곱 살에 목수의 길을 걷게 된 명분이란다.

조찬형 선생으로부터 십년 동안 전통창호 제작법을 전수 받았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툡밥에 파묻혀 6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십여 년 동안 배고픔과 온갖 고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배워 만든 첫 작품을 우연인지 필연인지 수덕사에 걸게 되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목공예기술을 연마했으며, 최영한 선생과 신영훈 선생을 만나 장인의 자세와 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안목을 배웠다. 그리고 좋은 나무를 찾아서 전국 산야에 발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청원산방 한 켠에 마련된 그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300가지도 넘는 공구들이 걸려있다. 40년 세월동안 그의 손때가 묻은 공구들이다. 크고 작은 툡, 대패, 먹줄, 끌 등 처음 보는 공구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을 보기만 해도 그의 치열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심용식 선생은 오랜 세월 나무를 만지면서 축적한 감각을 손이 기억하고 있다고 믿기에 기계보다는 수작업을 고집한다. 그래서 그가 만든 문은 아름답고도 튼튼하다.

"집이 사람이라면 창호는 얼굴입니다. 창호를 얼마나 섬세하고 예쁘게 짜느냐에 따라 집의 돋보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 하나를 만드는 데는 집 크기, 바람의 세기, 빛의 양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인 심용식 선생을 두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사람'이라 칭한다. 특히 그가 제작한 문을 달아 본 스님들은 "장중한 맛을 풍기는 창과 의젓함을 발산하는 문이 건물과 잘 어울려 법당의 위용을 드러내면서도 드나드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불타 새로 지은 낙산사 원통보전의 창호부터 송광사, 보탑사 3층 목탑, 해인사 비로전, 창경궁 인정전과 문정전, 영국 대영박물관의 사랑방 등 수많은 사찰을 비롯하여 중요한 전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때면 으레 선생의 창호가 들어갔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우디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왔더니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더란다. 그때 인왕산 가까이 작업실을 열었는데, 부근 어느 사찰에서 공사를 하더란다. 짜다가 만 문짝이 있기에 아무도 몰래 들고 와서는 화려한 꽃문양을 조각하여 아무도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보시한 덕분인지 그 후 사찰의 공사를 많이 맡게 되었다.

불국사, 송광사를 비롯하여 큰 사찰공사를 맡아 할 때면 절에서 몇 년이고 숙식을 했다. 그래서 사찰의 공간이 익숙하다 못해 고향집처럼 느껴진단다. 부처님에 대한 예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은 아름답고도 튼튼한 문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라 생각하여 일념으로 만들었다. 말미 끝에 열반하신 정일 큰스님과 월산 큰스님이 그립다고 했다.

청원산방은 창호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는 공간인 만큼 온갖 다양한 창호들이 제일가는 볼거리다. 화려한 꽃문양으로 살대를 장식한 문을 꽃살문이라 하는데, 정자매화꽃살문과 소슬빗꽃살문 앞에 서면 만개한 꽃 앞에 선 것처럼 아름답다. 이름도 재미있는 '눈곱재기창'이 있는데, 겨울철 밖을 살필 경우 큰문이나 창을 열면 불편할 뿐 아니라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람 얼굴 정도크기의 창을 내어 효율성을 높인 문이다. 주방에는 만월(滿月)을 연상하게 하는 달아자살문을 달아놓았다. 청원산방에는 몸집이 큰 외국인을 위하여 반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심용식 선생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정신을 엿볼 수 있다.

"눈곱재기창, 머름창, 팔각창, 접이세살문, 귀갑살문, 불발기문 등 수백 가지 창호문양을 다 만들어봤습니다. 때론 전통에도 없는 문양을 창작해 보기도 합니다. 수백 년 후 후손들에게 다른 전통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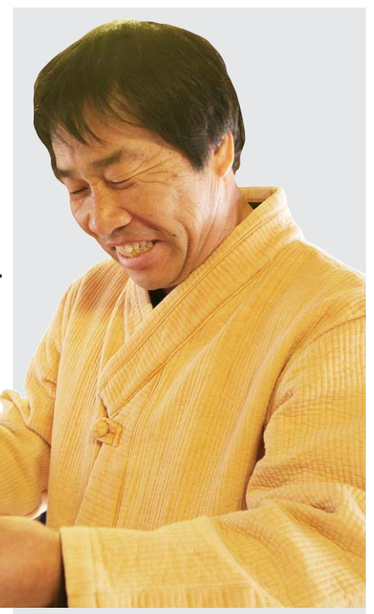
고유한 정신과 기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현대적 재구성에만 온 힘을 쏟는 것도 올바른 전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심용식 선생은 전통창호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숨 쉬는 현대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생은 그의 산방을 두고 '오래된 나무는 그 세월만큼의 햇빛과 비바람을 견뎌야합니다. 새들이 날아왔다 떠나가고 수만 개의 잎이 나고 지는 동안에도 나무는 그렇게 서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집으로 다시 태어날 꿈을 꾸는 집'이라 한다. 그리고 자신은 "나무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 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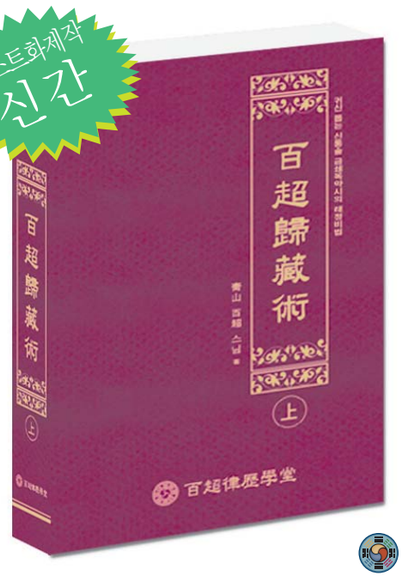
어릴때 수덕사 드나들며 문살·단청에 '매료'

문양 창작, 후손들에 다른 전통 남겨주고파





메스트하제작 신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불교 수도’ 부산엔 벌써 봉축물결 넘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부산’ 부산시민연등축제 발진

“성대하고 환희로운 연등축제와 봉축대법회가 우리 부산 200만 불자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자긍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정여 · 허남식, 이하 봉축위) 결성법회가 3월 4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봉행됐다. 이날 결성법회는 발원문, 봉행계획발표, 대회사, 봉행사,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부산’을 슬로건으로, 그동안 불자만의 축제였던 ‘부산연등축제’를 부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변화 ·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봉축위사무총장 자인 스님은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고장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해, 단순한 축제를 뛰어넘는 정통 불교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부산시에서 축제예산 3억원을 대폭 지원받아, 예년보다 풍성하고 수준 높은 불교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시민불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등행진에 일반인의 동참이 가능하며 우수작은 개인 및 단체로 나눠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2009 부산연등축제가 4월 17일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24~2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법회 모습.

이번 ‘부산시민연등축제’는 구덕종합운동장에서 봉축연합대법회 및 연꽃문화제, 한마음체육대회, 행진연등 및 복장 시상식, 불자연예인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부산역광장에는 봉축상징물 점등식과 회향공연이 진행된다. 연등축제의 백미 ‘연등행진’은 구덕종합운동장을 출발, 대청로를 경유해 부산역광장 특설무대에서 인기불자연예인과의 즐거운 축제를 끝으로 회향하게 된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부산, 나보다는 내 이웃을 먼저 위하는 따뜻한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고 설했다.

정여 스님과 공동 봉축위원장을 맡은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창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종교인만큼 이번 축제를 정성껏 준비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계승 · 발전시키자”고 축하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축위원장 정여 스님, 수석부대회장 화산 스님, 상임부대회장 정각 스님 및 설동근 공동위원장, 설동근 봉행위원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이뤄졌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2009 부산시민연등축제 주요행사 안내

일시	행사명	내용
4. 17(금) 오후 6시 30분 부산역 광장	봉축상징물 점등식	대형봉축장엄물, 오색연등 점등 축하공연
4. 24(금)~25(토) 양일간 광복로 일원	시민연등축제 봉축문화의 거리	불교공연, 문화 전시 홍보 체험 부스
4. 26(일) 구덕종합운동장	봉축연합대법회	연꽃문화제-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전통놀이 한마당 한마음체육대회-승가와 재가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어르신초청 무차만발공양 지역 어르신 5000여 명 초청 공양 대접, 실버 공연 행진연등 및 복장 시상식-연등축제 참가 개인 · 단체에 총 상금 1000만원 시상 부산시민연등축제 축하공연 봉축연합대법회(오후 5시) 연등행진구덕종합운동장(출발)→ 대청로 → 부산역광장(회향) 회향공연 ‘다함께 하나 되어’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개인택시법륜회

10년 맞은 ‘달리는 법당’ 신심 충전!

부산시민이라면 껌통과 모금함이 설치된 택시를 만날 때가 있다. 모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껌을 판다고 눈을 흘겼다면 지금 이 글에 주목하자. 그들이 바로 길 위의 달리는 법당, 개인택시를 모는 불자들의 모임 법륜회다.

비번일이 주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가뜩이나 넉넉찮은 수입에 1년 중 한달 가까이를 꼼짝없이 쉬게 된 것. 김덕천 회장은 “원래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매주 일 · 목요일에 쉬다가, 법이 바뀌면서 월요일까지 쉬게 되니 이틀 일하고 하루 꼴로 쉬게 됐다”며 “법륜회원 모두 개인택시사업자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법륜회.

부산개인택시법륜회는 1999년 2월 창립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창립 당시 27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불심이 돈독한 회원들이 모여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법륜회를 그저 개인택시 사업자 중 불자들의 단순한 신행모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뿐 아니라 봉사 · 복지사업을 행하기 위해 창립한 후 지난 10년간 법륜회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낮은 곳,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어두운 면을 환하게 밝혀왔다. 매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 마련 및 즐거운 놀이공원 하루나들이, 정기총회 때는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공양과 함께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또 지난해 겨울 사랑 연탄배달의 성과가 좋아 올해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마산 국립결핵병원 등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생필품을 후원하고 보살피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벌여왔다.

지난 10년 세월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2006년 즈음, 시 조례가 정한 개인택시 보니 이때 회원수가 확 줄어들어, 난관을 수습하고 신규회원을 영입해 간신히 극복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월 12일 홍법사에서 10주년 기념법회를 열 예정인 김덕천 회장은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낙동강이 범람해 수몰되고, 태풍이 휩쓸고 간 재해 지역에 우리 회원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으니 10년을 알차게 잘 지낸 것 같아 회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요즘 법륜회는 복지기금 마련이 예전같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워낙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택시 안에 비치된 모금함이 텅 비어, 매년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전달을 격년으로 바꿔야할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법륜회의 불심만큼은 더 깊고, 단단해졌다. “택시기사를 천직으로 삼아 가정과 사업, 그리고 신행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사명으로 삼고, 보시를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는 이들이야말로 세상 모든 길을 불국토로 만드는 ‘달리는 법당’의 제복을 차려 입은 멋쟁이 주지스님들이다. (051)503-1205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 성장 발판 되기를”

부산불교연합회 법당 개원

부산 200만 불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연합회) 법당이 2일 양정불교회관 4층에 문을 열었다.

연합회는 20여 년이 넘게 부산 불교계를 이끌어 ‘불교 수도’란 명성을 얻었지만, 한동안 법당을 갖추지 못해 각지의 법당을 빌려 법석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법당 개원을 통해 연합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원 기념법회는 발원문, 개원사, 경과보고, 축사, 법어, 정근 및 축원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이어졌다.

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연합회 법당 개원이 18개 종단의 화합과 모든 불자가 마음의 고향인 불성으로 돌아가, 부산불교가 더욱 성장 · 발전하는데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설동근 연합신도회장, 홍경표 연합신도회부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박지원 기자

불교영어 강좌

영광문화원, ‘무료’

영광문화예술원(사장 김윤한,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3월 14일~7월 11일 영어로 쉽게 배우는 ‘불교영어’ 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재는 <가장 행복한 공부> <The Most Joyful Study> <현대 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삼십송>이며, 이두석 국제포교사, 오창원 前 해동고교장, 옥철우 영어학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6개월간 진행되고, 강의비는 무료로 정해졌다. 접수는 영광도서 1층 예매처에서 하면 된다. 한편, 영어와 불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심화과정도 개설된다. (051)816-9500

박지원 기자

“어려운 친구 우리가 도와요”

용담어린이집 ‘사랑의 저금통’ 기탁

일곱살 천진불들의 고사리손이 지난 1년간 모은 저금통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불국토 용당어린이집(이사장 혜총) 유아 32명은 2월 17일 오후 공동 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직접 방문해 1년간 고사리손으로 저금한 ‘사랑의 저금통’ 128개를 기탁했다.

‘사랑의 저금통’은 전체 원생 128명이 ‘부모님 도와드리기’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 등의 착한 일을 하고 부모님께 받은 동전을 모은 것으로, 금액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 · 유아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인식시키고,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모이면 큰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진행됐다. 원생들이 매월 말 한 달간 모은 돈을 저금통에 직접 저금하고,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관한 시청각자료로 나눔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왔다.

용당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동생들도 착한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이에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어른도 아닌 어린이 여러분이 모은 사랑의 돈인 만큼,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데 잘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051)624-5132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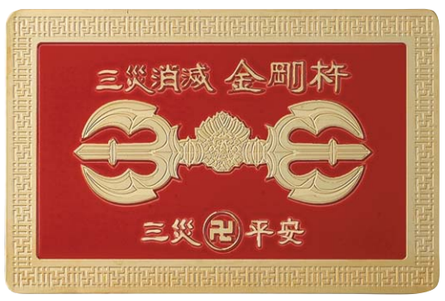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색글씨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당되는 분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자비도량 참법기도 익산 관음사 2년간

부처님 출가 · 열반 특별 정진 기간을 맞아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매월 3일씩 2년 동안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입재했다.

부처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진기간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로 삼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 소멸을 기원하는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봉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익산 관음사는 이를 계기로 2년후 회향을 목표로 매월 음력 8~10일 3일동안 자비도량참법으로 기도 정진할 예정이다.

법회를 주관한 덕림 스님은 "비교적 신심이 약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부임이후 법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 며 "이번 출가 · 열반절 특별정진을 계기로 익산 불교의 중심 전법도량으로 거듭날 것" 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 복원

전남 완주군 30억원 들여 2011년까지 복구 계획 밝혀

한국전쟁 때 소실됐던 천년고찰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이 복원된다.

전남 완주군(군수 임정엽)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까지 안심사 대웅보전을 복원한다고 3월 2일 발표했다.

복원되는 안심사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 172㎡의 중층 규모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2008년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해 올해 7억원 등 총 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올하반기 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완주군이 30억원 사업비를 들여 2011년까지 복원할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 터.

안심사 대웅보전은 서기 638년(신라 선덕여왕 7년) 자장 율사(慈藏律師)가 부처님 진신사리 10과와 치아사리 1과를 봉안해 창건했다. 수차례 중수과정을 거쳐 한국전쟁 직전까지 30여채 전각과 13개 부속 암자를 갖춘 대규모 사찰이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 국군이 철수하며 모든 전각과 암자를 소각해 다수의 전각 등이 소실됐다. 현재는 1991년 적광전, 산신각, 약수암이 복원돼 있다.

특히 만해 한용운 선사의 '명찰순례기' 에 대웅보전 2층에 658판의 한글 언해본 대장경이 보존돼 있다고 기록돼 있으나, 이것 또한 한국전쟁 당시 사라졌다.

문화재로는 보물 1434호 안심사 계단과 안심사 부도(전북도 유형문화재109호), 안심사 사적비(전북도 유형문화재 110호)등을 보유하고 있다.

안심사 주지 일연 스님은 "2003년 부임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안심사 대웅보전 복원을 기원했다" 며 "안심사는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인만큼 대웅보전 복원불사를 기점으로 불교문화의 계승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심향사 문수보현회 최일광 회장

"봉사와 나누는 삶으로 회향하고파"

한국이 경제위기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나주지역에서 5년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배달하는 심향사(주지 원광) 문수보현회 최일광(59 · 법명 선지행 · 사진) 회장을 만났다.



문수보현회는 심향사 봉사단 소속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주지부 심향사지회로 등록된 단체이다. 2005년부터 매주 월요일 나주시 금남동, 성북동, 금천 노안면 일대 20여 가구에 밑반찬 배달을 하며 지역민들의 신임도 두텁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배움을 실천으로 옮겨봐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타 종교인을 포함해 많은 신도들이 후원과 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도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수보현회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반찬의 종류 선정부터 재원을 모으는 일, 봉사자들의 역할과 화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 등 고민꺼리도 많았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주지 원광 스님. 최 회장을 비롯한 문수보현회 회원들은 "주지스님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 오늘의 문수보현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심향사는 신행단체별로 봉사활동을 진행중이다. 신도회 실무자들로 구성된 봉사위원회가 있어서 수급대상자 선정과 재정 등을 공동운영하는 것도 문수보현회만의 운영 노하우다.

또한 심향사에는 다른 봉사모임도 진행중이다. 나이 드신 신도위주인 무량공덕회는 사찰의 일들을 주로 맡고, 젊은 신도가 주축인 초록미타회는 주 1회 복지관 목욕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자 심향사는 반야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을 목표로 최근 장기요양기관인 반야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한데 이어 반야사회복지연구소 설립도 추진 중이다.

문수보현회와 심향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최일광 회장의 활동도 돋보였다. 봉사하는 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악바리였기 때문. 공직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2남1녀 가족 뒷바라지에도 힘이 부칠 듯한 그녀가 지금처럼 봉사에 뛰어들게 한데는 큰 계기가 있었다.

"백양사 서옹 큰스님 열반을 지켜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좌탈입망하신 큰스님을 친견하고, 다비식에 참여하면서 크나 큰 환희심을 갖게됐습니다."

서옹 스님의 다비 이후 최 회장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자 발원했다.

"젊을 때는 꿈을 실천하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봉사와 나누는 삶으로 회향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지역 동량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눔을 통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최일광 회장은 "포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봉사하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바르고 맑은 세상' 인터넷 불교신문 창간

전남 화순 지역 불교정보를 갈무리 할 인터넷 불교신문 '바르고 맑은 세상' (발행인 무진)이 창립됐다.

'바르고 맑은 세상' 은 3월 2일 전남 화순읍 신기리 소재 태고종 정토선원(주지 무진)에서 은 무봉 스님(학천사 회주), 지명 스님(학천사 주지), 지공 스님(도선사)과 김실 화순군의회 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헌식을 봉행했다.

지명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요, 자비와 광명이 빛을 발하는 자리" 라며 "인터넷 불교신문을 통해 부처의 바른 진리를 실천하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무진 스님은 발행사에서 "인터넷 신문은 불국정토를 지향하며, 사회의 목탁과 죽비의 역할을 다 할 것" 이라고 발행 의미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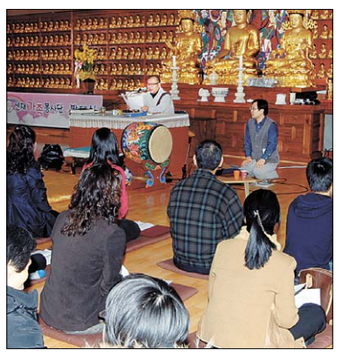
이날 봉헌된 '바르고 맑은 세상' 은 지명 스님이 회장, 무진 스님이 발행인, 탁자섭씨가 편집국장을 맡았다. 송선숙 기자와 최상률 기자가 각각 불교계와 화순지역의 소식을 전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사, 가족과 함께 해요"

광주 덕림사 선재가족봉사단 창립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불어 사는 삶이 강조되는 때다.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에서 개인 혹은 사회단체별로 행해지던 봉사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가족을 봉사활동 주체로 삼아 지역사회 돕기에 나선 것.



2월 28일 광주 덕림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선재가족봉사단 발대식 모습.

광주 덕림사는 2월 28일 대웅전에서 선재가족봉사단(단장 윤혜숙) 발대식을 갖고 42개 가족 100여 명 회원들이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무이 스님은 인사말에서 "봉사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며 "여러 봉사자의 신행 활동 경험 바탕으로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재가족봉사단은 매월 2회 놀토마다 집중적으로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에는 어머니 봉사단 활동을 병행해 회원 가족간 친목과 조직화합을 도모했다.

또 가족 간 화목을 위한 가족프로그램과 광주 남구 지역 지체장애자 시설 봉사와 노인 말동무, 도식락 배달, 목욕 봉사, 연탄배달 등과 같은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선재봉사단 장학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연다

김제 금산사서 3월 27~29일

전국 8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스님과 실무자,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가 3월 27~29일 2박3일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고 금산사가 주관하는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는 운영사찰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운영 실무자들의 사기진작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관계자들은 자긍심과 목표의식을 함양하고 템플스테이운영 비전과 체계 마련을 통해 개별 사찰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신나는 템플스테이' '안아주는 템플스테이'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문화축전의 주요행사로는 템플스테이 학술제를 통해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과 논문 매뉴얼 소개후 상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님과 운영실무자들이 프리허그(Free Hug), 동반 트레킹, 신나는 템플스테이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운영프로그램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각 사찰별 홍보부스도 마련하고 사진전과 동영상 상영, 전통사찰음식 체험, 예쁜 명함 컨테스트, 우수사찰과 실무자들의 시상식 등을 통해 개별 운영사찰의 주요프로그램을 시연하고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무차토크를 마련해 사전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상호토론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템플스테이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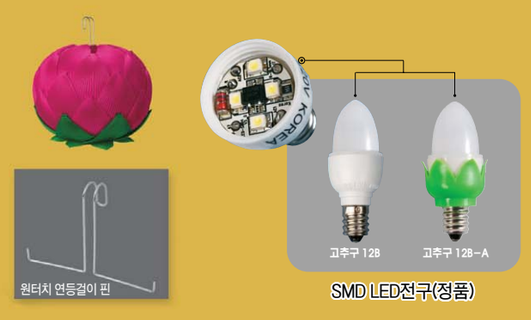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이번 문화축제는 운영사찰의 스님과 실무자들의 열린 평가를 통한 사기진작과 정보교류에 의의가 있다" 며 "템플스테이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안,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3)548-4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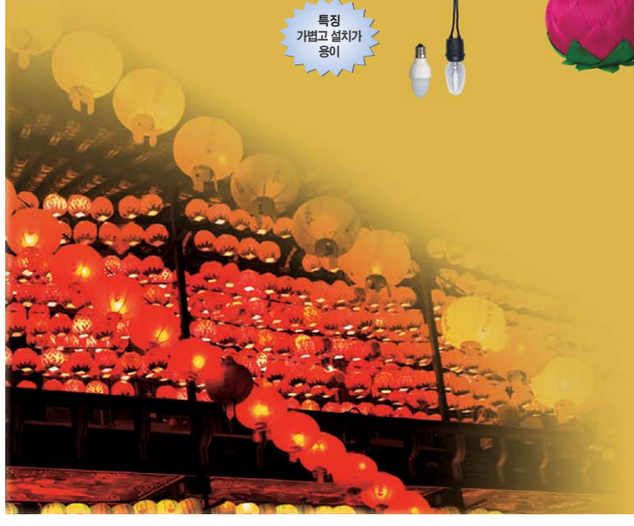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卍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죽산 스님 관음종 종정 취임



관음종 종정으로 재추대된 죽산 스님이 3월 6일 취임법회에서 법어하고 있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3월 6일 서울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죽산 스님 종정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각 종단 수장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 청와대 불자회 강윤구 회장(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회에서 관음종 제7세 종정으로 재취임한 죽산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음을 부질없이 과거법에 취하지 말고 미래세 또한 탐착하지 말지니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축사를 통해 "스스로가 마음을 밝히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정토"라며 "(죽산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관음종 전 종도가 관세음보살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관음종은 죽산 대종사님을 정점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해 사회를 위한 종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관음종 제7세 종정으로 재추대된 죽산 스님은 1958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범어사 자운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묘각사 홍선 스님에게 보살계를 각각 수계 받았다.

김진성 기자

"경제난 극복에 불교 나섰다"

종단협 국난극복 순회법회 봉행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IMF국제금융사태 당시 경제난 당시 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때, 불교계가 경제 위기 극복에 마음을 모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3월 18일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 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종단협이 IMF관리체제 당시인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 봉행한 '국난극복 순회법회' 이후 치르는 대규모 법회라는 점,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당시 경제적 상황과 비슷한 난국이라는 점 등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8년 당시 순회법회는 서울 대전 부산 목포 등 전국을 돌며 진행한 지속적인 정진으로 국민의 지 결집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평가됐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해 외침을 막고, 승 · 의병으로 나서 나라를 지켜온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 · 실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종단협은 이번 법회 역시 △경제난에 따른 사회적 고통해소 △불자 의지를 모아 경제회복 및 선진경제 발전 기원 △계층간 상생과 화합 분위기 조성 △부처님오신날 봉축 등을 취지로 봉행할 예정이다. 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7개 종단 총무(통리)원장은 물론 불교계 · 정부 주요인사, 외교사절, 사회각계 초청인사 등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초청됐다.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이번 법회에서는 세계적 금융난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부처님 법으로 극복하기 위한 자리"라며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발원해 정치 · 사회 ·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발원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1998년 열린 '국난극복 순회법회' 중 목포 보현정사에서 봉행된 '지역화합기원철야 3000배 법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진각종 사무 감사 실시

부산교구청으로 시작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3월 10~26일 2009년도 사무감사 · 지도를 실시한다.

통리원과 사감원(원장 효운)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3월 10일 부산교구청을 시작으로 유지재단과 통리원, 교육원(이상 25일)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7개 교구청별 심인당, 종립유치원 등이 사무지도를 받게 된다.

사감원장 효운 정사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중앙종무기관과 심인당, 유치원 등의 예산편성 · 집행의 효율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심인당 운영 및 포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지방 교화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단양노인전문요양원

'행복동' 개원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 · 천태종 총무원장)은 2월 25일 노인전문요양원 '행복동(원장 일화)'을 개원했다.

개원식에서 정산 스님은 "나눔이라는 자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주춧돌을 놓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직원은 물론 단양군민과 자원봉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 행복동의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단양읍 상진리에 위치한 단양노인전문요양원 행복동은 단양군이 10억9600만원을 투자해 2007년 12월 착공, 지난해 12월 완공됐으며 연면적 801.36㎡,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를 갖췄다.

행복동은 앞으로 3년간 천태종복지재단이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전문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 요양실, 자원봉사실, 집단치료실, 식당 등이 갖춰져 있다. 요양실은 4인용 8실과 2인용 1실 등 9실로 34명의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으며, 노인전문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14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임원진 취임

총무원장 화엄 스님 · 중앙종회의장 경원 스님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3월 5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총무원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봉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는 화엄 스님(사진 왼쪽)이 제8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이날 법회에서 봉해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 자신의 원을 크게 그려서 그것을 믿고 깨달음의 길로 정진해 가자"며 "종도의 협력이 없는 종단 발전은 불가능한 만큼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화엄 스님도 취임사를 통해 "일붕스님의 유지가 실현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총무원 운영 △장기 포교계획 수립 △일붕 기념관 건립 추진 △종도 화합의 기틀마련 △국제불교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발표했다.

한편,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18일 정오 서울 캄스호텔에서 제33차 임시 중앙종회를 갖고, 제7대 중앙종회의장 경원 스님(사진 오른쪽) 취임식을 진행한다. 제30차 중앙종회에서 중앙종회 의장에 선출된 경원 스님은 1974년 서광사에서 봉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02)998-8161

김진성 기자

태고종 약사암 인근 '황금소나무' 최초 발견

충남 보령시 삽시도

태고종 충남 보령 약사암(주지 진관) 근처에서 황금소나무가 최초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황금소나무는 높이 15m, 가지 넓이 10m, 둘레 25cm인 50~60년생으로 약사암 인근 삽시도 언덕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형순 박사(특용수과)는 "지금까지의 황금소나무는 가지 한 쪽의 변이를 통해 증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솔잎 모두가 황금색인 곰솔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후천성 및 토양연관 여부 등 유전형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소나무를 발견, 산림청에 문의한 진관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황금소나무의 존재를 알고, 자연적으로 발현된 신기한 형상에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었다"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황금소나무가 이번 계기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부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삽시도는 인근에 부처님 어머니 섬인 불모도(佛母島)가 있고 예전부터 불교가 성황했던 불국토"라며 "황금소나무는 태안 기름유출, 숭례문 화재 등 국가적 어려움이 생기기 보름 전 땀을 흘리며 나라를 걱정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진관 스님은 이번 산림과학원 조사를 계기로 보령시 측에 황금소나무 주변 정각과 단(壇) 등의 설치를 건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태고종 약사암 인근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황금소나무.

김진성 기자

진각대학원·교육원

각 과정 졸업·수료식

진각종 도제양성교육기관 진각대학원(학장 경정 · 교육원장)은 3월 13일 오전 11시 총인원 대회의실에서 '2008 진각대학 졸업식'을 봉행한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선운 정사(실각심인당 주교)를 포함한 정사 · 전수 · 처무 등 12명이 졸업한다.

졸업식 후에는 교화스승교육과정인 교육원 제6기 교학과정과 제9기 심학과정 수료식도 함께 봉행된다.

수료식에서는 효심 정사(행원심인당 주교) 등 7명이 심학과정, 승진혜 전수(선정심인당 교화) 등 11명이 교학과정 수료증을 각각 받는다.

한편, 진각대학은 2007년 8월 법규를 개정,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첫 입학생부터 진각대학원으로 신입생을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9996-7700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6

꽃 한 송이도 부처임을 알라

[원문]
불재영산막원구(佛在靈山莫遠求)
영산지재여심두(靈山只在汝心頭)
삼라만상시법신(森羅萬象是法身)
진불이반월삼성(眞佛而半月三星)
–관음사 천불전

[번역]
부처님은 영산에 계시니 멀리서 찾지 말게
영산은 오직 그대 마음속에 있네.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법신이며
진실한 부처님은 반달이요 세 별이라네.

[선해(禪解)]
봄은 산사(山寺)에 가장 먼저 온다. 어느 날 문득 아침 산문(山門)을 열면, 마당에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어느새 함박눈처럼 꽃망울이 터져 있다. 이렇듯 봄은 아무도 몰래 순식간에 온다. 절 향내와 섞여 상큼하게 빚어내는 봄 냄새는 산승(山僧)의 마음을 푸근하게 적시는 것 같다.

겨울은 겨울이여야 제 맛이 나는데 올 겨울은 몇 차례의 추위말고는 따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일상 때문인지 산문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이 모든 게 다 경제 한파(寒波) 때문이리라 싶다. 어쨌든 어렵고 힘든 시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주산 관음사는 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지은 절로 유서 깊은 사찰이다. 흥덕대왕으로부터 '청해진 대사'라는 직함을 제수 받고 돌아온 장보고는 옛날 완도 도치봉이라는 주산에 올라 산 아래를 굽어보았다. 굽이굽이 뻗어 있는 산 아래 펼쳐진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의 모습이 아득히 보였다. 한눈에 완도가 다 보였다. 장보고는 그 순간 이 자리가 명당 중의 명당임을 알고 절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그 자리를 관음사라 하였다.

그 때만해도 장보고는 중국에 법화원이라는 큰 규모의 절을 짓고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명당 중의 명당으로 불리는 관음사가 존재하게 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육신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육신을 관(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이를 잘 다스려야만 안식을 구할 수가 있다. 관음사의 천불전 주련은 인간의 '마음'에 그 주제를 두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늘, 절을 찾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산에 있다고 주련은 밝히고 있다. 그럼, 그 영산은 어디에 있는 걸까? 바로 그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영산에 계시니 멀리서 찾지 말라'하고 그 '영산은 오직 그대 마음속에 있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참으로 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선가(禪家)의 선구(禪句)는 짧은 문장 속에 광활한 우주의 법리(法理)를 안으로 품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그릇으로 따지면 쓰기에 따라 작은 종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저 바다와 같이 넓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 그릇이 커야 제대로 담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인간의 중심인데 어떤 마음의 그릇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道)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팔풍(八風)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있다. 팔풍이란 이(利)

부처는 영산에 있고 영산은 자기 마음속에 있어

지옥과 극락 만들어내는 '팔풍' 벗어나야 道 완성

쇠(衰) 훼(毁) 예(譽) 칭(稱) 기(譏) 고(苦) 락(樂)을 말한다. 이는 정세가 유리함이니 득의(得意)의 상태, 쇠는 실의(失意), 훼는 중상, 예는 명예, 칭은 칭찬, 기는 비난, 고는 괴로움, 락은 즐거움을 가리킨다. 곧 마음이 이 여덟 가지를 관(觀)하여 때로는 '부처'를 만들고 '악마'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처가 되는 길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만 부처를 멀리서만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부귀나 명예, 쾌락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보면 진정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을 위하는 이해심과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관음사의 주련은 우리에게 진정한 불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법신이며 진실한 부처님은 반달이요 세 별이다'라는 것이다.

길을 가다 만나는 꽃 한 송이, 바람 한 자락,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 해가 모두 부처라는 말이다. 이 모든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법신인데 우리는 어찌 이 모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사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이 아프면 함께 아프듯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괴롭고 아파하면 자신도 아파해야 한다. 반대로 중생이 즐거우면, 자신도 아픈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진정으로 내안(內岸)에 든 부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 마음이 지어내는 극락과 지옥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한 일본의 젊은 무사가 선사(禪師)를 찾아와 불경에 있는 아름다운 극락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선사는 당장 무사에게 "극락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자, 무사는 얼씨구 좋아 선사를 따라 나섰다. 그 순간 선사는 발길을 돌려 그 무사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너는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냐?"

갑자기 뺨을 얻어맞은 검객은 어안이 벙벙했다. 거기다가 바보 취급을 받았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당장 선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만약,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무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을 베겠다고 했다.

"골에 무사라고 자존심을 내 세우긴. 벨 테면 베어라."

무사는 정말 화가나 높이 칼을 들었다. 그 순간 벽력같은 목소리로 선사가 말했다.

"잠깐 지금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대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순간 무사는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 선사는 "이게 극락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와 악마, 극락과 지옥이 함께 들어 있다. 주산 관음사의 주련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6

마음의 눈 뜨면 일체가 부처

[원문]
心外旣無佛 何起佛見 遽相誑惑 不能了本心 被他無情物攝 無自由 若也不信 自誑無益.

마음 밖에는 부처가 있을 수 없는데 어찌하여 마음 바깥에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며, 서로 속여서 본심을 알지 못하고 저 무정물(無情物, 불상)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느냐?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해설]
달마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 받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수행의 바른 길을 간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차원에서는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으니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물질세계는 인연에 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일 뿐입니다. 모든 물질은 1초에 99억 번 진동하는 에너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육신 또한 어제와 오늘, 1초 전과 1초 후가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기에 부처님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셨어요. 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원나라 조맹부의 '홍의달마도'.

우리가 꿈 속에서 본 것이 진짜가 아니듯 현실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면 허망하듯이 지나온 시절을 생각해 보면 허망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 역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데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 때문에 자꾸 휘둘립니다. '꿀은 달다' 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실상(實相)이 물질의 세계라는 인식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생멸 그 자체인데 말이죠. 달마 스님께서 '마음 밖에 불성이 따로 없다'고 하신 말씀도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 밖에는 부처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마음 바깥에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일으키며 저 무정물(無情物)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주는 모양이 없는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차원에서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생명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부처'라 부르지요. 그 부처님을 우리가 선(禪)이라 부르기도 하고 불성(佛性)이니 진공(眞空)이니 진여(眞如)니 다양한 명사를 붙여놓았습니다만, 우주의 실상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법을 설하시고 한 마디도 설하지 않으셨다 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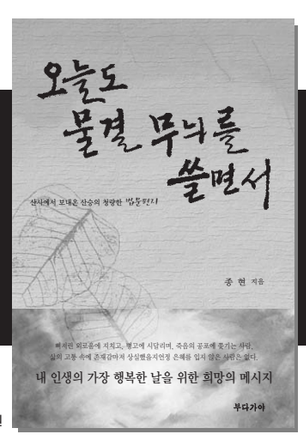
무정물 또한 사실은 무정물이 아닙니다. 불상은 오랫동안 나무를 건조시켜서 조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무가 말랐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무 자체도 생명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정물이라 언급한 것은 다만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실 생명 아닌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 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불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실상의 부처님을 생각하며 절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본래 그 자리가 부처님이예요. 본래 내 마음 자리에서 보면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부처이면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야부(般若部)에 보면 우주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주는 모양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으니까 '실상 자리'에 마음을 두고 행을 하는 것이 곧 부처가 되기 전 수행인 보살행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보살행은 우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복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행은 그 상대와 인과(因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반면, 우주를 상대로 한 행은 그 복이 영원히 '새지 않는 복(無漏福)'이 됩니다.

쌀 한 톨이라도 우주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태양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주어야 하고 일체가 우주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공양을 하실 때에도 우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량한 복이 되겠죠. 우리가 '불자다' '불교를 믿는다' 했을 때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주의 실상 진리를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신도분들이 불상을 마음에 두고 절을 한다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본래 마음 속에 있고 그 진리 차원에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化身佛)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 출현하셨던 분입니다. 우주 실상인 마음자리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법신불(法身佛)입니다. 부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를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삶의 고통 속에 존재감마저 상실했을지언정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벽 여명의 절 마당을 쓸며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는 산속의 스님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나날이 멀지 않음을 설파한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보낸다.
오늘도 물결 무늬를 쓸면서
종현 스님의 산사에서 보내온 청량한 법문 편지

종현 지음 / 255쪽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행복·편안함 누리고 사는 자리가 해탈”



대원 스님은 1957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 윤고암 스님을 은사로,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 1961년 하동산 스님에게 구족계 수지. 고봉, 석능, 혼해, 호경 스님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시민선원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전력.

대원 스님 (오등선원 조실)

계룡산 제석골에 위치한 학림사에 들어서면 선불장(選佛場)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학림사는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처인 오등선원과 재가자들을 위한 오등시민선원이 나란히 있는 ‘부처 뽑는 도량’인 것이다. 오등선원에 눈 밝은 이가 있어 불꽃 튀기는 진검승부를 겨루어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많은 수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눈 밝은이가 휘두르는 활인검에 살아나간 이가 몇이나 되는지 누가 알까 마는 그 칼날에 베이고 싶은 사람들은 태산처럼 여여부동한 대원 스님을 찾아온다.

사람들은 한 때 ‘남진제 북송담’(부산 해운정사의 진제 스님과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을 두고 선지식으로 존경하는 뜻에서 일컫는 말)을 말했다. 이제 대원 스님을 덧붙여서 ‘중앙에는 대원 스님이 있다’고 한다. 공부인으로서 진검승부 끝에 얻어낸 명성인 만큼 오등선원에는 진실로 깨닫겠다는 수좌들이 방부를 들인다. 대원 스님은 깨우침에 있어 조금의 숨김도 없이 자신의 공부를 낱낱이 드러내어 제접하기에 ‘남진제 중앙대원 북송담’이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 **천 가지 파도속에서 순풍으로 바꿀수 있고**
> **싸움속에서 어깨춤 출 수있어야 깨달음이 현실화**

대원 스님의 거처는 선승의 거처답게 소박하고 단출했다. 대원 스님의 방에는 용성 스님과 고암 스님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다. 용성 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이 고암 스님이고 고암 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이 대원 스님이다.

대원 스님은 남장사에서 행자 시절을 보냈다. 먹물 옷을 입은 스님이 지나가면 그저 좋아 줄레줄레 따라다니다 학업도 채 마치지 못하고 들어왔으니 주지 스님의 말씀 한 마디가 그대로 법인 줄 알았고, 강사 스님의 가르침 또한 귀히 여겨 한 글귀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 해야 되는 줄 알고 오년 동안 일주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공양주를 비롯하여 채공, 갱두까지 도맡아서 했다. 행자노릇을 할 때 500여 명 정도가 왔다가는 도망갔을 정도였으니, 그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지스님은 쌀 두말을 주면서 5일 동안 먹으라고 했지만 절 집안의 대중이 일정치 않아 들쑥날쑥하였기에 항상 쌀은 모자랐다. 그럴 때 마다 주지스님은 쌀을 어디다 감추었느냐면서 야단을 치고는 한겨울에도 밖으로 내몰았다. 이런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행자는 대근기”라 칭찬했다. 대원 스님은 공부가 높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다.

“여러 번 강원을 보내달라고 청했지만 일만 시키고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사미계를 받고는 걸망을 매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청암사로 갔어요. 청암사에서 고봉 스님으로부터 사집과 선요를 배웠는데, 그때 경안이 조금 열리데요.”

그 후 통도사에서 성능 스님과 호경 스님께 사교를, 대교는 혼해 스님께 배워서 내전을 두루 다 익혔다. 홀륭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잠을 아껴가며 공부했다.

1966년, 혼해 스님을 모시고 선어록과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용맹정진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혼해 스님께서, ‘전백장(前百丈)은 불락인과(不落因果)라 하여 여우 몸에 떨어졌고, 후백장(後百丈)은 불매인과(不昧因果)라 답하여 전백장이 여우 몸을 벗어나게 해주었는데, 불락인과라 답한 것이 어찌해서 여우 몸에 떨어졌는고?’ 묻는 겁니다. 사집(四集)에 있는 말 아니냐면서 어찌나 다그치시는지….”

이 물음에 망연자실하여 한 생각에 빠졌는데 사흘 밤과 낮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다시 혼해 스님의 “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느니라”는 말씀에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일게(一偈)를 지어 바쳤다.

크게 한 소리에 하늘땅이 무너지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네. /거연히 한걸음 나아가 머리를 돌이켜보니/ 산은 드러나고 시냇물은 곡 밖으로 흐름일세(大喝一聲倒乾坤 日月星宿失光明 遽然一步回頭看 露山溪水谷外流).

혼해 스님께서 게송을 보시고는 “대원수좌는 강사하지 말고 선방에 가서 열심히 참선수행토록 하라”고 일렀다. 그 길로 곧장 의정부 쌍룡사의 전강 스님을 찾아뵙고 참선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의 화두를 의심해 나아간다는 것은 생과 사에 대한 의심, 본래 부처에 대한 의심 등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을 하나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화두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면 모든 의심이 일시에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지음에는 이러한 의심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을 돌이켜 과연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지를 늘 반성해야 한다면서 화두참선에 대한 병폐를 짚어주었다.

“화두공안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아서 타파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공안을 사량으로 알려 하면 안되요. 화두를 깊이 관하는 것은 내 자성을 바로 보고 깨닫기 위함인데, 화두에 집착하는데 떨어져서 화두를 가지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화두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놈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어 놓으려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염불하기 위해서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 명호를 받아놓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끊임없이 붙들고 잊지 않고 염불하는 것과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 안하려 해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간절하게 물어야 해요. 의정삼매(疑情三昧)에 들어서 기연이 닿을 때에 일대사를 마치게 됩니다.”

대원 스님은 선방에 다닐 때도 조실 방에 가서 열심히 묻고 점검 받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상원사, 범어사, 송광사, 칠불암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 안거하면서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입승 및 선덕 소임을 맡아 경책을 받아가면서 30년 세월을 선수행으로 일관했다.

대원 스님은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던 당시를 회상했다. 고암 스님은 3대, 4대, 6대 세 번이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지냈던 분으로 자비보살로 통하고 있는 분이다.

1973년 고암 스님이 해인총림 방장으로 머물 때에 저녁 정진을 마치고 방장실을 찾으니 “지금도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가, 몇 년이나 참구하였는가?” 하고 공부의 진척을 물으셨다. ‘8년간 참구하였다’는 답을 듣고서는 “애석하다” 하시면서 한 말씀 일렀다.

“잣나무 꼭대기 위에서 손을 놓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어떤 것이 너의 본래면목이겠는가?”

대원 스님은 이 한마디에 홀연히 크게 깨우쳐 박장대소했다. 이에 고암 스님은 “무슨 기특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웃는가, 속히 일러라”하고 재촉했다. 삼배를 올리고서 “설사 천언만구(千言萬句)를 다 이른다 해도 이 속에 있어서 상신실명(喪身失命)합니다” 하고 문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앉았다. 다시 고암 스님이 마조원상 공안(公案)을 물었다. 주장자로 원상을 그리더니 “여기에 들어가도 30방(棒)이요, 나가도 30방이니 일러라”고 했다.

“깔고 앉았던 좌복을 머리에 이고서 ‘이것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아니야’하시며 주장자로 나를 치려고 하시는 찰나에 좌복을 스님 머리 위에 던지고 문밖으로 나가 버렸지.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 앉으니 고암 스님께서 ‘눈 푸른 납자는 속이기 어렵도다’하시고는 1700공안을 두루 물으시데요.”

1700공안에 대한 답까지 다 해마치고서 고암 스님께 오도송을 지어 올렸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3월16일(월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 비밀 보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0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안서 해방하는 것이 참선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반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확연히 의심 덩어리가 녹아 무너졌네./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忽聞栢頭手放語 廓然銷却疑團處 明月獨露淸風新 凜凜闊步毘盧頂).

이렇게 해서 대원 스님은 고암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담아 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일체 생명을 걸고 답하는 진검을 겨누는 그 자리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 스승의 날카로운 취모검은 제자의 마지막 번뇌의 주라발을 베어 버린다. 삼세제불의 향기와 비교해도 일호(一毫)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단다. '마음이 본래 부처'란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바로 알 수 있다면, 그 소리 하나 듣고 남전이나 원효, 육조 스님처럼 현실성 있게 살 수만 있다면 공부가 필요치 않단다.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돕는 것이 선(禪)'이라 했어요. 일체중생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는 알아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되니까 부득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놓으라 해도 안되니 '이 뭣고'하며 살펴보라는 것이지. 천 가지 파도 속에서도 전혀 간섭받지 않고 순풍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싸움하는 속에 가서도 어깨춤을 출 수 있어야 깨달음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중생들은 '상대방이 폭언을 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당장 따라 일어나 버리니 좌복 위에서 마음을 조련해야 하는 것이다.

납자에게는 선지식이 곁에 있어야지 혼자의 생각으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은 위험하단다. 서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서울을 간다고 할 때 도중에 대구 같은 큰 도시가 나오면 휘황찬란하니까 그곳에 주저앉을 수 있다. 서울의 궁전까지 가서 제8아뢰야식을 박살낸 경험이 있는 선지식이라면 자신 있게 천하의 도인이라 할지라도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대원 스님은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은 다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생사를 걸고 정진을 하다가 기연이 되어서 스승을 만나 가지고 깨달은 분도 있지만, 많은 선사들이 부처님 경이나 조사 스님 어록을 통해서 깨달았다"면서 선수행과 함께 경전이나 선어록을 공부해야 진척이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무구자(無垢子)도인의 <반야심경 주해>를 강설하고 책으로 펴내어서 선가에 일대 <반야심경> 열풍을 일으켰다. 오등선원에서는 십년도 훨씬 넘게 토요일마다 대원 스님의 강설이 있고 강설이 끝나면 밤새워 용맹정진을 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대주선사어록>과 <증도가>강설이 있었고 지금은 <금강경 오가해> 법문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다.

사람들은 때로는 '당장 눈앞에 감원조치를 당해 언제 해직될지 몰라 조마조마하면서 사는데 무슨 선을 하라는 것인가? 참선한다고 해서 감원조치를 안 당할 수가 있는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나? 왜 현실성 없는 참선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스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중생은 단지 살기 위해서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생명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툰다고 하지만, 짐승들도 고기 한 점을 두고 서로 다툴 줄 알고 이 육체를 살찌울 줄 압니다.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요? 모든 경계에 부딪쳤을 때 둥글둥글 원만하게 다 소화를 시키고 걸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성을 녹여 없애야 합니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자기 자신의 모든 불만을 반야지혜의 빛으로 녹여야 합니다. 본래 면목을 바로 깨달아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최상의 행복과 영원한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자리, 그 자리를 해탈이라 합니다."

대원 스님은 '불안해하지 않고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고향인 마하반야에 이르는 것이며,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참선'이라 했다.

줄 없는 거문고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주시는 대원 스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고 나오니 봄 햇살이 가득하다.

따뜻한 봄바람이 우주 법계에 불어와서 그 기운이 흰 꽃과 푸른 잎으로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러니 흰 매화꽃을 볼 때 꽃만 보지 말고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는 봄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글·사진=문윤정 (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선지식을 찾아서 대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4〉 현곡 김잉식 박사

김잉식(1900~1965) 박사님은 송광사 출신으로 화엄과 삼론학의 대가이다.

1900년 전남 승주 낙안에서 태어나 송과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하고 중앙중학을 졸업한 뒤 일본 고마자와(駒澤大學) 예과에 들어가 1928년에 졸업하였다. 1931년 경도 류고쿠대학(龍谷大學) 문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보성중학 · 혜화전문 교수가 되었으며, 1946년 동국대 교수로 있으면서 서무처장, 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기산 스님이 말씀하였다.

"해방 전 일본에 유학 간 사람이 많으나 현곡(김잉식), 뇌허(김동화) 처럼 정상 코스를 밟아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지."

필자가 박사님을 뵌 것은 송광사 법성료에서 부터이다. 1958년 오셔서 억지로 입으라 하였다. 사계(捨戒: 계를 버림)하고 입겠다 하여 미아리 영미암서 기산 스님을 증사(證師)로 모시고 사계하였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계 의식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 뒤에 입학한 비구니 송랑 스님은 승복을 벗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교칙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김잉석 박사님은 일찍이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으나 6 · 25 한국전쟁 때 피난 가다가 폭탄을 맞아 죽음으로서,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고 곡차로 사셨다. 밥 숟가락만 들면 두 아들과 죽은 마누라가 어른거리기 때문이었다. 피난길에 연명하기 위해 나무 밑에 앉혀 놓고 마을에 들어가 밥을 얻어가지고 오니 세 모자가 폭탄에 맞아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밥이라야 끼니때마다 두 숟갈 아니면 세 숟갈 정도 드시는데, 그것도 잘 넘어가지 않아 막걸리에다 말아서 잡수시곤 하였다.

1963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불대학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화엄학 개론'과 '삼론학'을 가르치셨는데, 연대 · 고대 · 서울대 같은 곳도 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중론 특강'을 나가셨다. 신설동 옆 탑골승방 뒤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심부름을 가면,

"공부 잘하느냐? 무엇을 전공하고 있느냐?"묻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니 삼매(三昧)를 통하여 공부의 과정을 증험해야 한다"하고, "불타와 불교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다.

"옛날 부처님은 토끼, 까마기로 태어나 희생봉사함으로써 그 모습이 해와 달 속을 박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된 것이야."

이것이 장차 <불교설화 대사전>을 쓰는데 큰 자료가 되어 '비유 · 인연 · 본생담'을 1000여 개 찾고 '영험설화'를 2000천 개가 넘게 찾아 부류별로 나누고, 그것을 반복되지 않게 1200가지만 축소시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박사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일반 대중을 위한 이런 포교서가 나오기 어려워을 것이다.

강의시간에는 언제나 담배 두 갑을 가지고 오셔서 한 갑은 학생들에게 주고 한 갑은 친히 피우시면서, "자네들이 미안하면 내가 나가지" 하고 교실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오셨다.

술과 담배로 20년 동안 살다보니 얼굴과 입술이 푸르등등 하게 되었는데, 한 손으로 코끝을 훔치면서,

화엄·삼론학의 대가, 타 대학원생 위해 '중론특강'도 해

<화엄학개론>을 쓰기 위해 송광사에 오셨는데, 거처가 알맞지 않아 나의 방을 드리고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시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동국대에 와서 보니 그분이 바로 불교대학 서무처장이었다.

필자가 처음 동국대에 들어갈 때는 승복을 입고 입학하였는데, 이것이 교칙에 문제가 되었다. 당시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 가운데는 한 사람도 승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각사 스님이 비구니인데도 승복을 벗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다녔다.

"중이 중 옷을 입지 아니하면 누가 중 옷을 입습니까?"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므로 중노릇을 하려면 산중에 들어가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는 청계천에서 사지즈봉 물들인 것을 사가지고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②

진여법계엔 중생도 부처도 없어

爾時上不見佛果可求 下不見衆生可度 是名從假入空觀 亦名二諦觀 亦名慧眼 亦名一切智

이때에 위로는 구할 만한 불과(佛果)가 보이지 않고 아래로는 제도할 만한 중생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이라고 한다. 또는 이제관(二諦觀) 혜안(慧眼) 일체지(一切智)라고도 한다.

대체로 사마타공관(空觀)을 수행하려면 마땅히 마음의 고요한 자체를 의지해서 해야만 한다. 고요한 자체는 망념으로 요동하지 않는 본원자성을 말한다. 이는 삼공여래장(三空如來藏)가운데 번뇌가 끝까지 공적한 공여래장에 속한다.

이를 두고 옛사람은 "신령한 광채 홀로 드러나 육근과 육진을 아득히 벗어났다"라고 말하였다.

이 경지에선 명료하게 보려 해도 끝내 한 물건도 없어 그 가운데는 인아 시비 피차의 차별적인 모습이라고는 끝내 없다.

우리의 목전에 나타난 분명한 일념은 차별상이 본래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한다면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망념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임시적인 명칭으로 일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찰할 대상경계로 삼는다.

또 이 무념으로서의 일념을 관찰하는 것이 관찰하는 주관적인 지혜가 되는데, 전념이 사라지고 후념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중간에 오롯한 일념이 관찰하는 주관적 지혜가 되어 우리의 본성은 본래 무념의 경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에 관찰할 대상으로서의 경계와 관찰할 주관으로서의 지혜가 한결같이 하나의 평등한 이치로 여여하게 되는데 그곳에 무슨 차별적인 망념이 일어나겠는가.

여기에선 부처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사구(四句)를 떠나고 백비(百非)마저 단절되어 언어의 길이 끊기고 분별심이 활동하는 처소마저 소멸한다[言語道斷 心行處滅].

따라서 이때엔 위로는 성취할 만한 불도가 보이지 않고 아래로는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마저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해서 취할 것도 없고 마군의 경계라고 해도 따로 버릴 것도 없다.

명료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진여법계엔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헛된 명칭이 단절되고 평등한 성품가운데는 자타의 차별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두고 옛날 큰 스님은 "평등한 진여법계엔 중생도 없고 부처까지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진제에선 현상계의 차별법이 끊어지고
속제에선 일체 만법이 차별적으로 건립

이 가운데선 한 티끌만큼도 번뇌에 오염되지 않아서 중생 모습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역시 따로 얻지 못하여 완전하게 모든 차별을 쓸어버린다.

이 문제는 능엄경에서 "하나가 부정되면 일체가 동시에 부정되어 십법계가 일시에 부정된다"라고 했던 경우와 같다.

그 자리는 일체 망념으로 분별하는 모습을 떠났다. 이를 두고 속제의 거짓으로부터 진제의 진공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종가입공관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속제 생사의 거짓으로부터 열반진공인 진제의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령 깨달음이 이 같은 진공의 이치에 이를 때엔 속제의 차별이 진제에서는 원래 차별이 없음을 명료하게 통달하게 된다.

진제 진공의 이치에서 속제의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한다면 마치 항하사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난 물거품과도 같고, 또 일체 세간의 범부와 출세간의 성인이 번갯불이 잠깐 스치듯 한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도 같은데, 여기에 무슨 피차와 인아와 시비를 담론할 것이 있겠는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세중생은 번뇌가 지중하여 지관을 수행하여 정혜를 성취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일이 매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 평생 동안 한 구절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이것이 바로 종가입공관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하여 한 마음도 혼란하지 않은 경지에 이르면 염불이 있는 곳으로부터 염불하는 마음마저 없는 경지에 이르고 망상이 일어난 곳에서부터 망상이 없는 데로 깨달아 들어가 염불하는 마음과 염불의 대상인 아미타부처님까지 둘 다 잊어버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경지를 생각이 텅 빈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종가입공관을 닦음이라고 하며 이제관이라고도 한다.

진제 쪽에서 관찰하면 현상계의 모든 차별법이 끊어지고, 속제의 편에서 관찰하면 일체만법이 차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건립된다. 수행자가 일체제법은 허망한 망상 분별의 인연으로 일어나 진실이 아닌 헛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이라고 관찰한다면 진공관(眞空觀)이 된다.

망상분별로 일어난 인연법은 실재가 아니어서 본래 없는 공이라고는 하지만 그 평등한 공에서 인연을 따라서 삼라만상의 차별이 건립되는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속제관(俗諦觀)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두고 경전에서는 "진제는 한결같은 성품이 본래 진실한 이치임을 드러낸다"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실제이지에 있어선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아 시와 비가 쌍으로 끊어지고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잊으며 만법 그 자체가 진여라고 가리키며 삼승을 회합하여 일불승으로 귀결시킨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진제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속제란 한결같은 진제성공의 성품이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 일을 말한다. 이는 '불사문중(佛事門中)에선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신하에겐 충성을 권하고, 자식에겐 효도를 권하고, 나라엔 올바른 정치를 권하고, 한 집안엔 화목을 권하고, 선업은 천당의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보이고, 악업은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속제라고 말하며 또는 혜안이라고도 하고 일체지라고도 한다.

범부의 육안은 견혹과 사혹에 가리어 보고 듣는 일체법 모두가 실재 있다고 여기지만 가령 진공의 이치를 체득한다면 일체법 모두가 차별상이 없다고 관찰한다. 그것은 혜안으로 차별법 모두는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진공의 이치임을 명료하게 알기 때문이다.

일체 내외법의 명칭을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일체지'라고 한다. 일체지와 이제관과 혜안이 모두 종가입공관의 다른 명칭일 뿐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외형적인 명칭만 다를 뿐 근본자체는 한결같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2) 가행위(加行位)①

가행위(加行位)는 대승순결택분(大乘順抉擇分)이라고 합니다. '결택(抉擇)'은 지혜의 의미인데, 그 이유는 앞서의 수행을 더욱 분발하여 올바른 정지(正知)를 수순함으로써 올바른 도를 선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량위보다 공력을 배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가행위'라고 합니다. 이 수행위에선 '이취습기'를 조복받고 제거하는데, 난(煖) · 정(頂) · 인(忍) · 세제일법(世第一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사선근(四善根)이라고도 합니다. 이중 '난' '정'은 분별 심사관(尋思觀)을, '인' '세제일법'은 심사관을 통해서 전입한 실지관(實智觀)을 의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심사'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①명심사관(名尋思觀)

모든 유정이나 사물들은 일정하게 부여된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임시적으로 시설하여 그 대상을 아무개라고 부를 뿐 이름은 사물의 본체와는 무관합니다. 비유하면 애초에 책상을 나무라고 불렀다면 책상을 오늘날도 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보살이 수행할 땐 임시적인 시설일 뿐 실체가 없는 명칭에 있어서 심사관찰을 함으로써 그 명칭은 본래 공성임을 알고 그에 따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②의심사관(義尋思觀)

'의'는 사(事)라고도 하는데, 이는 명칭을 떠난 실재적인 현실사물입니다. 가령 오온 · 십이처와 산하대지 · 사람 · 동물 · 초목 등이 그 안에 포괄됩니다. 이러한 사물들은 인연화합으로 일어났고 주관적 심식분별로 생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별심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살이 수행할 땐 허망한 인연변화로 나타난 목전의 사물에 대해 심사 관찰하여 외부의 허상을 실재하는 사물로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③자성심사관(自性尋思觀)

'자성'은 모든 사물의 자체성질, 또는 독립성을 말합니다. 모든 사물은 서로 차별된 개체성질을 따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법이 공성인 측면에선 절대보편의 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법성진공의 이치에선 허망분별의 허상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보살이 수행할 땐 제법의 자성에 대해 심사관찰을 하여 그것은 마치 허공처럼 실체가 없다고 관찰합니다.

④차별심사관(差別尋思觀)

명칭과 사물의 온갖 차별상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가령 명칭의 차별상은 음성이나 의미 등이며, 사물의 차별상은 대소 방원 고저 선악 등이 포함됩니다. 보살이 수행할 땐 이러한 모든 차별상에 대해 심사 관찰함으로써 제법자체도 실재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법을 의지해서 나타난 차별상은 더더구나 실재상이 없음을 분명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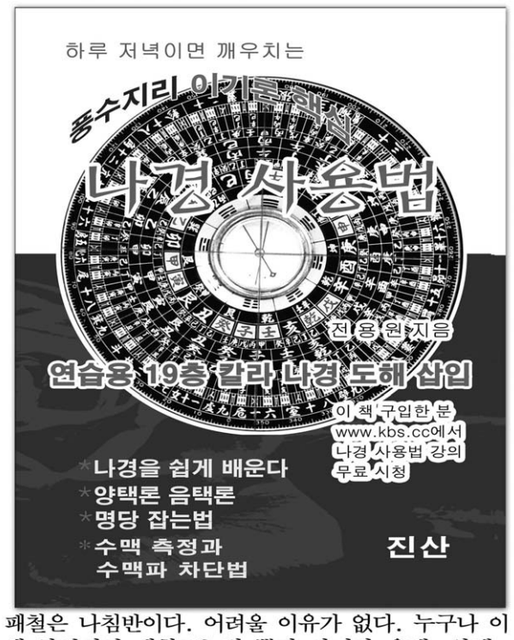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패철 보는 법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천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송,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육임학당 5기수강생 모집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으셔도 직접 오실수 없으셔서 공부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을 하고자 합니다. 직강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 수강료 : 수강완료까지 100만원(6개월)

육임CD판매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재승패여부, 취직, 사업사, 돈(구재어부)…
▶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
▶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례 150여개를 6년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판매가 : 150만원

육임운세 보기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들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공부하다 죽어라’ 백척간두로 몰아붙이는 법문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10〉

제3장 원당암 미소굴 1

대연 거사는 원당암 초입인 무생교(無生橋) 아래서 승용차를 멈추었다. 원당암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다. 무생교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은 그날 노스님을 보았을 때처럼 여전히 맑고 투명했다. 개울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한데 어우러져 흘렀다. 쉼 없이 흐르는 물은 무생교라는 이름처럼 나고 죽는 것을 초월해 있었다. 온몸으로 무심코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대연 거사는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노스님을 떠올렸다.

–출가하지 않더라도 장좌불와만 할 수 있다면 혜암 스님처럼 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네.

대연 거사는 바둑알을 복기하듯 노스님의 말을 헤아렸다. 장좌불와는 도인이 되는 조건이라는 말이었고, 장좌불와를 평생 동안 한 혜암 스님은 도인이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장좌불와를 방편 삼아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지킨 사람이 혜암 스님이라는 말이었고, 도인이란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지킨 사람이라는 뜻과 다를 바 없었다.

대연 거사는 돌멩이 한 개를 들어 던지며 난간에서 일어섰다. 돌멩이는 계곡으로 은밀하게 사라졌다. 자신도 평생 장좌불와할 것이라고 장담하려면 저 무심한 돌멩이와도 약속해야 했다. 이제 고작 5년이 지났을 뿐이었다. 계곡물에 떨어진 오후의 햇살이 그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그래도 대연 거사는 장좌불와를 해오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옹달샘처럼 고요하고 법당의 촛대처럼 밝아지곤 했다고 여겼다. 노스님이 일러준 대로 그날 미소굴로 올라가 혜암 스님 진영 앞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그런 충만감이 들기도 했다.

입춘이 지난 까닭에 원당암 가는 산길 가의 철쭉들은 벌써 파랗게 물이 오르고 있었다. 자주색으로 얼었던 이파리에 푸른 빛깔이 돌았다. 마른 이끼처럼 메말라 있던 소나무 잎들도 윤기가 도드라졌다. 원당암 허공을 나는 산새들의 날갯짓도 활기찼다. 한 스님이 뒷짐을 지고 지나가다가 대연 거사에게 화두와 같은 말을 던졌다.

“잎들이 파래지면 꽃보다 고와질 겁니다.”

스님은 대연 거사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원당(願堂) 너머에 자리한 염화실로 가버렸다. 비가 오려는 듯 갑자기 하늘이 낮아졌다. 대연 거사는 보광전으로 들어가 삼배를 하고 나와 왼편 계단을 이용해 미소굴로 올라갔다.

미소굴에 이르자, 수직으로 꽂혀 있는 거대한 주장자 하나가 보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장자일 터였다. 거기에는 ‘공부하다 죽어라’고 쓰여 있었다. 혜암 스님의 사자후였다. 주장자 옆에는 조그만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법문도 새겨져 있었다.

‘공부하다가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옳은 마음으로 옳은 일 하다 죽으면 안 죽어요.’

대연 거사는 숨이 턱 막혔다. 언제 보아도 자신을 순식간에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는 법문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모골이 송연했다. 날마다 순간순간 혼신의 힘을 다 쏟았는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스님의 사자후였다. 대연 거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닐 것인가.’

대연 거사는 혜암 스님이 머물렀던 흙벽돌로 지어진 미소굴 방문 앞으로 갔다. 그때는 건성으로 보았으나 비로소 방문 앞의 게시판 글이 마음으로 읽혔다. 게시판 글이라기보다는 스님이 환생하여 법문하는 것 같았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귀가 먹먹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묻는 말에 스님의 답변은 정곡을 찔렀다.

불법의 요체란 마음도 없는 무심(無心)이고, 수행의 첫째 방법은 밥을 적게 먹는 것이고, 최상의 포교란 신도들과 함께 좌선하는 것이고, 청량법음이란 인과를 법문하는 것이고, 선(禪)은 인류의 변화와 개혁에 열쇠가 될 것이며 무정중생까지도 불성이 있다는 개유불성(皆有佛性)의 진리는 인류의 비극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처방전이 되리라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었다.

대연 거사는 신발을 벗고 미소굴 안으로 들어갔다. 스님의 진영 사진이 미소굴 안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눈빛이 형형한 스님은 모지랑 붓처럼 생긴 하얀 불자(拂子)를 당당하게 세워들었고, 지그시 다문 입술은 천금 같은 침묵을 머금고 있었다.

삼배를 하고 나자, 스님의 살림살이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유물로써 주장자 하나가 세워져 있고, 단(壇)에는 안경, 회중시계, 돋보기가 군더더기를 용납지 않는 스님의 성정답게 하나씩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경상(經床)에는 스님께서 늘 지니시고 다녔던 〈금강경〉 한 권이 보였다.

스님의 입적 2주기 때, 그러니까 5년 전에도 보았던 유물들인데 왜 이제야 시선을 강렬하게 끄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연 거사는 경상의 〈금강경〉을 보고는 혼잣말로 소리쳤다.

“저 〈금강경〉이 출가 전 일본에서 서옹 스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바로 그 책일지도 모른다. 서옹 스님께서 출가 전의 혜암 스님에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의 뜻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뜻은 알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었다는 그 〈금강경〉 말이다.”

물론 그 〈금강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연 거사는 그렇게 짐작했다. 미소굴을 나서자마자 그의 흥분한 마음을 식혀주려는 듯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다. 미소굴의 기와를 적실 뿐 추녀 끝에서 낙숫물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입춘이 지났으니 봄비라고 해야 옳았다. 우산 없이 비를 맞아도 차갑지 않았다.

달마선원은 운봉교(雲峰橋) 너머에 있었고, 운봉교는 원당암의 전망대 같았다. 가깝게는 원당암 가람들이, 멀리는 화염처럼 솟구친 가야산 봉우리들과 해인사 전경이 한눈에 들었다. 왼편 허공의 가야산 정상은 이미 비구름에 가리었고, 해인사 당우들은 봄비를 기다렸다는 듯이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달마선원으로 가려다 한 보살의 제지를 받고는 멈추었다.

“거사님, 거기는 못 들어갑니데이. 재가신도님들 선방이라예.”

“산철에도 정진합니까.”

“그렇십니더. 달마선원은 혜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일년 내내 재가 신도님들이 참선하는 선방 아닙니꺼.”

“그렇군요.”

“거사님은 무슨 일로 왔십니꺼. 선방 방부 들이려고 합니꺼.”

“그냥 와 봤습니다.”

보살은 묻지도 않았는데 달마선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했다. 재가신도들도 하안거 동안거 결제를 하는데, 산철에도 60일씩 결제를 이어가는 것이 달마선원의 전통이며,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을 하고, 매년 음력 7월 1일과 12월 1부터는 1주일씩 철야용맹정진을 한다고 설명했다.

보살은 재가선방인 달마선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안거 때는 90여 명의 재가신도들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고, 1주일 철야용맹정진 때는 250여 명이 입실한다며 정진하는 연령층도 삼십대의 거사와 보살부터 머리카락이 허연 팔십대까지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여 얘기했다.

“방부 들이려면 종무소로 가보이소. 종무소는 보광전 옆 요사채입니데이. 단비가 오네예, 어서 가보이소.”

대연 거사는 달마선원에 입실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종무소로 갔다. 자신이 원당암에 온 용건을 해결하려면 종무소로 가서 알아봐야 했다. 대연 거사는 사무장이 가리키는 원주스님 방으로 들어갔다.

사무장은 원주스님이 출타했다고 알려주면서 스님의 손님으로 보았는지 종무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바로 원주스님의 방으로 안내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는 둥 마는 둥했다. 만년위패가 봉안된 원당의 기왓장을 적시며 금생과 내생을 넘나들듯 한두 방울씩 ‘원왕생 원왕생’ 하고 내렸다.

잠시 후 대연 거사는 벽에 시선을 멈추었다. 날카로운 보검으로 양각을 뜬 듯한 혜암 스님의 생사해탈(生死解脫)이라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다. 스님이 즐겨 썼던 선어(禪語)가 분명했다. 훗날 스님은 생사해탈을 소재 삼아 깨달은 경계를 게송으로 읊조리곤 했던 것이다.

깨달음이 환하니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로다
보이는 만물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들리는 소리는 모두 보살이로다
보고 듣는 이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 세상 사람들은 알겠는가.

출타했다는 원주스님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순박한 모습의 스님은 선한 인상을 주었고, 말투에는 충청도 사투리가 섞이곤 했다.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차를 즐기는 차인(茶人)은 아닙니다만 차를 대접하는 것이 무난하더라고요.”

“혜암 스님의 상좌 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지요. 현오라고 합니다.”

“생사해탈이라는 혜암 스님 글씨가 벽에 있어서 상좌 분이 아닌가 하고 짐작했습니다.”

차를 두어 잔 마시고 나서야 현오 스님이 대연 거사에게 용건을 물었다.

“거사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법명이 어떻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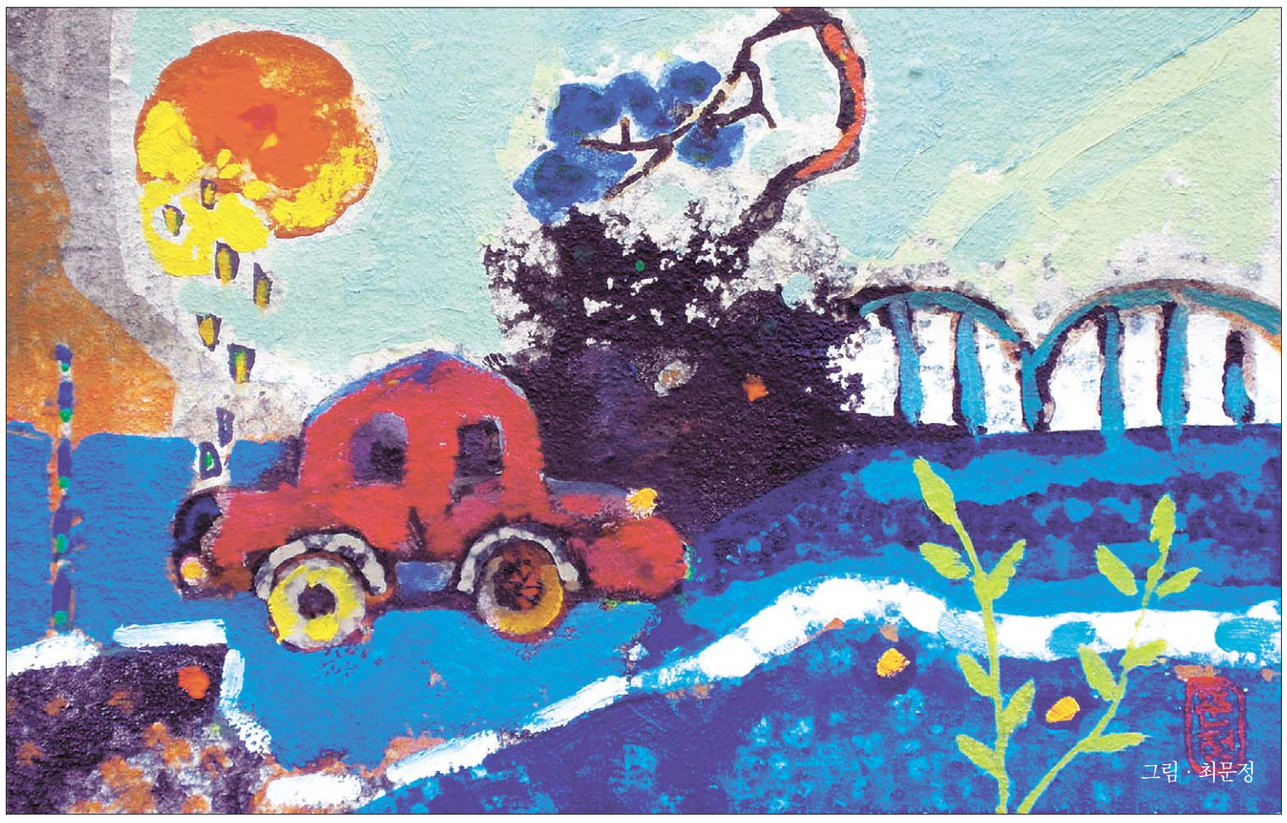
“모릅니다. 혜암 스님 2주기 때 저 아래 무생교에서 뵀던 분입니다. 단아한 키에 목소리가 우렁우렁 컸던 노스님입니다.”

그러나 현오 스님은 금시초문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원당암에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원스님이라면 원당암 주지이자 해인사 선방 유나인 원각(源覺) 스님을 말했다. 해인사처럼 큰절에서는 산내암자의 주지를 감원스님이라고 불렀다.

〈계속〉


그림 · 최문정

원당암 초입
무생교 아래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맑고 투명한
개울물 흘러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어우러져
무심코 흘러

‘장좌불와’ 방편으로 입적 때까지 수행
자신과의 약속 평생 지킨 도인 혜암 스님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나가 죽고 죽고 나는 것이 티끌 세상에 꿈이어서 원수나 친한 이나 한길로 황천으로 가네.
황천으로 가는 길은 어느곳으로 통하기에 해가 가고 해가 와도 가신 분 돌아오지 않네.
– 혜암대종사 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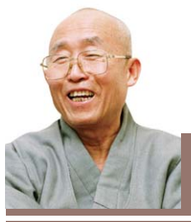
정진안내
▪ 철 야 용 맹 정 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5>

청중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법문'

합장 · 공경 · 간결한 여쭘으로 법문 시작
상수제자 비롯한 천룡 · 야차등도 '해당근기'

(720호 이어서) 다시 말해 소승(小乘) 방등(方等) 반야(般若) 등 세 가지 교법에 안주하여 새 세계로 옮겨가지 못하는 흠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이전에 설하셨던 세 가지 교법을 회통하여 하나인 일승(一乘)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곧 다섯째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로서 법화부(法華部)와 열반부(涅槃部)의 경전이 여기에 속하며, 마지막 8년 간에 걸쳐 설하셨다.

다음 궁자(窮子)의 오사비유(五事譬喩)와 오시교(五時教)를 대조(對照)한다 함은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에 이르시기를 어느 부요(富饒)로운 노장자(老長者)에게 오직 늦게 본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철들기 전의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다. 아무런 생활대책도 없는지라 속절없이 거지가 되어 잔뼈가 굵어간다. 한편 아들을 잃은 장자는 오직 아들 찾아 한평생을 바친다. 어디를 막론하고 아들이 갈만한 곳이면 가서 움막을 치고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날 문간채에 얼핏 나타나서 밥을 빌어가지고 돌아서는 아이를 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던가, 얼른 자기의 아들이란 것을 알아보고 사람을 풀어 데려온다. 그러나 이 궁자에게는 심각(深刻)한 상황(狀況)이었다. 타고난 팔자가 거지인데 이 국왕(國王)의 위세 같은 집 노인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얘가 내 아들이 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는 것이 더욱 불안했다. 이 영감이 나를 붙들어다 놓고 자기 아들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를 해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다 끝내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며 도망간다. 천태(天台)는 이 대목을 첫째 궁자(窮子)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비유[捨父逃逝喩]라고 불렀다. 그는 이 대목을 부처님의 첫 설법인 <화엄경>법문을 듣고 귀먹은 것 같을 뿐만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고 도망친 그날의 성문(聲聞)들을 비유한 것으로서 이를 첫째 궁자경악(窮子驚愕) 화엄시(華嚴時)라 했다.

아버지는 다시 집사(執事)로 하여금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궁자에게 접근하여 "야 이놈아, 어딜 가면 밥을 그냥 주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어디 계속 있더냐. 그런데 이 집은 일이 많아서 쇠똥만 처내는 데도 여럿이 든다. 그런데 요즘 한 놈이 빠졌으니, 너 같이 가서 일하자. 찬밥덩이는 실컷 얻어먹을 것이다." 하니. 궁자는 "좋소." 하고 따라와 열심히 쇠똥을 치우고 겨우 찬밥 세 끼니를 얻어먹는다. 천태(天台)는 이 대목을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신 <화엄경>의 말씀에 놀라 달아나서 겨우 착한 일 하나에 복 하나 식으로 인과법문을 설하신 아함부(阿含部)를 받드는 성문들을 비유한 것으로서 둘째 제분정가(除糞定價) 녹원시(鹿苑時)라 했다.

궁자(窮子)가 차츰 길이 들어 주인의 얼굴도 기억하고, 안채에 심부름으로도 출입하는 등, 집 안팎을 드나들기에 불편함이 없게 되니, 천태는 이를 방등부에 들어와서 가끔가끔 중생이 누구나 부처라는 요의 말씀을 들어도 과히 놀라지 않게 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서 셋째 출입무난(出入無難) 방등시(方等時)라 했다.

궁자는 장자의 의도대로 차츰 길이 잘 들어서 장자의 수양아들이 되어, 집안의 크고 작은 업무를 도맡아서 거뜬히 해내게 된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그를 다음 주인으로 믿고 따랐고 장자도 그 부분을 힘주어 보장해 준다. 그래서 그 집의 재산상황이나 거래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환하게 안다. 천태는 이를 일러 넷째 반야시(般若時)에 이르러 삼승중(三乘中) 최정상(最頂上)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아함 방등과 상대되는 우월개념(優越槪念)일뿐이요, 절대개념이 아니라는 뜻인 넷째 점지보물(漸知寶物) 반야시(般若時)라 했다. 다시 말해 보물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뿐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다. **봉선사 조실**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스님 지음|사유수 펴냄|1만3000원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뭘 그리 고민해?



보통 <법화경>이라 부르는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공(空)사상'을 설한 반야부 다음으로 설한 경전이다. 교상판석에서는 <열반경>과 함께 부처님 최후의 설법으로 본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다. 중요한 만큼 가볍지도 않다. 평생 <법화경>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고 하나의 종파를 형성해 이 경전을 받드는 경우도 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어린시절 <법화경>을 처음 배울 때는 그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황당하다고까지 생각 했었다"고 고백하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중생이 모두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 오직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접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신심이 우러나왔다"고 말했다.

그런 신심을 바탕으로 혜국 스님이 펼친 <법화경> 강의 내용을 책으로 묶었다.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은 혜국 스님이 선사의 안목으로 풀이한 <법화경>이다. 혜국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춘원 이광수가 <법화경>에 매료되어 한글로 번역하려다가 끝내 포기 했다는 일화가 실감났다"고 밝혔다. 그래도 강의는 매우 자상하다. 우리의 일상 언어로 깊고 깊은 가르침을 풀어내고 있다.

경제 한파로 봄 속의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처이며 부처인 당신을 공경한다"는 혜국 스님의 우렁찬 법문은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간다. 본문의 한 토막을 맛보자.

"나무는 겨울이 오면 낙엽을 다 떨어뜨려 추위를 이겨 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앙상해 보이지만 그렇게 이겨낸 덕분에 봄에 파란 싹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닥친 어려운 일이나 참기 힘든 일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유능한 선장이 되려면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친 바다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오뉴월 말불알 늘어지듯 축 늘어져 있다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어려움을 잘 이겨 내시고 그것을 화두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내 마음의 소 찾기 잘돼?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스님 지음|운주사 펴냄|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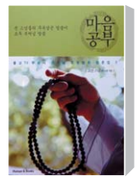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 마음의 소를 찾아 길들여 보자고 다짐하며 시작한 기축년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나갔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소 발자국을 보기나 했는가? 아니 고삐를 들고 떠나기나 한 것일까?

지금쯤 봄소식을 들으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다. 세상이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찼기에 더욱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보는데 가장 적절한 길잡이가 바로 '십우도'다.

하동 쌍계사 강사 월호 스님이 '십우도' 열장의 그림과 그림에 붙은 게송을 아주 자상하게 풀이했다.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는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소를 찾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소를 만날 수 없고 길들일 수도 없다. 불교는 행동의 종교다. '소가 어디쯤 있다더라'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소를 찾아야 하고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임연태 기자

'행복'으로 안내하는 법문



마음공부
고산스님 외 법문
휴먼 앤 북스 펴냄|1만 5000원

불법난(佛法難得)이라 했지만, 불법을 만났으되 그 자세한 가르침을 얻지 못하면 허당이다. 참선을 하건 경전을 공부하건 불법의 얕고 깊은 가르침을 두루 배우고 익혀 실천하는 것이 불자에게 살아 있는 행복이 될 것이다.

그 살아 있는 행복을 전해주는 현장이 바로 법회다. 큰스님들의 법문을 경청할 수 있는 행복공간을 많이 찾아다닐수록 가슴이 벅차게 된다. 미디어 시대, 불교텔레비전(btn)을 통해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불교텔레비전이 큰스님들의 법문 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다. 그 법문 시간에 들려주었던 큰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들이 염주처럼 꿰어져 두 번째 책이 되었다. <마음공부>에는 고산스님을 비롯해 효산, 월서, 정무, 도영, 무여 스님등 15분의 사자후가 실렸다.

책에서 큰스님들은 한결같이 자성을 밝히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정혜를 닦아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지금 우리 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생생한 법문들이다. **임연태 기자**

아이에게 '부처님 전생' 보여주라



지혜가 쑥쑥 자라는 명상동화20
다르마차리 나자라가 wlda
임희근 옮김|불광출판사 펴냄|1만5천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자타카)가 동화로 꾸며졌다. 그냥 옛날이야기 식의 동화가 아니다. 지혜를 길러주는 명상동화다. 저자는 영국 BBC 라디오에 출연하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국인들에게 크게 주목 받은 바 있다.

심리치료사인 영국 스님이 쓴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뭐가 다를까? 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갖는 교육적인 메시지들을 보다 감동적으로 꾸미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한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들려주라고 권한다. 신비하고 아름다우면서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이야기들을 부모의 육성을 통해 전달 받을 때 아이들 마음속 지혜의 나무는 더 싱싱하게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서두에 책을 읽어 줄 부모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안내하고 있다. 읽어주기 전에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 읽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 명상과 시각화를 적절하게 지도하는 방법 등. 이 책에서는 부드러운 조명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빠르지 않게 책을 읽어주라고 권한다. 책 읽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공부'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책의 뒷부분에서는 자비명상, 무지게 명상, 호흡명상 등 아이들이 하면 좋은 명상법도 소개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광명진언기도법	일타,김현준	효림
5	인과경	현담	선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8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9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10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Human & Books Tel : 02-6327-3535~7 | E-mail : hbooks@empal.com



지혜로 풀어 쓴 불교판 이솝 우화

불교TV 오심 스님의 명쾌하고 재미있는 백유경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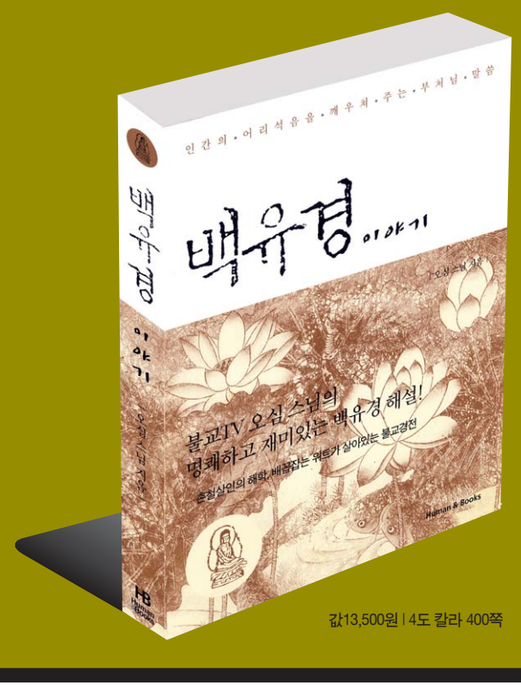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백유경의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이다.
책 속의 어리석은 주인공들은 내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엄숙하고 진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 반해
이 경전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해학과 유머로써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혹시 나는 주인공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행한 적은 없나?'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나도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아반성(自我反省)을 하게 한다.
해학과 배꼽 잡는 위트가 살아 있는 이 책을 통해 출가자나 세속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웃는 가운데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값13,500원 | 4도 칼라 400쪽

덕숭산에 핀 연꽃 향기 세계 덮네



경허 만공의 선풍과 법맥
불학연구소 편저 | 조계종출판사
1만2000원

'생사의 바다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물거품으로 살았던고, 홀연히 깨닫고 보니 내 몸은 불속의 연꽃인 것을!'

근대 선종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의 선시다. 미혹의 세계에서 우리는 망망한 바다에 떠도는 작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지만 깨닫고 보면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연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법문이다.

한말의 격동기속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간화선 중흥의 초석을 다진 경허 스님과 그의 제자 만공(滿空, 1871~1946) 스님. 경허 스님은 수선결사(修禪結社)를 조직, 영호남 일대에 간화선풍을 크게 드날렸으며, 만공 스님은 스승의 법을 이어 선학원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선종 발전의 토대를 일구었다. 그러나 두 선사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그 평가와 위상이 올바르게 확립되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런 가운데 경허-만공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을 조명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펴낸 <경허 만공의 선풍과 법맥>(조계종출판사)은 두 선사의 문손들이 정진하는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옹산)와 불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두 선사의 사상과 구도열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이 시대의 귀감으로 삼기위해 기획됐다. 지난 해 4월 25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해 반듯한 단행본으로 만들었다.

덕숭총림 수좌 설정 스님은 이 책에서 "경허 선사야말로 시비, 염정(染淨; 더러움과 깨끗함), 생사, 승속이 다 끊어진 절대 무위진인(無位眞人)으로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주인으로 서면 거기가 바로 깨달음의 세상이다)'의 그 당체였다"면서 "두 분 고승의 진면목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무애도인의 대기대용을 만나다



춘성
김광식 지음|새싹 펴냄|1만5000원

어느 시대에나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 세상이 정해 놓은 길을 가지 않음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인물들은 둘 중 하나다. 알맹이가 있거나 없거나. 근현대 스님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진 스님이 춘성 스님(1891~1977)이다. 물론 알맹이는 꽉 찼다. 저잣거리에서는 육두문자로 우둔환 중생을 교화하고 선방에서는 치열한 정진력으로 참수행자의 면모를 보여 주었던 스님이다.



그러나 '무애도인' 춘성 스님과 관련한 다양한 일화만 입에서 입으로 떠돌았지 일대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책은 없었다. 근현대불교사 연구자 김광식씨가 "지하의 우물 속에 묻혀 있었던 춘성을 지상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 번째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춘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묶었다. 춘성 스님과 가까이 지냈던 출 재가자들의 회고담과 항간에 떠도는 기담들까지 샅샅이 모았다.

춘성 스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육두문자와 기행으로 사람을 매우 놀라게 했다. 기독교 선교사가 버스에서 지나치게 요란하게 선교를 하자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나는 여태까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은 내 X밖에 본 적이 없다"며 호통 치던 스님이었다. 통행금지 시간이 되어 야간 순찰을 도는 순경이 "누구냐?"고 묻자 "중대장이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한 스님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용운 스님 앞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춘성 스님은 은사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선방에서는 지독한 정진으로 유명했다. 도봉산 망월사에서 오래 오래 머물며 선방을 복원했다. 소탈한 성품과 괄괄한 대기대용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 생을 바람처럼 살다간 스님이 춘성 스님이다.

책은 춘성 스님의 일대기와 내가 만난 춘성 스님, 일화로 만나는 춘성 등의 순서로 묶여졌다.

임연태 기자

책으로 다시 오신 큰스님…사자후 '쩌렁쩌렁'

성철 스님이 제시하는 '선사들의 암호' 풀어볼까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 2
성철 스님|장경각|2만원

'해인총림 수십 년 사자후는 극심난해(極深難解)한 공안(公案; 화두)이지만 정안종사(正眼宗師)의 투철한 법문을 인증(引證)하여 들려주시고자 함이니, 이는 고불고조(古佛古祖)의 참 선지(禪旨)를 보이고자 하는 노심초사의 결과임을 어찌 모르겠나이까? 그래도 노사께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본지풍광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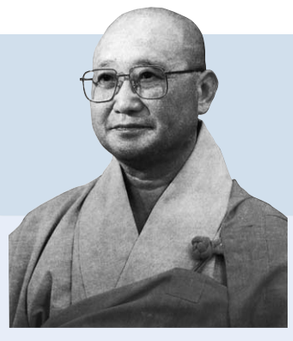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최근 나온 성철(性澈, 1912~1993) 스님의 선어록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 2>(장경각)에 쓴 헌사(獻辭) 가운데 한 부분이다. 여기서 법전 스님이 스승 성철 스님에게 던진 '어떤 것이 본지풍광입니까?'하는 질문은 또 하나의 화두가 되어 우리 폐부(肺腑)를 찌른다. 본지풍광(本地風光)이란 바로, 모든 구도자들이 목마르게 찾는 '알 수 없는 그것', '때묻지 않은 심성'이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냐 2>는 이러한 본지풍광, 즉 본래면목을 찾는 구도자들에게 던지는 우리 시대의 공안집이다. 성철 스님의 법문집 <본지풍광>이 27년 만에 해설판으로 새롭게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한문투의 <본지풍광>을 현대어로 풀어 썼을뿐만 아니라 그 책에 실리지 않고 녹음 상태로 남아 있던 법문을 상좌인 원택 스님(백련암 감원)이 녹취 정리해 읽기 쉽도록 정리했다. 성철 스님이 해인총림 초대 방장으로 취임한 1967년 이후 1982년까지 결제일이나 해제일에 행했던 법문을 바로 앞에서 듣는 느낌이다.

책에는 다양한 56칙의 전통 공안과 스님의 독자적인 안목을 곁들인 화두 해설을 통해 '본래 구원된 자기', '때묻지 않은 자기'를 바로 보라는 사자후가 일관되게 흐른다. 그 날의 법문에서 전달할 핵심내용인 '수시(垂示; 자비심으로 드러내 보임)', 스님이 제기한 선문의 화두인 '본칙(本則; 근본 공안)', 본칙에 대한 조사들의 법문인 '염(拈)', 본칙에 대한 옛 선사들의 게송인 '송(頌)', 본칙과 염과 송에 대한 스님의 간단한 평인 '착어(著語)' 등이 긴밀한 구조로 이어진다. 스님은 옛 공안을 제기하고 여기에 다시 겹겹의 화두를 내놓으면서 수좌들의 공부를 점검하고 있기에, '현대판 벽암록'이라고 불릴만하다.

김성우 기자

부처를 쏘는 '총알'은 '오직 모를 뿐'





부처를 쏴라
숭산스님 말씀|현각스님 엮음
양언서 옮김|김영사 펴냄
1만5000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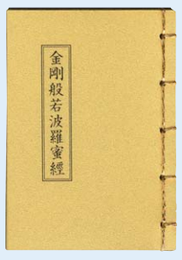
그런데 무엇으로 죽이지? 남전(南泉) 선사가 고양이를 베어 죽인 일화(南泉斬猫)는 고양이 한 마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스님들을 계도하는 극약처방으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된다. 남전 선사가 죽인 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다투는 수행자들의 집착하는 마음이었다는 것도 상식이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일은 쉽지 않다.

숭산 스님(1927~2004)은 우리에게 부처와 조사를 죽이는 칼을 남겨 주었다. '오직 모를 뿐'과 '오직 할 뿐' 쌍칼이다. 이미 깨우쳐 있는 존재, 이미 그대로 완벽한 부처인 자신을 모르고 온갖 것에 집착하여 중생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가르침이다. 밥 먹을 땐 밥 먹는 일에, 소변볼 땐 소변보는 일에만 몰두 하는 것이 화두의 삶이기 때문이다.

숭산 스님의 친절한 가르침의 육성이 미국인 제자 현각 스님에 의해 <부처를 쏴라>로 찾아 왔다. 현각 스님이 하버드에서 종교학을 공부 하다가 숭산 스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스승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기록한 생생한 사자후들이 담겼다. 1982년 숭산 스님이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자비심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글 전문도 소개돼 세간의 화제다.

임연태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조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천
식 식 사 용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0,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경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⑱ 인사동 사모곡4

향수로 평등해지는 추억의 칼제비

"언니, 인사동에 괜찮은 밥집 없수?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인공조미료도 팍팍 안치는 집 말야."

인사동의 터줏대감, 소금인형 찻집 주인언니와 만나 수다가 길어진 김에 맛집 두어 곳이나 알아두려고 자문을 구했다. 천연의 차와 음식, 민간요법의 달인이요, 10년째 전통찻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명색이 인사동 보존회의 감사이니만큼 언니가 추천하는 밥집은 확실하면서 남다를 것 같았다.



'할머니 칼국수집' 칼제비.

"근처에 할머니가 하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한번 가봐. 여기서 낙원동 길로 쭉 가면 샛길로 빠지는 데가 있거든. 거기 골목 오른쪽에 보면 길에다 들통을 내놓고 멸치다시를 막 끓이는 집이 있어. 지금은 바지락이니 닭칼국수니 칼국수도 종류가 많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 못 먹고 못살 때는 기껏해야 육류라는 것이 멸치왕건 아니냐. 그 집이 그 멸치국물을 우려 칼국수랑 수제비를 끓여 반반씩 떠주는데 그렇게 맛있어."

할머니 칼국수집으로 통하는 그곳의 특징은, 우선 진한 멸치국물에 칼국수와 수제비를 섞어 끓인 일명 '칼제비'가 명물이란다. 그리고 양이 모자라면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는 것. 가격은 얼마 전에 5백원이 올라 4천원이 됐는데, 딸려 나오는 찬은 달랑 배추김치 한 가지가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때면 손님들이 문 밖까지 줄을 이어 차례를 기다린다고 하니, 대체 칼제비에 무엇을 넣었기에 그토록 열광할까.

"우리 어렸을 때 못살던 시절엔 정부에서 밀가루를 배급받았거든. 그러면 집집마다 엄마들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도 해주고, 전도 해주고 그랬어. 그런데 자식들이 배는 고프고 밀가루도 아껴 먹어야 되니까 반죽을 얼마나 치대는지, 소화가 안 되게 하려고 아주 찰지도록 반죽을 하는 거야. 소화가 빨리되면 금세 또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쫄깃쫄깃해서 맛도 있고 소화는 더디 되고 그랬지. 할머니네가 바로 옛날에 먹던 그 맛을 내는 거야."

소금인형 언니의 추가해설에 따르면, 할머니 칼국수집의 또 다른 인기비결은 "칼제비 한 그릇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평등해진다"는 데에 있다.

"그 집은 재벌도 필요 없다. 우리 가게에 대기업 총수인 노인 한분이 오는데, 나랑 친해서 근처에 밥을 종종 먹으러 다니거든. 그 집도 언제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그 노인네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어.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다가 자리 나는 대로 끼어 앉아 후딱 먹고 가는 분위기니까, VIP석이 따로 있겠니 예약석이 있겠니. 4천원만 내면 노숙자도 필요 없고 그룹총수도 필요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옛날 향수에 젖어 먹는 집이야."

맛깔스러운 설명을 잔뜩 듣고 보니 밥 때가 한참 일렀는데도 배속이 출출해온다. 그 옛날 향수의 칼제비가 어떤 맛일는지 호기심에도 발동이 걸려, 언니가 일러준 대로 길을 찾아 나섰다. 낙원동 사거리근처, 작고 후미진 골목 한편에 들어서니 과연 서너 개의 커다란 들통에서 멸치왕건이 설설 끓고 있는 가게가 보인다. 밥 때가 일러 가게 안은 아직 한가로운 편이다. 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앉아 칼제비를 한 그릇 시킨 후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우리 업소의 김치는 국산배추와 고추로 매일 담급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한 그릇으로 여러 명이 나눠드시는 것은 사절입니다'라는 문구도 있다. 무한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니, 단골 중에 잔머리를 굴리는 손님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잠시 후 김가루가 솔솔 뿌려진 칼제비 한 그릇이 상위에 놓였다. 나라에서 밀가루를 배급받아 먹던 시절의 기억이 내게는 없지만, 뜨끈한 멸치국물에 호박과 감자가 어우러진 칼국수와 수제비의 쫄깃한 반죽이 일품이다. 체면치례도 잊고 부지런히 먹다 잠시 둘러보니, 바깥 테이블에는 어느새 나처럼 혼자 온 지긋한 나이의 아저씨들이 일렬횡대로 앉아 향수어린 국수 맛에 폭 빠졌다.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들은 주문한 칼제비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계돈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고, 저녁장사를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주방아줌마들의 입담이 왁자지껄하게 곁들여져 맛이 배가 된다. 가난한 시절에 배곯은 자식들의 배를 더디 꺼지게 하기위해 밀가루반죽을 치대고 치댔더라는 엄마의 애틋한 손맛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남산 만하게 불러놓은 배를 꺼지게 하려면 한참을 돌아다녀도 힘들성싶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㉕ 만성피로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맨날 피곤해 죽겠어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너무나도 다양화돼 있고 사회구조의 전문화, 복잡화로 인해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를 자주 대하게 된다. 만성피로(Chronic Fatigue)는 말 그대로 피로가 끊이질 않는 증상으로 무엇을 해도 피곤하고 나른해 매사에 의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만성피로의 원인

특별히 신체 ·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볼 때,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부정적인 정서로 시달리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며 아침에 피곤하고 근육인대가 약해져 관절통증으로 이어진다. 면역력 저하는 물론 심계항진과 흥분과 불안, 우울증, 충동적 행동, 집중력 저하, 전신쇠약, 현훈, 피곤, 무력, 쉽게 놀라고 소화불량 두통 요통 악몽 성기능 감퇴 체증증가 콜레스테롤 증가, 혈압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만성피로의 증세

-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들고 항상 나른함
- 무기력하고 짜증이 늘어남
-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상태가 자주 지속됨, 건망증도 생김
- 특별한 이유 없이 온 몸이 쑤시고 저림
-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차거나 변비 설사를 반복함
- 어깨나 목뒤가 결림
- 기분이 자주 언짢아진다
- 두통, 현기증
- 잦은 갈증과 목이 타는 증세
- 성욕이 감퇴됨
-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 매사 불평 불만이 늘어나며 비관적이 된다
- 가슴이 답답하고 한 숨을 자주 쉰다

#만성피로의 치료

첫째, 특히 만성피로에는 해독을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장의 비워둠과 휴식에 앞서 지난 연재를 참고 하면 될 것이다.

깨끗하게 대청소가 돼야지 치유의 근본이 이루어진다. 물론 기본적으로 술 담배 카페인 콜라 사이다 밀가루는 부신을 자극하는 요인이므로 금해야 한다. 부신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볍고 즐거운 운동과 식이요법이 최고로 효과적임은 물론이다.

둘째는 심리적 원인을 갖고 있는 환자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적 질환이 있을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건강염려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동반한 경우가 많고,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많다. 이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는 일단 본인의 울체된 감정을 풀어주고 환자 스스로 낫고자 하는 적극적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접근 유도가 필요하다. 나의 뇌는 말하는 데로 인지하고 들리는 데로 만들고자 하게 돼 있다. 긍정적 인용문을 세뇌가 되도록 읽고 새기고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기운이 자리 잡게 돼 치료나 개선 방법에 대해 그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과, 부신기능의 정상화, 심리적인 안정감, 육체적인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명상을 매일 밤 마다 5분씩, 10분씩 꾸준히 실행한다. (02)576 -7575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이야기 ⑳



늪속에 쓰러진 침향목서 최고 등급

밀림 속에 있는 침향나무가 고사할 때 만약 늪으로 쓰러지면, 오랜 세월 낙엽과 진흙 등으로 보호를 받으며 완벽한 숙성이 된 침향으로 탄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심마니들은 주로 죽은 늪 쪽을 파헤쳐 보고 험한 곳을 찾아보게 된다. 하지만 죽어 있는 늪이라고 믿었던 늪이 움직이면 그야말로 하나의 그물처럼 한 팀의 인원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독샘도 그러한 경우이다.

이렇듯 많은 심마니들이 침향과 가남을 찾아서 밀림을 헤매지만 우리가 원하는 침향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설사 침향을 찾았다 해도 이런저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돌아오지 못하는 심마니들도 매우 많다.

필자가 30년 경력의 베테랑 심마니인 반 캠(Le Van Cam)을 통해 들은 이야기이다. "누구나 밀림으로 떠날 때는 침향 구하기를 소원하고 떠나지만 그 침향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라리아, 독무, 독충, 맹수들 등…나는 수없이 많은 내 동료의 죽음을 봐야만 했다"라고 회상 한다.

침향이나 가남을 찾는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캐낸 침향이나 가남이 얼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런 경지까지 가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수년 동안 안전하고 신병이 보장될 수 있는 거래처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침향과 가남을 얻지 못한 심마니의 생활은 정말로 비참 그 자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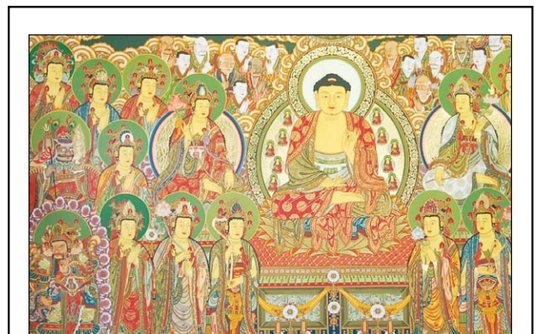
이렇게 몇 달 동안을 밀림 속에서 침향과 가남을 찾아다니다 좋은 침향과 가남을 구하게 되면 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어쩌다가 1㎏이 넘는 대형재를 하는 팀도 있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팀들이 태반 이라고 한다. 한해 베트남에서 총 생산되는 최고등급 침향과 가남은 10여 년 전만 해도 2~30㎏를 넘었으나 근자에는 고작 10㎏를 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구해지는 높은 등급의 침향과 가남향은 일반 시중에는 나올 시간도 없이 바로 대기 중이던 구매자에게 연결돼 팔리게 된다. 실제 베트남의 침향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천억원대의 침향은 거의가 일반 재배된 침향이거나 침향의 아종 또는 가품이 대부분이다.

침향과 가남은 그 맛을 보면 신맛과 매운맛, 단맛과 쓴 맛이 공존한다. 어찌 보면 달고 어찌 보면 시고, 맵고, 쓰며 가남을 씹었을 때는 가남의 부드러운 나무에 의해 껌을 씹는 것처럼 부드럽다. 좋은 등급의 가남은 부드러우며 향이 강하고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단단하며 향이 약하다. 베트남 심마니들이 가남의 품질을 확인할 때는 가남을 바나나 껍질에 싸서 직사광선에 하루 정도 노출을 시킨 후 밤에 그 바나나 껍질을 열어서 가남기름이 밖으로 많이 배출돼 나오면 상품으로 치고 적게 나오면 하품으로 친다. 반면에 침향은 수지가 가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냄새는 가남에 비해서 옅으며 나무는 암갈색을 띤다. 침향의 맛은 약간 쓴맛이 나며 가남에 비해서 물에 뜨는 것들이 많다. (02)3663-6777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출가(여女)수행자 구함
일년 공부 후 사찰을 책임 운영 할 수 있는 성실한 여(女)출가를 원하는 수행자 구함
▷부산근교
010-2599-602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 효 -
010-4007-0178

동양 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 만성피로 해결
주문 전화 080-365-3654
http://gk24.co.kr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개인지도
초급에서 최상급까지 가능
천안, 대전까지 가능
다곡, 유재숙(백두선생)
011-685-6566
02)6217-9171
이기론. 문점. 목적점
「사주박사」 인터넷 쳐보세요!

퇴마 심령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 등
• 불안공포, 악몽, 위장병, 우환, 만성질환, 불임여성
•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 나쁜기운을 빼면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보살선방
•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글로벌 작명 대사전 IIIII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286성씨 별로 모든조건을 다 갖추어 지어진 좋은 이름을 당사자 팔자와 접목시켜 기록만하면 작명작업끝. (작명소用)
참좋은 이름나라 운동본부 편저
송금후전화주세요, 가격:150000원
국민은행 038701-04-039079(설현우)
주문전화 02)928-8123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도량운영을 믿고 맡겨주실 귀한 인연기다립니다
佛法道場으로 반듯하게 세워 수행하길 원합니다
010-2446-2626

50대 중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 노전자리 원합니다
010-8537-0108

조용한 산속암자에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이나 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미타불,관음,지장 소불,신장,산신, 용왕탱화,법당종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010-4645-3076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건당 상좌될 인연있는 조계종비구니. 법랍 20년 이상이된 50대 건강한 스님
(서울 의정부 경계. 원도봉산)
010-3337-9518

소원성취를 들어주는 청정한 나반도량에서 수행하실 비구니스님들 모십니다
011-9790-1779
055)835-9450

전국 어디든 절이나 절지을 터 싸게 보시하실분 연락주세요
010-7188-7723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보시금 1백만원)
02)938-7957

비구니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북산산성
011-9350-3216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60대 초반)
▷ 경남 진해시
055)545-7116
011-577-4705

기도중에 큰신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서울이나 근교의 도심에서 불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절이나 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신 스님, 보살님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7462-1513

포교당 운영 및 스님 되기를 원하시는분
수행하시며 공부하실분
철학에 관심있으신분
불보살님의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개원 3개월째 50대 초반 비구승)
▷ 부산 범일동 선암사
017-541-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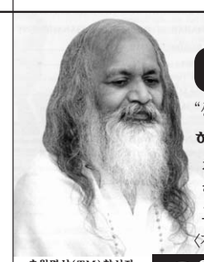
부천 도심 환속절 별채에서 기도와 전원생활하며 사실 부부 모십니다
011-9707-3490

충북 청원군 산기슭 토굴 암자에서 적은 돈으로 내집처럼 함께 수행정진 하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 연락 바랍니다
010-8419-8004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55-65세)
▷ 보시금은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기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011-9317-9181

여종무원 구합니다
(서울 관문사)
02)3460-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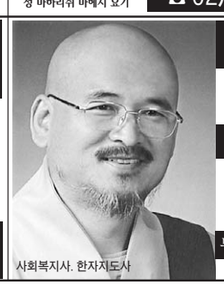


초 월 명 상 (TM)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생각을 초월하라(바라 아제)그것이 깨달음이다" - 반야심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학업성적, 집중력 증가 / 불안,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당뇨, 비만,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평생을 함께 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오나무, 생수, 천연굴법당, 부담없는 경비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수정산 수정사 효봉원 *
문의전화 : 031)333-5014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천도 기도 떡 보경 완치
황토사는 원인모를 통증 · 질병 · 변비 · 아토피 · 비만 등 치료중
경북 안동시 지란면 묵계 2리
문의전화 011-9585-0383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2/16(월) 18:30 [개강 강사 : 이선종 선생]
● 2/19(목) 18:30 개강 [강사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간역학교육원 1688-1137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秘 法 무 료 강 의
귀의 삼보하옵고!비구 비구니들아 광고보고 찾아가보면 별것아니다. 본 강의 들으시고 홀륭한 선지식 되소서!
1. 전생요법, 빙의치유법, 최면학, 확실한 천도재식 | 2. 귀신병에 침놓는곳, 건강따주기, 관상학 등 | 3. 통술학 (신비그자체다) 심식법, 약손법 등
*** 비구, 비구니스님들 꼭 이강의를 들어보세요 ***
• 장 소 : 마산 무약산하 법향사 內 /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10시~17시까지
전화 : 055)221-3358 / 010-9027-3117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와「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효사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09 신간) /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09 보정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좌정 · 휴대용) 등 14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위 각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총서「효사육임강론」上 · 下(09 7판본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부록 · 부연CD · 1800쪽(분할)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 60갑자 각 순별6권 •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 A4 좌정용 •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위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과 「완결판」으로 재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서울 02)833-8683 지역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 051)908-8683 지역 담당 진민경
www.taotemple.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가로 7cm 70.000원
규격 가로 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옥산면 구성리 부근
● 국도접, 법당15평, 요사채(목재 방5개) 황토방1채
창고1(10평), 대지 약 220평. 마당에 잔듸
● 가액 : 5,000만원

010-9911-3425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위치 : 강릉	● 위치 : 양산
● 법당 : 20평	● 법당 : 20평	● 법당 : 10평
● 요사 : 100평	● 요사 : 50평	● 요사 : 20평
● 부지 : 700평	● 부지 : 150평 외 사용 250평(시)	● 부지 : 840평
● 전세 : 20억	● 가액 : 9500만원	● 가액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낙동강 전망 최고,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 바위산) 계곡접
● 약 30억 불사 ● 가액:12억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뒷편 산
● 텃밭 300평, 뉴타운 개발지역
● 양도가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600평(종교용지)
● 법당 : 300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60평(목조,황토)
● 기타 : 산신각5평, 석탑(15자), 연못 등
● 가액 : 2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 위치 : 경북 포항시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45평
● 가액 : 1억 3천만원
● 특징 : 주지스님 개인사정으로 급히 양도코져함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28-0455 / 대구 010-9636-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불암리 30번지
● 대지 300평, 건물 3층, 방 23개
● 가액 : 4억 5천만원
"절터가 10년만의 발복이 난다"

042)841-474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월평동 (40평)
〈지하40평사용가능, 수련원운영적합〉
● 법당 외 방3, 주방2, 욕실2
● 삼존불, 약사불, 각단탱화
● 유동인구 많아 역학 및 포교원. 사암 사찰로 운영하실 스님, 법사, 보살님께 최적
● 보증금 : 1000만원, 월세40만
시설비 1200만원
● 몸만오시면 살림 및 즉시 법회가능

010-9226-0155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 몸만 오시면 됨

011-238-3990

부 산 대 사 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가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3억
● 20년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1층 60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2,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동
● 대지 : 130평, 건물 : 45평 (법당,산신각,방3칸,거실,주방,욕실)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임대, 양도가능

055)366-38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상가 4층중 4층, 아파트 대단지 밀집지역, 최고위치
● 평수 : 54평
● 거실,법당,요사채,원주실,목욕실
● 가액 : 1억 5천만원
● 주지스님 불사 관계로 급매

010-3443-285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800평, 요사채, 방4개,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 대지 : 300평, 법당 20평
● 방3개, 거실, 주방, 대도로변 조경, 잔디밭 200평
●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절충가능)

011-468-991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0-4100-9497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366평, 임야 40평
● 요사채 60평, 대웅전 33평
● 삼성각 10평, 실사용평수 약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조경잘되어있음
● 지하철 및 시내버스
● 가액 : 7억

011-9143-009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 70평
● 법당, 방3, 공양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에,월12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112-1823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영천터미널에서 10분거리
● 대지 200평, 주차장 170평
● 방5칸, 법당 15평, 심야전기 밖에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 2억1천(담보대출 가능)

011-769-7029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5평
● 임법당 : 13평(종교시설) 방2, 주차장 넓음
● 현재 법회 성황리에 진행중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7천 500만원

010-6357-5860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20평, 요사채2동 (약100평,30평)창고2동, 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사 찰 안 내

도심포교 관심있으신분 중
10억 이상 불사
가능하신분 전화요망
● 위치 : 울산지역

010-4752-8822

지리산 토굴안내

● 위치 :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 입구
● 평수: 양옥 슬라브 건평40평 보일러실 4평, 대지 198평, 전139평(주차장사용가능)
● 가액 : 2008년 감정가로 8300만원 협의
● 특징 : 앞이 트이고 샛강이 보이고 주위는 송림, 한적한곳

010-9452-480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
(비구니스님이나 무속인 최적지)
● 특징 : 평수 50만원,법당1, 방2개,마당넓음,기와집 독채
● 보증금 2000만원,월30만원
전세 5000만원

051)807-7328
010-6828-76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450평, 등기필
와가법당 20평 2층
● 요사채 38평(창고15평)
옥외화장실6평,6층 석탑(제주석)
● 불필요전화사절
● 가액 : 3억 8천 5백만원
방문시 절충가능

010-3791-7037

포 교 당 안 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대야동 보건소길 (부천방향으로) 대야 초등학교 근처
● 평수 : 13평 정도
● 삼존불, 소불 50불(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15만원
시설비 1300만원
※혼자하실 여스님 환영(주택가 도로 끼고 있음)
● 역학하실분도 관계없음
● 아담하고 법당1, 방1, 뒷마당 조금
● 저렴한 월세이기에 부담없습니다
● 저는 넓혀서 가기때문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 꼭 하실 분 전화요망 ※

010-7322-8593

산좋고 물좋은 대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해동면 매리 계곡 유원지 앞
● 연꽃 속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남향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전기, 수도, 전화, 도로, 수백톤 자연돌과 조경이 잘 돼있음
● 관리지역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전 4,410평, 총 4,610평
● 가액 : 7억5천(이민관계로 급안내)

018-223-2101 주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230-1
● 대지 360평
● 건물 : 임법당 40평
● 관세음보살계십니다
※ 100여가옥이 사는 마을
맨뒷집(산자락)
명당이라 첫눈에 반할 겁니다
직접 와보세요
● 가액 : 7,000만원

011-621-954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부지200평(등기165평)
● 한옥2동,법당,요사채
정원 및 주차장
● 주변 아파트 대단지
상가,학교 인근지역
● 교통 사통팔달,정남향
● 가액 : 융자 6천만원포함
2억1천만원

010-3693-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법당 20평, 요사 30평
● 대지 151평
● 가액 : 9천 5백만원
※ 인근국가공단과
한방특구공단조성
교통 편리한 사통오달

011-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 IC에서
10분거리
● 면적 : 총500평(대지+부지)
● 목조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5억

011-9505-98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아파트 대단지 밀집
● 천수관음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 상가건물 3층 총 37평
● 법당,미타,3존불,중단탱,감로탱
● 방,주방,욕실,기본집기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약간

010-3033-10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2동 광안리 해수욕장 5분거리
● 반지하 55평
● 법당,방1,공양간1,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526-9022

사찰안내 및 임대

현, 대한불교조계종 호국관음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서동
중앙시장 맞은편 상골목
● 실평수 60평
● 오존부처님, 탱화 6개, 밥상, 에어컨 등등
방 2, 부엌 1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2593-8590
054)772-85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위치 : 서울
● 부지 : 270평	● 대지 : 90평
● 법당 : 16평	● 법당 : 18평
● 요사 : 30평	● 요사 : 20평
● 가액 : 6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안내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껏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립(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양산 대사찰(부산근교)
● 법당 35평 5포(보일러시설,에어컨 완비)
입상불 및 3000불전 ● 대지 1500평 ● 가액 : 15억
● 종각 :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완비
● 삼성각 : 칠성불, 산왕불, 나반존자
● 요사채 : 100평, 2동, 방10칸, 전체심야전기보일러
● 공양간 별도 30평, 완전시설. 산세수려, 큰계곡

010-9797-5477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 부지 : 194평
● 법당 1채, 요사채 1채
● 제주항공에 10분거리, 신제주 5분거리
구, 제주 10분거리
● 가액 : 3억 5천만원

018-590-3583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6739-6426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223-7757

“가도 아미타 앉아도 아미타 바빠도 떠나지 않겠네”

<29> 선사(禪師) 문하의 거사들(10)

조사선(祖師禪)의 기치가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방온(龐蘊), 육긍(陸亙), 배휴(裴休) 등의 뛰어난 거사들이 출현하고, 거의 동시대에 민중시인으로 유명한 백거이(772~846) 역시 거사불교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백거이 거사는 자(字)는 낙천(樂天), 태원(太原)의 하규(下邽)사람이다. 거사는 가난한 하급관료 집안의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해 시작(詩作)에 능했다. 정원(貞元) 3년(787) 16세의 소년으로 수도인 장안(長安)에 당시 유명한 시인을 찾아가 자신의 시를 보여주려고 했다. 시인은 초라한 행색과 ‘머물기 쉽다[居易]’는 의미인 거사의 이름을 보고, “장안의 쌀값이 비싸므로 머물기 쉽지 않겠군![居住不易]”이라고 말했다. 거사의 시를 읽고 난 후에 시인은 “이러한 시구(詩句)를 능히 쓰니, 머물기 어렵지 않겠다[居不难]”라고 말하면서부터 거사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중시인 백거이 거사 항주태수 시절 도림 선사 만나

“임종시 여만 선사 묘탑 옆에 묻어달라” 사제 정 ‘각별’

거사는 정원(貞元) 14년(798) 진사에 합격해 원화(元和) 2년(807)에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시작으로 좌습유(左拾遺), 항주(杭州)자사, 소주(蘇州)자사 등으로부터 비서감(秘書監), 하남윤(河南尹), 형부상서(刑部尙書) 등의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거사의 전기에는 거사가 시를 쓰고 난 후, 항상 글을 모르는 할머니에게 읽어주어 능히 이해되는가를 물었다고 전한다. 그 때문에 거사의 시는 대체적으로 평이해 여러 비평가로부터 속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도리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거사의 생존시 이미 그의 시는 일반 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식당이나 여염집 담벼락에 써 붙여지기도 했다. 거사의 현존하는 작품 수는 약 3800여 수이고, 그 가운데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은 불멸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하는 그의 작품집은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75권 가운데 71권이 있고, <백향산시집(白香山詩集)> 40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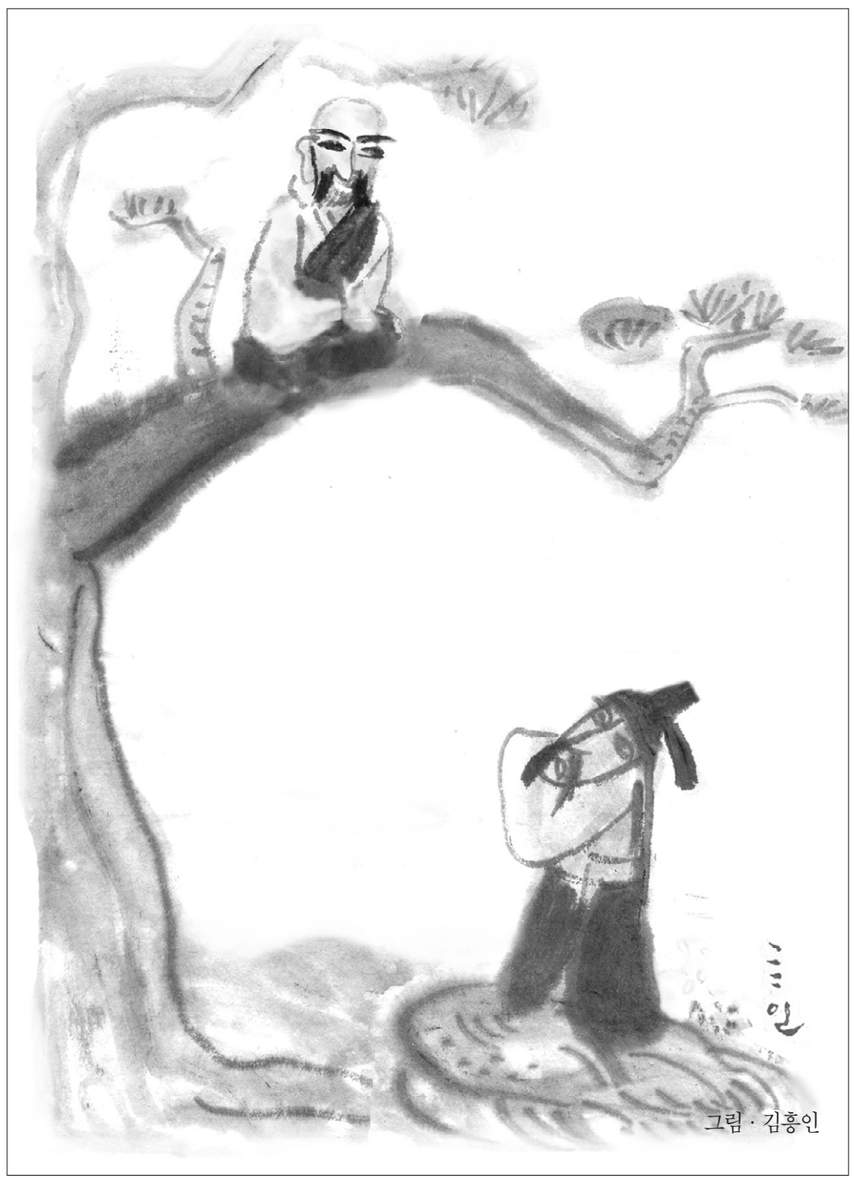
거사는 이백(李白)이 사망한 지 10년 뒤, 두보(杜甫)가 사망한 지 2년 뒤에 태어나 같은 시대의 한유(韓愈)와 더불어 당대(唐代)의 4대 시인이라는 의미인 ‘이두한백(李杜韓白)’으로 병칭된다.

거사는 중년에 이르러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40세에 모친을 여의고, 이듬해에 어린 딸마저 잃게 된다. 이로부터 거사는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됐다. 거사는 성품이 강직해 항상 직언(直言)을 했고,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시들을 썼다. 결국 고관들의 미움을 사서 구강(九江)의 사마(司馬)로 좌천됐다. 팽제청의 <거사전>에 따르면, 이러한 좌천은 오히려 거사에게 더욱 불전(佛典)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했고, 더욱이 구강은 역대로 뛰어난 고승이 많았던 여산(廬山)과 인접해 이 시기에 많은 선덕(禪德)들과 교류했다고 한다. 헌종(憲宗)이 죽고 목종(穆宗)이 즉위하면서 다시 거사를 중앙으로 불러 중용하자 거사는 신명을 바쳐 임무를 다하고자 전력한다. 그러나 권력다툼에 회의를 느껴 거사는 항주(杭州)태수를 자청했다.

항주태수 시절 거사는 아름다운 항주의 풍광과 수많은 지기들을 만나 시세계가 더욱 풍부해져 유명한 <비파행> 등을 쓰게 됐다. 또한 이 시기에 불교에 더욱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거사분등록>에는 항주 태수 시절인 원화(元和) 15년(820)에 조과도림(鳥窠道林) 선사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거사가 조과도림 선사를 참알해 물었다. “선사가 머무는 곳이 너무 위험합니다.” 도림 선사는 “태수가 더욱 위험합니다”라고 하자 거사는 “제자는 진강산(鎭江山)에 있는데, 어찌 위험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선사는 “섶나무와 불이 서로 만나듯이 식성(識性)이 멈추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거사가 다시 “무엇이 불법의 대의(大義)입니까?”라고 묻자, 도림 선사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뭇 선을 받들어 행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라고 했다. 그러자 거사는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을 어찌 말하십니까?”라고 항변했고 선사는 “세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지만, 팔십 노인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거사는 예를 갖췄다.

이는 <경덕전등록> 권4 항주조과도림선사전에도 실려 있고, <대혜보각선사어록> 등 여러 어록과 <오등회원> <지월록> 등 공안집에도 실려 있다. 도림 선사는 ‘새둥우리[鳥窠]’라는 외호가 말해주듯이 높은 나무위에서 좌선을 즐겨했다. 그에 따라 거사가 보기에 위험하다고 말하자 도림 선사는 온갖 번뇌망상이 마치 섶나무에 불이 붙은 듯하니, 도리어 거사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불법의 대의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뭇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이른바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의 앞부분을 말하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김흥인

그러나 거사가 마음 깊이 받든 선사는 마조(馬祖) 선사의 사법(嗣法)인 불광여만(佛光如滿) 선사였다. <경덕전등록> 권10에는 마조의 사법인 불광여만 선사의 제자로 유일하게 거사를 들고, 거사의 전기를 싣고 있다. 관련된 자료로부터 거사가 여만 선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받았는지는 나타나있지 않다. 다만 <경덕전등록>의 여만선사전기에 선사가 동도응(東都凝) 선사로부터 ‘팔참지목(八漸之目)’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거사분등록>의 백거이 거사전에 동도응 선사의 ‘관(觀) 각(覺) 정(定) 혜(慧) 명(明) 통(通) 제(濟) 사(捨)’의 여덟 조목과 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설명들에서는 이른바 마조 선사 홍주종 계통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시불(卽心是佛), 무심시불(無心是佛)’의 활달한 기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거사는 만년에 형부상서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낙양(洛陽) 향산(香山)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을 보시해 향산사(香山寺)로 만들고 여만 선사를 모셨으며, 자호(自號)를 ‘향산 거사’라고 했다. 거사는 여만 선사를 극진하게 모셨으며, 임종시에 가족들에게 여만 선사의 묘탑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각별한 사제의 정을 가졌다.

거사는 향산사에서 여만 선사와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결(結)한다. 이는 ‘정토결사(淨土結社)’이다. <거사전>에 따르면, 이에 앞서 거사는 태화(太和)년간에 동도(東都) 장수사(長壽寺)에서 승속 140인과 미륵상생도(彌勒上生圖)를 그리고, 함께 도솔내원(兜率內院)에 왕생하기를 발원했다고 한다. 또한 거사는 3만 전(錢)을 보시해 화공에게 서방의 극락세계를 그리도록 했는데, 높이가 9척(尺; 2m 10cm)이고, 넓이가 1장(丈) 3척(3m 90cm)이며, 아미타불을 주존(主尊)으로 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좌우로 협시했고, 백만의 인천(人天)이 둘러싸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누대(樓臺)는 칠보 등으로 경전에서 설하는 것과 같이 장엄했다고 한다.

명대(明代) 광귀(廣貴)가 편찬한 <연방시선(蓮邦詩選)>에 실린 거사의 <염불게(念佛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나이 일흔 하나인데, 다시는 풍월로 일삼지 않으리. 경전을 보자니 안력(眼力)만 소모되고, 복을 짓자니 세파에 휩쓸릴까 두렵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안(心眼)을 제도할것인가? 한 구절 아미타가 있도다. 가도 아미타, 앉아도 아미타, 바쁘기가 화살 같아도 아미타를 떠나지 않겠네. 달인(達人)들은 분명 나를 보고 웃으며 아미타를 뿌리치겠지. 통달하면 어찌 되고, 통달치 못하면 또한 어떤가? 통달하고 통달하지 못함을 말하지 말고, 모름지기 아미타불만 염하리,”

이와 같이 거사는 선가(禪家)의 법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토(淨土)에 상당히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구강에서 사마의 직책을 역임하는 기간에 여산 동림사(東林寺)의 동진 혜원(慧遠)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최초의 정토결사이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연화사(蓮華社)’에 입사(入社)한 사람들과 교류했던 영향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사의 시가 다른 시인과는 달리 보다 민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때, 아마도 선, 더욱이 홍주종의 격외(格外)의 활달하고 난해한 선을 민중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오히려 정토에 더욱 치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사의 법맥은 여전히 선가(禪家)에 편입시키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후대의 선종 문헌에 거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후대에 선종이 ‘선정일치(禪淨一致)’의 기치 아래 점차적으로 정토와 혼합됐던 것에 기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사가 선으로부터 정토에 들어간 선범(先範)을 보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 정보 722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중심권. 큰 길변
● 가액 : 2억 절충가
● 스님 사정상(유학) 양도
010-732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탄현동 상가 4층 중 3층
● 평수 : 약 70평
● 법당30평,방3,주방,대형주차장
● 보증금 2천만원/월1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현재 포교 성업중 지방 이전 관계로 양도
031)941-051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 약 30평
● 법당 약 25평, 요사10평
● 교통 매우 편리,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411-530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 평수 60평, 법당20평
● 방 3개, 마당있음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 시설비+보증금 4,500만원 월80만원
02)916-2977
02)919-333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2층 50평
● 대형 재래시장 주변
● 법당 25평,방3,주방,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 지방 이전 관계로 ‘급’ 양도
011-9342-9794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대지 :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요사채,접견실,승방,
● 화장실,신도숙소(등기건물 외 건물 약 30평)
● 가액 : 2억 9천만원
019-379-999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
● 위치 :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기와지붕,목욕탕 수세실화장실,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010-3169-536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최고의 위치 지하철 바로 앞, 대로변
● 평수 : 70평 6층건물중 6층 옥상이용 주차편리
● 보증금 : 6000만원(조정가능) 월세(조정가능)
● 불교대학 운영중
011-704-1429

절부지안내
● 위치 : 용인시 남사면 소재
● 대지 50평, 시유지 48평
● 도로접, 건축물허가득 40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0-9915-5788

포교당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맞은편)
● 평수 : 약 20평
※ 자리 중에 자리! 최고의 위치(역학상담)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3725-213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신만덕 부근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 총 35평(2층)
● 방3, 주방1, 법당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가능) 양도가능
010-4411-4108

포교당안내
● 위치 : 금정구 금사동 금사초등학교앞
● 평수 : 법당29평,요사채 방 2칸, 부엌 1칸 친견실1칸,시설완벽
● 보증금500만원 월32만원 (시설비별도)
010-8513-2357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지방도로 접
● 국유지내 맑은물 흐르는 계곡 접한
● 다목적 전2,000평과 전900평을
● 평당4만원
011-538-2211
시방사 주지 덕월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 사글세1년1,500,000 (백오십만원)전세도가능 방5개.주방.욕실.법당.산신각
● 영주제일고등학교 건너편 산에위치한 금명사
● 시내인근지역이므로 교통편리하고.위치가좋음
011-9370-7513

암자(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아미동
● 월세(전세가능)
● 대지 92평/ 당산 별채 방2칸
● 법당 大,방大,부엌,텃밭,에어컨 시설 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30만원(시설비 없음)
● 답사후 절충 가능,매매 가능
017-552-1960
016-561-6865

도심속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대지 : 50평
● 법당 : 21평, 2층
● 목조신축 2년, 단청필, 삼존불(동불),각단탱화, 108호신불(동불),
● 요사 30평 1층,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1천만원 (융자 8천포함)
010-8642-6797

사찰 대여 하실분
● 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소재
● 산사사찰로 법당과 요사채등이 갖춰져 있지만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로 불사 성공과 유명 사찰이 되기를 원하는 창건스님또는 창건불자님
● 조건 : 2009년 불사준비기간이 끝나면 2010년 정월달부터는 매월월세를 지급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사찰양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 본회는 : 유명불자회로 현재 1000명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불자들이 수행 기도하는 도량을 만들고저 본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2011년내로 5000명 이상이 기도 정진하는 큰도량이 될것입니다.
010-9346-1207

웃음보살 불등거사 〈38〉

구성 : 김흥인



나귀의 젖을 짜 마시려는 사람들 〈백유경(百喩經)〉



옛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알지 못하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귀의 젖은 매우 맛있다' 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 때 그들은 수나귀 한 마리를 얻어 그 젖을 짜려고 서로 다투어 붙잡았다. 그 중에 어떤 이가 나귀의 생식기를 붙잡고 "이것이 젖이다"고 외쳤다. 그들은 그것을 짜면서 젖을 얻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지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한갓 수고만 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외도의 범부들도 그와 같다. 도(道)라는 말을 듣고는 구할 곳에서 구하지 않고, 망령되이 잡생각을 내고 갖가지 삿된 소견을 일으켜 발가벗기도 하고 스스로 굶기도 하며 혹은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거나 불에 몸을 던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삿된 소견으로 나쁜 길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망령되이 나귀 젖을 구하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업을 닦다 근수정업(勤修淨業)



고판화박물관수장 〈석씨원류초장 근수정업(勤修淨業)〉 편, 불암사판 1672년 간행, 비곡(飛谷) 272×180m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중국 정토종을 대성한 선도(善導)스님이 밤낮으로 정업을 닦아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선도 법사는 정토종의 대성자(大成者)로서, 정토종에서는 제3조로 받들어진다. 어려서 출가해, 명승(名勝)을 스승으로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을 배우고 십육관법(十六觀法)을 수행한 다음, 종남산(終南山) 오진사(悟眞寺)에서 정업(淨業)을 닦았다. 그 후 산시성(山西省) 현중사(玄中寺)의 도작(道綽)으로부터 정토 교의(敎義)를 배우고, 그 교의를 널리 폈다. 특히 염불을 소리내 제창하는 구칭염불(口稱念佛)을 권장했다. 본문에는 선도 스님의 설법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이것이 진실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나루 길목이다. 나머지 행업을 닦는 것은 편벽하고 우회하는 길이어서 이루기 어렵다. 오직 이 관문(觀門)만이 속히 생사를 초월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정토 교의를 기반으로 부지런하고 독실하고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예참하고 독송했으며, 밖에 나가 사람들을 위해 정토법문을 설법하며 30여 년 동안 잠시도 졸거나 눕지 않고 수행하며 실오라기만큼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또 모든 선물이나 보시해 오는 물건이 있으면 이것을 아미타불경 10만권을 베껴 쓰는데 사용해 장안에서 염불법문을 전수받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아미타불경을 10만권에서 50만권을 베껴 쓴 사람까지 있었고 염불할 때는 일과로 하루에 1만 번에서 6만 번까지 소리내 외우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 가운데 혹 염불삼매에 들어가 왕생정토한 사람도 다 기술할 수가 없었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 선도 스님이 30년 동안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말만 앞서는 오늘의 수행 풍토 때문일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정진하는 길 밖에 없지 않을까. 선도 스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정진의 날을 세워본다.

마음대로 온갖 쾌락을 즐기더라도 (任是千般快樂)/죽음은 끝내 찾아오느니(無常終是到來)/오직 지름길의 수행이 있으니(唯有經路修行)/다만 아미타불만 염불하여라.(但念阿彌陀佛)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연꽃—화산방죽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기도 하지마는
밥하러 가야하기에 마지못해 떠나구나

이승의
끼니 거르는
중생들을 위해

—김해인/정형시집 <이화>에서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 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나를 수억겁 끌고 다닌 믿음직한 나부터 믿으세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지요

문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면서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요? 꼭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되나요?

답 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이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어떤 병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얼른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온 업보가 녹아지지 않는다면, 내 이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해 주지 않는다면 작용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 그 과거의 의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갖가지로 나오는 걸 나온 거기다가 다시 놓으면, 한데 모아서 합쳐서 놓으면 다시 놓는 거마다 한데 합쳐집니다. 왜 콩깍지도 익은 콩깍지 있죠? 익은 콩깍지를 탁 치면 콩알이 싹 빠지고 껍데기만 싹 남듯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 이만하면 가도 괜찮겠다' 할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 그렇게 많이 고생을 안 하고 얼른 그 무명을 벗을 텐데, 영혼은 자유스럽게 돌아가고 그럴 텐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콩깍지가 익질 못해서 아주 파란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각기 아우성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 되면 이놈의 거를 강제로 벗겨 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속살이 붙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온통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망령이 들고 이러질 않나, 또는 아파서 그냥 마냥 드러누워서 주위의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나. 이거는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서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하루나 이틀, 한 달 석 달 이쯤 앓는 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아주 봉양을 잘합니다.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만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건 자식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벌어먹고 살랴, 자식들 기르랴, 이러는 와중에 자식들은 속썩이랴, 부모는 누워서 앓고 있으랴 이런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도무지 이 속에서 불이 나서 이젠 잘하다가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드러눕는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저놈의 자식이 저러느냐. 내가 저거를 먹지 않고 기르고 쓰지 않고 가르치고 이랬는데 저놈의 새끼가 저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 그 인과의 법은 점점 점점 원한이 자꾸 자꾸 서리고 가슴에 못이 박혀서 또다시, 끼리끼리 또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승천을 하려는데 그렇게 원한이 있고 그래 가지고야 승천을 할 수가 있나요? 길을 갈 수가 있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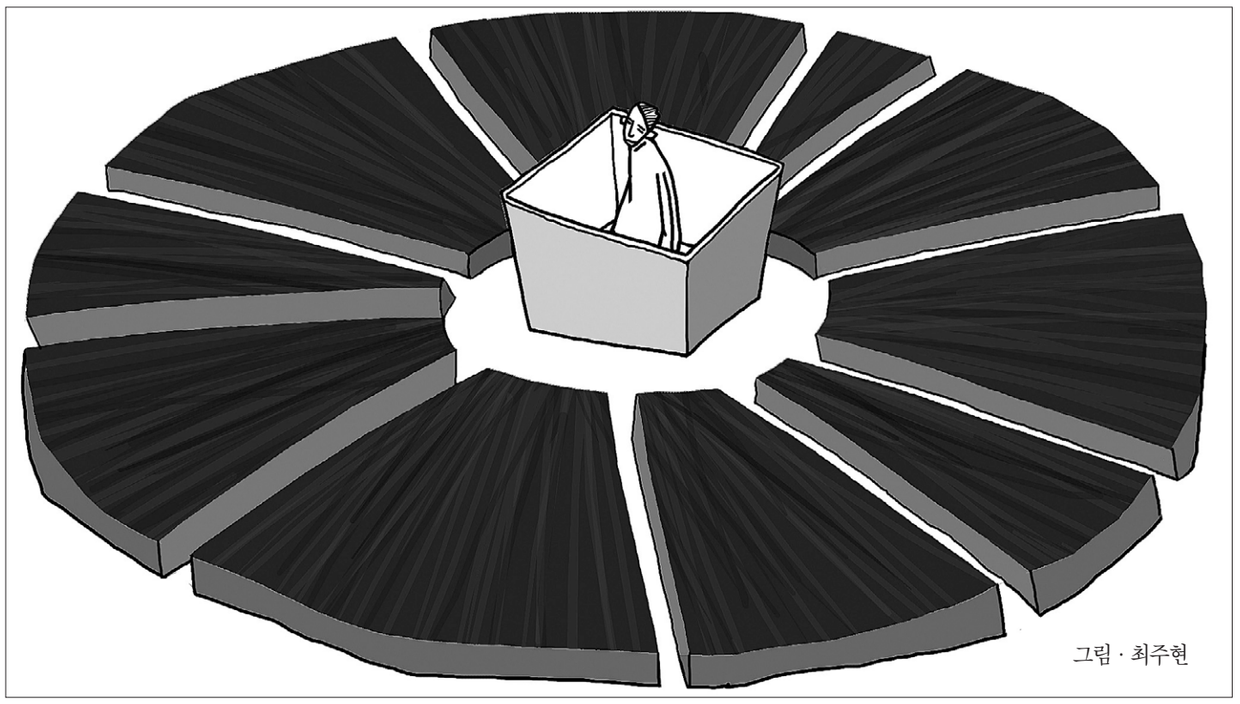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 뭐가 만날 뒤주에서 쌀만 푸러 가면 작작 작작 작작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쌀 푸는 거 많이 풀까 봐, 옛날엔 먹을 게 주저로워서 말입니다. 그 많이 퍼서 헤프게 먹어서 집안 망할까 봐, 그게 머리에 사무쳐서 그냥 구렁이가 돼서 그 뒤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말입니다. 작게 뜨라는 거죠, 작게 뜨라는 거. 그렇듯이 모든 것에 착을 두면 그 착에 의해서, 죽어도 벌써 그 의식이 그걸 꼭 끼고 돌아가니까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배낭을 짊어지고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루살이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하루살이로 살아도 늠름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바둥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력이나 능력을 기르라는 얘깁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가 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 두렵고 또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아무리 해 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아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똥 누는데 대신 눠 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신 자 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신 먹어 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대신 아파 주는 사람, 대신 죽어 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부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부처님 동생이 있었는데 "나도 부처님같이 깨치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상 들여오너라." 겸상을 차려서 상을 들여오게 해 놓고 동생의 밥을 그냥 먹어 버렸어요. 그러고 "너, 배부르냐?" 하고 물었어요. "아, 오라버니가 잡숫고 제 배가 어떻게 해서 부릅니까?" 하고 대답을 했죠. "그거와 똑같다. 네가 하지 않는 일을 어찌 내가 너의 일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다른 거는 대신 해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은 대신 해줄 수가 없느니라." 이러셨답니다.

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 건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알면 성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거를 다 제쳐 놓고라도 이 도리는 꼭 배워야 할 도리입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자기 정신이 먹혀버려

문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다른 영혼들에 의해서 자기 정신이 완전히 먹혀 버린 그런 사람들을 퇴마사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명도 넘는 영혼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뱀의 영혼이 들어와서 뱀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스님, 어떤 인연으로 그런 영혼들이 접신을 하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요즘에는 영계성에 휘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길에 오다 가다가도 영계성이 나한테 유전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속에서 의식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지은 악업 선업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입력이 된 것이 솔솔 풀려나오는가 하면 바깥에서 오고 가면서 영계성이 나한테 부딪히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이런 것들이, 윤회성은 대대로 물려 가면서 돌아오지만 영계성이나 세균성 이 자체는 때에 따라서 길에 오다 가다가도 딱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심하면 뭐 때려부수기도 하고, 밥 먹지 말라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라 그러면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가만히 보면 이 신경이 급박해지면 그런 게 일어나기 쉬워요. 뭐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회사가 망했다든가 도무지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일이 생겼다든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거를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로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맡겨 놓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모두 나오는 것을 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한테다,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에다 다 맡겨야 한단 말입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그게 영계성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모두 맡기면 이 체가 없으니까 둘이 아니게 되죠. 둘이 아니게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의 주인 이 자체, 정말이지 나를 수억겁을 끌고 다닌 믿음직한 나부터 믿어서 나 영혼 자체가, 바로 이 의식적인 모든 영혼들이 한데 합친, 하늘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전부 주인공에다 진짜로 맡겨 놔 버리세요. 그러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좋은 기가 느껴지는데…

문 최근에 무슨 일로 저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안 좋은 기를 보내는 게 느껴져요. 근데 화가 나는 건 제가 그런 파장에 영향을 받아 내 기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 파장을 없애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스님?

답 그거는 모두 사람의 사량이에요. 사량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에 그렇게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체가 없는 내 마음은 이 허공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쪽의 마음내는 것도 영이고, 내 마음 가진 것도 영이에요. 영에다 영을 넣으면 몇이 되나요? 수많은 영을 영에다 집어넣어도 하나

☞26면으로 계속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불사
● 법 명 : 송담(강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4-5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법하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목소리 체형.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 락 처 011-9373-3778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벗벗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buddhanews.com

어떠한 게 다가와도 공심에다 놓는다면 무효 돼버려

☞25면에서 계속

도 없어요. 그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떠한 에너지를 빼가든지, 정신력을 뺏어 가든지 그 근본은 절대 못 뺏어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기의 주처가 완전히 섰다면 절대로 뺏어 가고 뺏어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상대가 잔뜩 화가 나서 "네 이놈! 너 어디 두고 보자." 하고서 달려든다 해도 "얘! 그러지 말고 추운데 들어가자." 하고선 들어가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랬어. 일단 뭐라도 먹고 얘기하자" 하고 아주 좋게, 나와 둘이 아니게 이렇게 정말 진정한 친구로서 대해줘 보세요. 그러면 악으로, 인연에 따라서 업보로 인해서 나한테 닥치더라도 모든 것이 나하고 둘이 아니게 '그것도 내 주인공이야.' 한다면 그 악으로 달려들었던 것도 선으로 그냥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아 버리게 마련이거든요.

마음이 이런 물질이라면 안 되겠지만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어떠한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없는 나한테, 모든 거를 공에다가 즉, 공심에다가 모든 거를 놓고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한다면 그게 그대로 무효가 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 재료로 삼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유심조라는데…

문 스님, 언제나 자상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인가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답 그렇죠.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니깐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도 동시에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을 움죽거리고 이러죠. 근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살라고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자유롭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생각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마음 빼놓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중세계라고 하는데,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 이렇게 삼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죠.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얕아지고 차원이 아주 저 아래로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모습도 그 차원에 따라 나오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각자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거를 말해 주기 이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잠을 자 주고, 누가 대신 먹어 주고, 누가 대신 똥을 눠 주고, 누가 아파 주고, 누가 죽어 주고, 누가 깨닫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거니깐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었는데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나에게 또 작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 에누리가 없어요. '내가 주면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건전하게, 즉 말하자면 둥글게, 좀 밝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된 거니까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거 할 수 없다. 나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할 수 없다.' 이런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게 돼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못하죠. 여러분한테 자유스럽게, 마음도 말도 생각도 자유스럽게 줬는데도,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쓰라고 했는데도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러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움죽거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내 이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 '진짜 너만이 이 몸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줄 수도 있고, 너만이 해결사가 돼줄 수도 있다.' 하고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맡기고 자유롭게 사세요. 자기 이 몸이 싹이라면 오직 자기 뿌리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깐요.

내 탓으로 돌려지지 않아

문 스님,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극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내 탓으로 돌려지질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 탓인 것만 같고 저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상대를 미워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따로 놀게 됩니다. 저의 공부가 부족한 탓이니 저를 한번 꾸짖어 주십시오.

답 우리 마음에서, 들이고 내는 그 작용을 내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억겁 전년서부터 지어 내려온 그 얽히고설킨 사연을 남의 걸로만 돌린다면 괴로움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끄달림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고 뺏고 하는 그 모든 부딪침에 의한 것을 내가 내 탓이라고 돌렸을 때,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렸을 때,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것이 바로 내 탓이로구나 하고 나의 주처에 한생각 돌렸을 때, 바로 그 괴로움도, 외로움도, 고독함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마음을 쉬게 됩니다. 남이 나를 때렸다, 나를 성가시게 한다, 나를 도둑으로 몬다, 나를 증오한다, 나를 원망한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일체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주인공에다 몰락 다 놔 버린다면 모두가 잔잔히 쉬게 되고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미움에서 미움으로서 얽힌다 해도, 끊어지지 않고 나를 증오하고 미워한다 해도 나에게 돌리고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 미움은 돌아오지 않기에 더러운 물방울 하나 묻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르고 옳음에 있어서, 나쁘고 좋음에 있어서 이것을 항상 따지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나쁘고 좋다, 또는 이건 나쁘니까 안 먹고 이건 좋으니까 먹고 이런 것을 따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크고 작다 이런 거를 논의하고 따진다면 결국은 어떠한 조그마한 부딪힘에도 나는 쓰러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나쁘고 좋은 걸 몰락 놔 버렸을 때, 나쁘다 좋다 둘이 아닌 그 중심이 완벽하게 섰을 때는 어떠한 끄달림에도 쓰러지지 않게 돼 있죠.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마음 주처에다가 다 몰락 놔 버리세요. 그런다면 그 사량의 분별과 더불어 산란함은 다 사라지고 참 조용하게 자기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애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요

문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너무나 음식을 너무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맞벌이 한다고 제가 너무 애들한테 소홀했나 봅니다. 애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이끌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모든것을 일체 자기 탓으로 돌리고
> 자기 주인공에다 몰락 다 놔버린다면
> 모두가 잔잔히 쉬게 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답 여러분이 앞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밥을 먹게 돼도 항상 감사하며 밥을 먹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고 피땀을 흘려서 벌어다가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속으로 '아버지,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조그마할 때부터 그런 걸 길러 주십시오. 그런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애들은 나가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와 모든 자비, 사랑을 말해 줘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이 뜻을 간단하게 "너의 주인공은 너를 끌고 다니고 너를 도와준다. 딴 사람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너를 위하지만 네가 저기 나갔을 때, 바깥에 나갔을 때는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를 돕고 다니는 거는 네 주인공밖에는, 너 자신의 주인공밖에는 네 몸뚱이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일러 주세요,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이 나무로 친다면 뿌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를 아무리 붙들고, 잎새를 아무리 붙들고 싱싱하게 만든대도 그것은 아니 됩니다. 뿌리를 썩지 않게, 뿌리를 도와서 항상 싱싱하게 해 주면 바로 그 가지나 이파리가 얼마나 싱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금 실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감응이 오고, '아하!' 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을 어쩌나 하고 있지만 말고 무엇보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그 마음이 진실되게 전해지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괴로웠어요

문 스님, 저는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도 속앓이 하다 돌아가셨고 매사에 불평이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큰스님 법문을 만나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을 아주 나쁘게 쓰면 금생에도 괴롭지만 내생에도 괴로워진다는 말도 하던데 스님,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참회하기 위해서 뭐든지 힘닿는 대로 해 보고 싶습니다.

답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는 강원도다 여기는 철원이다 이런 것을 다 써 붙이게 돼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지하게 돈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하자면 무지한 나의 희생이 따르고 무지한 인내가 따르고, 믿음이 따르고 의단이 따르고, 의욕이 따르고 용단이 따르는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좋은 일을 했다 이러고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왔다 하고 얘기하지, 그게 조그마한 일로 그냥 그렇게 길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말없이 묵묵히 내가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데 옷도 잘 입지 못하고 먹지도 잘 못하고 그냥 그 고속도로만 열심히 닦으며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옆에 뭐가 필요합니까? 고속도로만 열심히 하고 나가고 '강원도다 철원이다. 즐을 친다. 무슨 어디 이거 해 놔야지. 깜박이 해 놔야지.' 하는 거는 나중이에요. 이거는 고속도로만 해 놓게 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서 벌써 이건 표시가 되고 이렇게 수신도 통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해 나가는 데는 그러한 역경이 아니라면 자기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귀중한 자기의 보물을 맛볼 수 없다.' 이겁니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런데 '너는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마음을 쓰면 살아서도 괴롭고 죽어서도 괴롭고 양쪽이 다 괴롭다.' 이러는데 양쪽이 괴로울 것도 없는 거죠. 왜?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마음인데 어디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벌써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신작로를, 고속도로를 하고 나가는데, 두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은 나쁜 길이고 이 길은 좋은 길이다 이러면 이건 벌써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길이든 좋은 길이든, 이 좋은 길도 네가 한 거고 나쁜 길도 네가 한 거기 때문에 나쁜 길과 좋은 길을 싸잡아 쥐고 너는 지켜봐라. 어떤 게 좋은가를 너 스스로서 지켜봐라 이거거든요, 지금 나는. 그러면 내가 다시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거머쥔 채 자기는 '아하, 이것을 운전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로구나. 나침판이 바로 나로구나.' 하고서 그 운전대를 자기가 거머쥐고 돌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는, 즉 말하자면 '내가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쁘더라. 그러니 모든 걸 몰락 거머쥐고 모든 거는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잘 돌리고 내가 그대로 여여하게 잘함으로써 그것이 내생이 따로 없고 현생이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더라.' 이러고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애(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의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낭비벽이 심해 빚 더미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천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 진 암 선 운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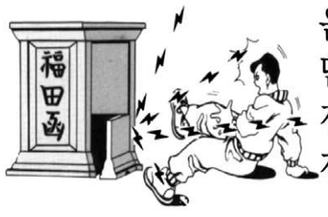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122회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3월 14일(토) 저녁 9시~
2009년 3월 15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 아프신분(팔관애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티베트 문제는 티베트인에게…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 거의 1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이른바 '반(半) 식민지' 상태를 겪으며, 여러 열강들이 이권을 나누어 갖고 중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한 역사가 있다. 심지어 "중국인과 개는 출입을 금지함"이라고 쓴 팻말이 구미(歐美)의 식당마다 내걸릴 정도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새로 독립한 제3세계 여러 국가들이 호의를 가지고 중국을 '우방'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워온 '제국주의 반대'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을 뿐임이 곧바로 드러난다. 이슬람교도들이 다수를 이루는 위구르지역과 독특한 문화 전통을 간직해온 티베트를 점령해 자치구로 편입시켰지만, '자치'는 허울뿐 실제로는 식민통치와 다름없었다. 중국이 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일제를 비롯하여 과거 악랄했던 식민제국주의자들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니, '독립의 기운 자체가 피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AP와 AFP 등 주요 통신사가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티베트의 설날 축제 기간을 맞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시추안(四川)성의 티베트인 다수 지역의 작은 도시인 아바(Aba)에 스님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스님이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티베트 국기를 흔들며 분신을 기도하자 중국 경찰이 곧바로 총격을 가해 사망했다고 한다.

처음 티베트를 강점한 이래 변함없이 중국은 "티베트는 역사상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티베트 민족은 분명히 한족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포함한 고유문화 전통을 꽃피워온 오랜 역사가 있다. 특히 이들이 발전시켜온 독특하고 정교한 불교 수행과 교학(敎學) 체계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티베트가 본래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티베트 민족은 중국인의 일부"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이 옳다면,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죽음을 무릅쓰고 수천 미터 높이의 눈 덮인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이나 인도로 탈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에 점령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독립'과 '진정한 자치'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마다 티베트 설날이 다가오면 티베트인들보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긴장하며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 속담에 "맞고 온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자지만, 매를 때린 놈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중국이야말로, '독립'을 요구하며 깃발을 한 번 흔들고, 분신을 기도했다고 해서 곧바로 총격을 가해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것은 아닌가?

이 불안감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티베트에 병력을 증원해서 주둔시키고 일체의 종교 행위와 모임을 금지시키면 될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국 정부와 불교계가 '세계 화합'을 주제로 제2차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홍콩 불교계가 함께 주관하여 '중국 불교계의 화합'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서쪽 티베트에서는 스님들을 핍박하고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중국에서 말하는 '세계화합'에 티베트는 빠져도 되는 것인가?

그대들의 불안감과 공포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국 당국은 티베트 문제 해결을 티베트인들에게 맡기는 진정한 세계 화합의 길에 나서라.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나눔의 횃불 활활 타올라야

조계종이 전국적인 자비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실물경제는 물론 마음까지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바람직한 행보다. 불교는 중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다. 당장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나누는 자비의 실천은 불교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다. 물질적인 나눔만이 불교정신의 사회적 실천은 아니다. 지혜도 나눠야 한다. 무외시(無畏施)로 표현되는 마음의 위로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심어 주는 일 모두가 지혜의 나눔이다.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인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계종이 앞장서서 자비나눔 운동을 선언한 것은 많은 상징성도 갖는다.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불교계 내적으로도 기대가 크다. 그간 불교계는 여러 사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었다. 자비나눔 운동은 그러한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불교 본래의 면모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굳이 이러한 조건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이 운동을 계기로 불교가 이 사회에 보다 따뜻한 귀의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곧바로 적지 않은 단체와 개인의 동참 의사 표시가 있다는 것이 매우 희망적으로 들린다. 운동을 추진하는 조계종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더욱 내실 있는 불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나눔의 횃불이 활활 타올라 얼어붙은 경제를 녹여주길 기대한다.

계층별 타깃 포교 절실하다

'쟁점법안'을 두고 토론과 합의의 모습이 아니라 격론과 폭력적 대립만 보여 주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던 국회에 목탁소리가 울려 퍼졌다. 3월 4일 국회정각회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가진 것이다.

이 날 국회에 울려 퍼진 목탁 소리는 여느 목탁소리와 다른 의미를 가졌다. 이 법회를 계기로 국회 정각회와 국회의원불자회가 정기적으로 스님들을 초청하는 법회를 하겠다고 발원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원을 계기로 앞으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포교원이 주관하는 정기 법회가 열린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추락을 불자들이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일을 계기로 조계종 포교원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바로 특수계층에 대한 타깃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에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상존한다. 경제인들과 경영인, 금융권과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향한 전문화된 포교 매뉴얼이 필요하다. 공무원불자회나 직장불자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접근해야할 계층별 타깃 포교가 왜 중요한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 그를 위한 매뉴얼은 물론 연구와 기획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미세하게 분화돼 있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포교 블루오션'이 존재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점검해 봐야 한다. 거기에 불교의 미래가 있을 것이므로.

현불만평

박구원



행복하게 떠나는 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내게 있어 초심은 원력성취의 원동력"

3월의 테마-처음처럼

산중을 떠나 도심 속을 뛰어다닌 지 10여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다. 불현듯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고 싶었다.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정리하고 의아해 하는 주변의 시선을 외면한 채 만행길에 올랐다. 그리고 나섰던 그 길에서 돌아오기 까지는 일 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돌아오자 나는 곧장 산사에서 두문불출하고 기도만 했다. 떠났던 시간들에 대한 의미를 정리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자 비로소 그동안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그 무렵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수도권에 소재한 종립 고등학교 교법사 권유를 받은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런데 그 제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거듭 됐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하고 말았다. 천명을 웃도는 학생들 앞에 서니 불현듯 잊고 지냈던 학창시절의 꿈이 생각났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음을 기억해 냈다.

집안 사정상 늘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지냈던 나는 선생님들 덕분에 자칫 잘못될 수 있었던 사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에 생생할 만큼 그분들의 사랑은 깊고 넓었다. 그 시절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 옆에 늘 상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출가자에 대한 동경이 어느 순간 강렬한 힘으로 나를 뒤흔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덕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런 꿈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망각하고 지내게 됐다. 그러나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變正覺)이라 했던가. 근래 들어 취업난으로 인해 교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기 직종이 됐다는 현 상황에서 볼 때 부럽기 짝이 없는 교사가 된 것이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며 지낼 수 있게 됐다.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우려 속에서도 미약하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현실이 고맙게 여겨지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시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라고 다행스러워 하는 한편, 이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창시절에 꿈꾸었던 간절한 '초심'이었다. 내게 있어 초심은 원력을 성취시키는 강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스즈키 선사는 <선심초심(禪心初心)>에서 초심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요, 모든 것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이 긍정의 힘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간절히 원하던 그 자리로 이끈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유례없이 높은 실업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이때 누구든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초심을 갖는다면 실업인구 비율을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사회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혜정 스님
의정부 광동고 교법사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사포교원 **해운대불교회관**

개원기념 월탄큰스님 초청 미륵10선계 수계 대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옆 영축사에서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포교의 요람이 될 해운대 불교회관을 마련하여 오는 19일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을 조성하셨던 월탄큰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가운데 불교회관 개원식 및 미륵 10선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수계식 동참금** : 3만원
▮ 선망부모 영가,수자(태중)낙태영가 이름지어서 같이 천도하여 드립니다.
미리 미리 접수하여 주시면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 **일 시** : 불기 2553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 오전수계 못 받으신 분을위해 오후8시 수계법회가 열립니다.
- **장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324-8 영축사 해운대 불교회관
  (지하철 중동역 4번출구 번개조명 입구)
- **문 의** : 051)747-5108 FAX : 747-9887

※ 사찰의 경제사정으로 객스님들의 보시는 없습니다.

▮ **성지순례 접수안내**
4월 7일 부터 12일 까지 (4박 6일) 캄보디아 성지순례 접수중

영축산 영축사 해운대 불교회관 포교원장 각 문 합장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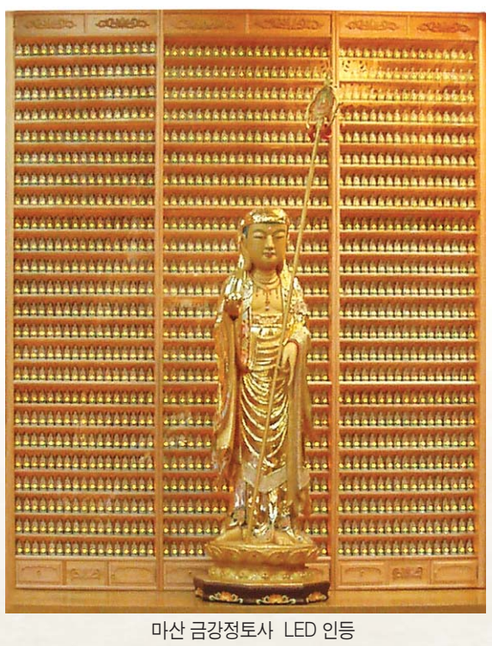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